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어 하-’의 통합 양상과 의미기능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미 주

'-어 하-'의 통합 양상과 의미기능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김 미 주

김미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박 진 호 (인)

부위원장 황 선 엽 (인)

위 원 문 숙 영 (인)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국어 '-어 하-' 구성의 통합 양상과 의미기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 하-'의 선·후행요소를 살핌으로써, '-어 하-'가 공시적인 문법 구성으로서 여러 의항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간 '-어 하-'는 심리·감각 형용사와의 결합 구성을 대상으로, '동사화', '인칭 제약의 완화', '자기조응성, 증거성 등의 양태적 의미' 등의 기능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말뭉치에서 '-어 하-'는 심리·감각 외의 다양한 범주 뒤에서도 나타나, 그 의미기능 또한 보다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각 논의를 종합한 뒤, '-어 하-'를 여러 의항을 갖는 문법 구성으로 기술할 필요성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난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고, 주관성의 정도에 따라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심리·감각형용사가 나타내는 '개인의 내면 감정·감각 상태'는 발화시의 화자만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현재시제에서 주어가 1인칭 화자로 제약된다. 화자의 인식, 관점이 주된 의미가 되므로 주관성이 높다. 반면 내면 감정·감각과 관련되면서 외현적 행동까지 드러나는 경우와 인간의 성격·태도, 신체 동작을 묘사하는 의미 등은 타인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주어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고,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낮다.

이 중에서 신체 동작 의미는 기존 논의에서 선행요소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롭게 통합 양상이 발견된 경우이다. 또 화자에 따라 수용성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인물 관찰·묘사의 맥락에서 예외적인 통합 양상도 추가적으로 발견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 하-'의 선행요소 목록이 점차 확장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행요소의 의미유형별 '-어 하-'의 통합 요인을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난 통합 요인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였다. 먼저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 '-어 하-'가 통합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 '동작성 요구', '관찰 의미 강조'가 있었다. 반면 주관성이 낮은 부

류는 그 의미상, ‘-어 하-’ 통합 요인에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동작성 요구’, ‘관찰 의미 강조’가 요인으로 제시된다. 이 공통되는 두 요인을 매개로 ‘-어 하-’의 분포가 점차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찰’의 의미는 ‘-어 하-’가 빈번하게 사용되던 맥락으로부터 관습화된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 하-’가 3인칭 주어의 주관적인 내면을 서술하는 맥락에서는, 주어의 내면이 타인에게 관찰될 수 있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어 하-’는 인칭과 무관하게 동작성 충족을 위해서도 사용되면서, 관찰 맥락에 더 빈번히 쓰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찰의 맥락 자체에서도 인칭과 무관하게 ‘-어 하-’ 구성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점차 ‘-어 하-’ 구성 자체의 의미가 ‘관찰’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선행요소의 두 부류 모두에 ‘동작성’, ‘관찰’ 요인이 드러나며, 예외적인 통합 용례도 묘사·관찰 맥락에서 주로 드러난 것을 근거로, ‘-어 하-’의 분포의 확장에 두 요인이 중요하게 관여함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어 하-’ 통합 양상의 필수성 및 수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요소를 정리하였다. 3장의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라도, 후행하는 문법요소에 따라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수의적인 경향 등으로 달리 실현되었다. 각각의 문법요소와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4장에서 논의된 ‘-어 하-’의 통합 요인이, 주어진 통사적 환경과도 상호작용함을 보였다. 요컨대 이 논의는 ‘-어 하-’ 구성이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활발히 사용되며 그 분포도 확장해나가는 점에서 공시적인 문법요소라고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 의의를 둔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논의의 미진한 점들을 밝히며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 ‘-어 하-’, 관찰, 주관성, 주관술어, 인칭제약, 동작성, 증거성.
학 번 : 2021-21369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 목적과 대상 ····· 1
1.2. 선행 연구 ····· 6
1.2.1. '-어 하-'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 6
1.2.2. '-어 하-'의 의미에 대한 논의 ····· 7
1.3. 논의의 구성 ····· 10

2. '-어 하-' 구성의 의미기능 ····· 11
2.1. 동사화와 관련된 의미기능 ····· 11
2.1.1. 능동성 ····· 12
2.1.2. 외적 양상·행태적 표출 ····· 16
2.1.3. 동작성 ····· 21
2.2. 주어 인칭 제약의 완화 ····· 24
2.2.1. 주관 술어와 인칭 제약 ····· 25
2.2.2. 인칭 제약 완화 기제와 '-어 하-' ····· 28
2.3. 양태적 의미 ····· 32
2.3.1. 자기조응성 범주와의 관련 ····· 32
2.3.2. 증거성 범주와의 관련 ····· 38
2.3.2.1. 증거성 체계와 실현 양상 ····· 38
2.3.2.2. 주관 술어와 증거성 ····· 41

3. '-어 하-'의 선행요소 ····· 47
3.1. 선행요소의 분류 ····· 47
3.1.1. 주관성이 높은 부류 ····· 49
3.1.1.1.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 ····· 49
3.1.1.2.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 ····· 53
3.1.2. 주관성이 낮은 부류 ····· 57
3.1.2.1. 주어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 ····· 57
3.1.2.2.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 60
3.1.2.3. 일부 동작 동사 ····· 64
3.2. 선행요소 목록의 확장 가능성 ····· 65
3.2.1. 예외적 통합 양상과 확장 가능성 ····· 65
3.2.2. '-어 하-' 분포의 확장 요인 ····· 69
3.2.2.1. 인용 구성과의 형태적 유사성 ····· 69
3.2.2.2. 행위 수식의 우언적 구성 ····· 72

4. 선행요소 의미유형별 '-어 하-' 통합 요인 ····· 74
4.1.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통합 요인 ····· 75
4.1.1.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 ····· 75
4.1.2. 관찰 의미 강조 ····· 77
4.1.3. 동작성의 요구 ····· 80
4.2. 주관성이 낮은 부류의 통합 요인 ····· 83
4.2.1. 동작성의 요구 ····· 83
4.2.2. 관찰 의미 강조 ····· 89

5. ‘-어 하-’ 통합의 필수성과 수의성 ····· 92
5.1.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인 후행요소 ····· 92
5.1.1. 지시 화행 표현 ····· 93
5.1.2. 진행상 구성 ····· 95
5.1.3. 후행절과 주어가 다른 [원인]·[이유]절 어미 ····· 97
5.2. ‘-어 하-’ 통합이 저지되는 후행요소 ····· 99
5.2.1. [도급]·[정도] 의미의 어미 ‘-도록’ ····· 99
5.2.2.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이유] 어미 ‘-니까’ ····· 102
5.3. ‘-어 하-’ 통합이 수의적인 후행요소 ····· 105
5.3.1. 내포절 어미 ····· 106
5.3.1.1. 동사가 요구하는 보절 ····· 106
5.3.1.2. 관형사절 ····· 110
5.3.2.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원인] 어미 ‘-어서’ ····· 112

6. 결론 ····· 114

참고문헌 ····· 118
Abstract ····· 128

표 목 차

[표 2-1] ····· 17
[표 2-2] ····· 22
[표 2-3] ····· 27
[표 2-4] ····· 39
[표 3-1] ····· 49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이 글은 현대한국어 '-어 하-' 구성의 분포와 의미기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 하-'가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선행성분을 유형화하여 각 목록을 제시하고, 문장 내 환경에 따른 '-어 하-'의 통합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시적인 문법 구성으로서 '-어 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어 하-'에 대해서는 심리형용사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들이 주목되었다. 첫째, '-어 하-'가 통합한 (1ㄱ′, ㄴ′)은 형용사 (1ㄱ, ㄴ)과 현재시제 어미를 달리 취하며 명령·청유, 의도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 등, 동사의 활용 양상을 보인다.

(1) ㄱ. *무섭<u>는다</u>, *무섭<u>는</u>
ㄱ′. 무서워<u>한다</u>, 무서워하<u>는</u>
ㄴ. 이제 그만 세상이 {*?무서<u>워라</u>, *?무섭<u>자</u>, *?무서우<u>려고</u> 해.}
ㄴ′. 이제 그만 세상을 {무서워<u>해라</u>, 무서워하<u>자</u>, 무서워하<u>려고</u> 해.}.

둘째, '-어 하-' 통합형 구문과 심리형용사 구문은 주어 인칭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3인칭 주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심리형용사 (2ㄱ)은 어색하고 '-어 하-' 통합형 구문인 (2ㄴ)이 자연스럽다. 반면 1인칭 주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모두 자연스럽다.

(2) ㄱ. ?철수는 영희가 <u>무서워</u>.
ㄱ′. 나는 영희가 <u>무서워</u>.
ㄴ. 철수는 영희를 <u>무서워해</u>.
ㄴ′. 나는 영희를 <u>무서워해</u>.

지금까지 '-어 하-'의 연구는 이러한 통사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크게 '하-'의 범주를 설정하는 논의와 '-어 하-'의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의 두 흐름이 있었다. '하-'의 범주 논의는 '-어 하-'가 형용사를 타동사로 파생하는 사실에 주목한 형태론적 논의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어 하-'의 분포와 의미기능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어 하-' 통합형이 별도의 합성/파생어 휘인지, 구 구성인지 분류하는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2ㄴ, ㄴ′)의 부정을 '무섭지 않아 해'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어쩔 줄 몰라한다' 등 구 구성과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 하-' 구성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공시적인 문법 구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볼 것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무서워하다'는 별도의 어휘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선행성분 '무섭-'에 '-어 하-'가 결합하여 생성된 구성임에 집중하여 '무섭지 않아하다, 이해할 수 없어 하다' 등과 함께 '-어 하-' 통합형으로 포괄한다.

'-어 하-'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인 내면 상태가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된다거나, 주관적 내면이 타인이 알 수 있게 '객관화'됨을 표현한다고 논의되었다. 심리형용사가 아닌 선행성분을 갖는 '-어 하-'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설명된다. (3)은 감각형용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어 하-'와 결합한 것으로, 전형적인 심리형용사는 아니지만 주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심리형용사에 결합하는 '-어 하-'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ㄱ. 나는 괜찮은데, 철수가 유독 <u>더워해</u>. (cf. *?철수가 유독 더워.)
ㄴ. 햄스터가 이전 케이지를 너무 <u>좁아해</u>서 더 큰 케이지로 구매했어.
(cf. *?햄스터가 이전 케이지가 너무 좁아서 …)
ㄷ.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명은은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듯 통통 뛰며 <u>신나한</u>다. (cf. *?명은은 … 통통 뛰며 신난다)

그러나 실제 말뭉치의 '-어 하-' 구성 가운데는 심리형용사와의 결합 분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

(4) ㄱ. 손님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 처음인 사람은 당황해한다.
ㄱ′. 손님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 처음인 사람은 당황한다.
ㄴ. 그러나 마인호는 여전히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하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ㄷ. 한껏 칭찬하는 말에 수정이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다.

(4ㄱ)은 (3ㄷ)과 같은 심리표현 동사로 내면과 관련되지만, (4ㄱ′)처럼 3인칭 주어일 때 '-어 하-'가 통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점이 다르다. (4ㄴ)은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점에서 내면과 관련되지 않는다. (4ㄷ)은 주어의 성격, 태도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주어가 느끼는 내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밉다'와 같은 감정은 주어가 경험하는 내면 상태이지만, '겸손하다'는 주어의 성격에 대하여 평가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심리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하-'와는 다른 통합 양상을 보이고, 의미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므로 '-어 하-' 구성을 논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 하-' 구성이 선행성분의 특징에 따라 다른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 하-'의 선행성분으로 올 수 있는 어휘라도, 어떠한 통사적 환경에 놓였는가에 따라 '-어 하-' 통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1, 2)와 같이 '-어 하-'의 선행성분이 될 수 있는 형용사가 명령형이나 진행상 표현에 사용될 때, 혹은 3인칭 주어를 갖는 현재시제에서 사용될 때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용례에서의 '-어 하-' 통합 양상과 그에 관여하는 통사적 환경은 훨씬 더 다양하다. 예컨대 '힘들다'라는 한 어휘에 대해서도 명령이나 진행 표현, 3인칭 주어 문장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도 '-어 하-'가 반드시 요구되는 환경으로 (5)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어 하-'의 통합이 오히려 어색하게 되는 (6)의 환경, '-어 하-'의 통합이 자유롭고 의미 차이만을 유발하는 (7)의 환경이 확인된다. 특정한 통사적 환경이 '-어 하-'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어 하-' 통합의 요인을 각 통사적 환경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5) ㄱ. *{내/너/철수}가 코피를 흘리**며** 힘든데, 어떻게 보고만 있니?
ㄱ′. {내/너/철수}가 코피를 흘리**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니?

ㄱ″. {내/너/철수}가 힘든데, 어떻게 보고만 있니?

ㄴ. ??찬우가 힘들**어서** 내가 빵을 줬어. ??내가 힘들**어서** 찬우가 빵을 줬어.

ㄴ′. 찬우가 힘들어**해서** 내가 빵을 줬어. 내가 힘들어**해서** 찬우가 빵을 줬어.

(6) ㄱ. 나는 힘드**니까** 이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물도 났다.

ㄱ′. ??나는 힘들어하**니까** 이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물도 났다.

ㄴ. 민우는 더 이상 참기 힘들**도록** 달렸다.

ㄴ′. ??민우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하**도록** 달렸다.

(7) ㄱ. {내/네/영우}가 힘든 이유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른다.

ㄱ′. {내/네/영우}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른다.

ㄴ. 나연이는 {내/네/영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다.

ㄴ′. 나연이는 {내/네/영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른다.

ㄷ. 나는 원래부터 운동이 힘들어서 이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물도 났다.

ㄷ′. 나는 원래부터 운동을 힘들어해서 이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물도 났다.

(5)에서 동시적 연결어미 '-며'에 의해 연결되거나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이유·원인절에 오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어 하-'가 통합해야 한다. 반면 (6)처럼 후행절과 같은 주어를 갖는 '-니까'절, '-도록'절과 같은 환경에서는 '-어 하-'가 통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7)에서는 내포절 및 후행절과 같은 주어를 갖는 '-어서'절의 경우 '-어 하-'가 통합하거나 통합하지 않는 것 모두 자연스럽다. 이 경우 의미 차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어 하-'의 통합 양상은 '-어 하-'의 선행성분 및 '-어 하-'가 놓인 통사적 환경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간 '-어 하-'에 대한 연구는 특정 분포만을 중심으로 이뤄져 와 '-어 하-'의 전반적인 통합 양상 및 기능이 정리되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본고는 '-어 하-'가 분포에 따라 여러 의항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말뭉치에서 '-어 하-' 통합형이 사용된 예문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선행성분 목록과 문장 내 분포를 확인하였다.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중 구어 말뭉치[1]와 문

1) 구어 말뭉치(버전 1.1)는 공적 독백 2,490건, 공적 대화 19,104건, 준구어-대본 4,102건(드라마 4,102회 분량)의 분량에 해당하는 말뭉치이다.

어 말뭉치[2]를 활용하였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표면상 용언과 '-어 하-' 통합으로 나타나더라도 본고의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첫째, 대동사 '하다'를 통해 종결어미 '-어'로 종결된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8) 덕인, [은수가 제보한 건 아니구나.. 그럼 됐어] 하는 얼굴로 일어난다.

(8)에서 대괄호로 묶인 문장은 맥락상 '덕인'의 생각을 따옴표 없이 직접 인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어 하-'가 하나의 서술어 단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8)의 인용 구성은 '라고'와 같은 인용 조사에 의해 분리되기 쉬우므로,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어 하-' 구성에서 후행 요소인 '하-'가 명확하게 본용언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9) ㄱ. 결혼이야 강호나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ㄴ. 내가 없는 말 만들어(서) 했어요?
ㄷ. 퇴근도 서둘러(서) 하셨대요.

(9)는 시간적 선후관계, 수단·방법 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가 본용언 '하-'에 연결된 경우이다. 각각 '알아서 (결혼을) 하'고, '만들어서 (말을) 하'고, '서둘러서 (퇴근을) 하'였다고 해석되므로 본용언으로서의 '하-'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을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구어 말뭉치에서 1만 2,361개 문장과 문어 말뭉치에서 18만 4,049개의 문장, 도합 19만 6,610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어 하-'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2) 문어말뭉치(버전 1.2)는 책, 잡지, 보고서 등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저작물 10,045종의 문어 원시 말뭉치를 담고 있는 말뭉치이다.

1.2. 선행연구

현대국어의 '-어 하-'를 다룬 선행연구는 해당 구성의 문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논의와 의미를 다룬 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2.1. '-어 하-'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어 하-' 구성의 지위는 후행 요소인 '하-'의 범주를 설정하려는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서정수(1975)는 '좋아하다'의 '하-'를 통사론적 층위의 대동사로 파악하여 선행어의 수식을 받는 복문 구조로 제시하였다. 반면 김완진(1973), 이익섭(1978), 김흥수(1993), 김세중(1994), 이광호(1997)는 '-어 하-' 결합 구성을 파생형성법에서 설명하여 '하-'를 형태론적 층위의 요소로 이해하였다. 형용사의 '-어' 활용형에 '하-'가 결합한 구성은, 원형용사와 격틀이 다르며, 다른 문장성분의 개입이나 대용어 등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형태론적 구성을 이룬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보조사에 의해 예외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의미 측면에서 상(aspect) 의미를 더한다는 점에서 '하-'는 보조용언과 유사한 통사적 성격이 있기도 하다. 이에 황병순(1992)은 '-어 하-' 결합 구성을 '복합동사'로 제시하며 통사적 성격과 형태적 성격이 모두 있다고 하였다. Men Sokkeang·김양진(2017)도 '하-'를 기본적으로 보조용언과 비교하되, 더 긴밀한 결합을 이루므로 형태부, 통사부의 중간적 요소인 '접어(clitics)' 개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하-'를 형태·통사적 층위의 요소로 본 입장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어 하-' 구성을 일원적으로 형태적/통사적/형태·통사적 단위로 파악했으나, 사용 빈도나 선행 어간 등에 따라 결합 구성의 범주를 다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논의도 있었다. 이선웅(1995), 장경준(1999)은 기본적으로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되, 고빈도 어형은 한 어휘 단위로 재구조화된다고 보았다. 이호승(2009)은 형용사와 '-어 하-' 결합은 합성동사로, '-어 하-' 합성동사에 다시 '-어 하-'가 결합한 경우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파악하였다. 최정진(2005) 또한 선행 어간에 따라 '-어 하-' 결합

구성이 합성동사, 파생동사, 혹은 통사적 구성으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하-'의 범주는 기존의 형태론, 통사론 차원에서 설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어 하-'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 의미 단위로서 기능하는 '구성(construction)'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이는 공시적 문법 체계 내 '-어 하-'의 의미기능을 직접적인 논의 대상으로 다룰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어 하-'를 하나의 문법 구성으로 파악한 최정진(2005)의 논의는, '-어 하-'의 사용 동인을 전반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이 글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글에서는 '-어 하-'가 합성·파생에 참여하는지,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지는 깊이 다루지 않고, 최정진(2005)의 관점을 수용하여 '-어 하-'를 하나의 공시적 문법 요소로서 파악할 것임을 밝혀둔다.

1.2.2. '-어 하-'의 의미에 대한 논의

한편 '-어 하-'의 의미는 70년대 형용사가 쓰인 문장과 '-어 하-' 통합형이 쓰인 문장 간 동의성을 쟁점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Cook(1968), Lee(1970) 등은 동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 하-'의 동사화 기능에 집중하였으나[4], Yang(1972)에 의해 두 문장이 여러 통사적 차

---

3) 이는 '구성 문법(Construction Grammar)'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구문 문법'으로도 번역되는데, 본고에서는 최정진(2005)의 번역을 따라 '구성'으로 기술할 것이다. 최정진(2005:127)은 Croft(2001:14~29)의 '구성(construction)' 개념에 대하여 '특정한 의미 혹은 개념과 이에 대응하는 통사단위가 상징관계로 묶여있는 복합체'로 소개하며, 형태론이나 통사론만으로는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어 하-'와 같은 단위를 기술하는 데 고려해볼 만하다고 하였다. '구성'은 단어, 형태소와 같은 형태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고정적 언어표현'으로서 단어 연쇄도 구성의 자리에 올 수 있다. 즉, 형태·통사적 속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언어 단위도 포함될 수 있다.

4) Cook(1968), Lee(1970) 등은 경험주역, 대상역을 갖는 심리형용사 구문과, 그에 '-어 하-'가 통합한 '-어하다' 동사 구문의 관계를 동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변형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두 구문 중 어떤 구문이 기저구조인지에 집중한 논의이다. Cook(1968)은 '그립게 하다'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워하게 하다'는 가능한 것을 들어 사동 변형이 가능한 '-어 하다' 구문이 기저구조인 것으로 보았다. Lee(1970)는 '-어 하다' 구문은 '하-'가 상위의 문장(이행문)으로 해석되고 형용사 구문이 기저에 있는 구조로 파악하여 Cook(1968)과 다른 견해를 보인다. Cook(1968)은 '*그립게 하다'를 비문으로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말뭉치에서 18건 발견된다. '차갑게 하다, 뜨겁게 하다' 등 '-어 하-'가 붙을 수 있는 다른 형용사에 사동 변형이 가능한 점에서도 Cook(1968)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본고는 구문의

이를 보이므로 동의 관계로 볼 수 없음이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의 연구들은 대체로 의미 측면의 차이에 주목하여 구체적 의미기능이 논의되었다.

‘-어 하-’의 구체적인 의미기능은 선행성분의 분포적 제약과 ‘-어 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논의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 하-’의 선행성분으로 심리형용사 부류를 제시하며 그 특징과 관련한 의미기능을 논의하였다. 이익섭(1978), Kim(1990), 김흥수(1993), 김세중(1994), 장경준(1998) 등은 동사만이 올 수 있는 환경에 쓰이려면 ‘-어 하-’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능동성, 행동성, 동작성’ 등의 의미기능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정민(1994), 이광호(1997), 유현경(1998, 2017, 2018), 황병순(2000) 등은 심리형용사의 인칭 제약[5]이 ‘-어 하-’ 결합형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됨에 주목하여, ‘-어 하-’는 제3자의 주관적 내면 상태를 대신 서술할 때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내면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고도 보았다. 이들 논의에서 ‘-어 하-’는 대부분 3인칭 주어와 어울린다는 전제를 두게 된다. 이러한 인칭 분포에 주목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증거성 혹은 시점과 관련짓기도 하였다.[6]

이처럼 심리형용사와의 결합 구성에 대하여 의미기능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각 연구에서 주목한 통사적 특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어휘라도 어떤 통사적 환경에 놓이는가에 따라 ‘-어 하-’의 의미기능이 조금씩 달리 기술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심리형용사와의 결합 구성이 보이는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 집중함으로써 ‘-어 하-’의 의미기능을 명료하게 보일 수는 있었으나, 제시한 내용을 실제 나타난 사용 양상 모두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예컨대 ‘-어 하-’ 구성 가운데는 1인칭 주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구성이 말뭉치에서 발견되지만, 앞선 연구들에서 이들 구성은 주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 용례를 통해 ‘-어 하-’ 결합 구성의 통사적 환경이 더 풍부히 다뤄진다면, 의미기

기저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어 하-’ 구성 자체의 사용 양상 및 의미기능에 초점을 두므로, 기저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이 이상의 논의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5) 평서문 현재 시제에서 심리형용사는 1인칭 화자 주어일 때 자연스럽고, 3인칭 주어는 ‘-어 하-’가 결합해야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6) 이정민(2016)은 정보의 출처가 본인의 직접적 경험인 것과 제3자의 내면에 대한 간접적 경험인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어 하-’를 증거성 표지로 보았다. Kwon, I. S.(2014)는 ‘-어 하-’를 시점 이동자(viewpoint shifter)라고 하며 서술의 시점이 제3자 경험주가 아닌, 화자의 것임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능 또한 추가되거나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선행성분으로 심리형용사 외 다른 요소들이 올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구체적 목록을 제시한 연구로 김세중(1994), 장경준(1998), 정연주(2010), 오미나(2013)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어 하-' 의미기능은 대체로 심리형용사와의 결합에서 살핀 의미기능을 기준으로 설명되었다. 김세중(1994), 오미나(2013)는 선행성분으로 올 수 있는 일부 동사, 구 구성은 심리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심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주어 심리를 드러내는 기제로 설명하였다. 장경준(1998)은 15세기 '-어 ᄒᆞ-' 구성과 현대의 '-어 하-' 구성의 통합 용례를 비교하였는데, 두 시기 모두 선행요소가 동작성이 낮다는 공통점을 들며, '-어 하-' 결합이 동작성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연주(2010)는 선행성분에 올 수 있는 형용사의 의미유형 분포에 주목하였다. 심리형용사를 포함한 대다수 선행성분이 주관형용사에 해당하지만, '겸손하다'와 같은 객관형용사도 일부 발견됨을 보였다.[7] 이는 주관형용사에 결합한 '-어 하-' 구성과 일부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어떤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또 이 논의에서는 심리 의미가 아닌 형용사의 결합을 보였는데, 이에 착안하여 동사, 구 구성에서도 비-심리 의미를 갖지만 '-어 하-'와 결합하는 부류를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 하-'의 다양한 선행성분을 유형화하는 것은 '-어 하-' 기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범주 요소의 다양함과 형용사 의미 부류의 다양함이 각각 지적되었는데, 이들을 모두 아울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최근의 말뭉치에서도 실제로 확장된 분포가 발견된다면, 기존 심리형용사 결합 분포에서의 '-어 하-' 의미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7)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 분류 체계는 유현경(1998)의 형용사 분류체계를 따랐다고 한다. 주관형용사는 경험주의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반면 객관형용사는 대상의 속성·성질을 나타낸다.

1.3. 논의의 구성

이 글은 '-어 하-' 구성의 통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그 의항을 정리하는 데 주된 목표가 있다. 따라서 그간 논의된 여러 의미기능을 정리하고, 실제 용례에 설명을 적용해보는 논의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언어구성이 여러 의항을 보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어 하-' 구성의 기능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살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어 하-' 구성의 특징과 핵심적인 기능을 살펴본 뒤, 그것이 '-어 하-'가 통합하는 모든 구성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검토한다. 만일 선행 표현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능이 핵심적으로 부각되었다면, '-어 하-'가 지닌 용법 중 어떠한 점이 세부적인 기능을 허용하게 도왔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 4장에서는 실제 말뭉치에서 드러난 '-어 하-' 구성의 구체적인 통합 양상과 요인을 살필 것이다. 먼저 3장에서 '-어 하-'의 선행성분으로 오는 요소들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목록 외 추가할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목록이 보이는 의미적인 특징을 유형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4장에서는 유형별 '-어 하-'의 통합 요인을 살펴보고, 유형 간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요인이 등장하게 된 원인도 살핀다.

5장에서는 '-어 하-' 구성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어 하-' 구성은 그동안 주어의 인칭과 관련하여 제약 현상이 주목되었으나, 주어의 인칭과 무관하게 '-어 하-'가 필수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통사적 환경과, 통합이 저지되는 통사적 환경, 그리고 '-어 하-'의 통합 여부가 자유로운 통사적 환경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통사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환경들의 어떠한 특성이 '-어 하-' 구성의 통합 양상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논의의 미진한 점들을 밝히며 마무리할 것이다.

2. ‘-어 하-’ 구성의 의미기능

이 장에서는 ‘-어 하-’ 구성의 기능으로 그간 제시된 내용을 살핀다. ‘-어 하-’의 의미기능은 어떤 분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각 논의에서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었다. 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어 하-’ 구성은 선·후행 요소의 특징과 같은 구체적인 분포 환경에 따라, 복수의 의미기능에 근거한 설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어 하-’를 다룬 연구는 주로 선행성분이 ‘3인칭 주어를 갖는 심리형용사’인 경우를 대상으로 의미기능이 제시되었다. 심리형용사의 상적 특성 변화에 주목한 ‘동사화’ 기능, 심리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한 ‘주어 인칭 제약의 완화’ 기능 등이 언급되었다. 또 ‘자기조응성(egophoricity)’, ‘증거성(evidentiality)’ 등 인접한 문법 범주와의 관련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각 기능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어 하-’의 선행성분이 ‘3인칭 주어의 심리형용사’가 아닌 경우를 다룬 논의도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2.1. 동사화와 관련된 의미기능

‘-어 하-’는 형용사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동사화 기능이 있는 형식으로 언급되었다. 예컨대 ‘무서워하-’는 ‘무섭-’과 달리 현재형 어미 ‘-ㄴ다’, ‘-는’을 취하여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형태적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이는 ‘-어 하-’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내용이나, 의미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연구에서 다르게 파악되었다.

동사화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첫째, ‘-어 하-’의 어떤 의미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행위,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만드는가? 둘째, ‘-어 하-’ 통합형이 나타내는 행위,

움직임의 의미가 일반적인 동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셋째,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부류에 결합하는 '-어 하-' 구성의 설명은, 동사화 기능을 언급한 연구들에서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동사화 기능을 언급한 논의는 크게 '능동성'을 언급한 연구, '외적 양상·행태적 표출'을 언급한 연구, '동작성'을 언급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각 논의와 세부 쟁점을 소개하겠다.

2.1.1. 능동성

형용사와 구별되는 '-어 하-' 동사의 의미를 '능동성'으로 파악한 연구로는 Yang(1972), 이익섭(1978), Kim(1990)이 있다. 이 논의는 '-어 하-'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타동 구문인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Yang(1972)은 '-어 하-' 구성을 심리·감각형용사에 붙어 '복합동사를 만드는 구성'이라고 함으로써 동사화 기능을 언급하였다.[8] '-어 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능동성'이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용사와 '-어 하-' 동사가 동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근거 가운데 '능동성'에 따른 의미 차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9]

첫째, 원 형용사 구문에서는 경험주(Experiencer) 의미역이던 주어가 '-어 하-' 동사 구문에서는 행위주(Agent) 의미역을 부여받는다는 차이를 강조하였다. (1ㄱ, ㄴ)의 주격 '내가'는 여격 '나에게'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1ㄱ′, ㄴ′)의 주격 '내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둔다. 이를 반영하여 심리·감각 형용사 구문과 '-어 하-' 동사 구문의 구체적 의미 차이도 다

8) 심리·감각 형용사는 Yang(1972)에서 '자기주관 술어(Verbs of self-judgement)'라는 용어로 기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2.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한편 Yang(1972)에서 '-어 하-' 동사를 복합동사로 제시한 것은 원 형용사와 다른 의미를 갖는 별도의 어휘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형용사 구문과 '-어 하-' 동사 구문이 통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동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구별되는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의 의미역. 둘째, 주어의 인칭 분포. 셋째, '-겠-'이 사용될 때 그 의미. 넷째, 명령형 표현 가능 여부. 다섯째, '-더-'가 사용될 때 주어 인칭 분포. 본문에서는 첫째, 셋째, 넷째가 '능동성' 의미와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인칭과 관련된 둘째, 다섯째 근거는 2.2., 2.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9) Yang(1972:167)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ubjects in (14a, b)[이 글의 (1ㄱ, ㄴ)] have the role structure of Experiencer Case while the subjects in (15a, b)[이 글의 (1ㄱ′, ㄴ′)] have the role structure of Agent Case. I attempted to suggest this difference in the English translations.'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ㄱ. 내가 메리가 좋다. [Mary is likable to me.]
ㄱ′. 내가 메리를 좋아를 한다. [I like Mary.]
ㄴ. 내가 그 아이가 예쁘다. [The child is cute to me.]
ㄴ′. 내가 그 아이를 예뻐를 한다. [I love the child.] (Yang 1972:167-8)

(1)의 각 문장에서 대괄호 속 영어 문장은 Yang(1972)에서 제시한 번역이다. (1ㄱ, ㄴ)에 비해 (1ㄱ′, ㄴ′)이 더 능동적으로 호감의 감정을 느끼는 의미임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가 형용사 구문에 사용되었을 때는 '추측(conjecture)'의 의미만을 나타내지만, '-어 하-' 동사 구문에서는 '추측' 혹은 '의지(volition)'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2ㄱ)은 추측의 '-겠-'으로 해석되지만, (2ㄴ)은 (i) 추측의 '-겠-'으로도, (ii) 의지의 '-겠-'으로도 해석된다. 의지는 능동성과 밀접한 의미관계에 있다.

(2) ㄱ. 내가 메리가 좋겠다. [It seems that Mary is likable to me.]
ㄴ. 내가 메리를 좋아를 하겠다. [(i) I may come to love Mary.
(ii) I will love Mary.]

셋째, 명령형이 '-어 하-' 동사만 가능한 점을 들기도 하였다. 명령형은 청자가 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이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어 하-' 동사가 형용사와 달리 능동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ㄱ. 존아, 그 아이를 예뻐해라. [John, love the child.]
ㄴ. *존아, 그 아이가 예뻐라. [John, love the child.]

이익섭(1978)은 '-어 하-' 동사가 형용사에서 '동사 형식으로 파생'되었다고 하여 '-어 하-'의 동사화 기능을 언급하였다. 형용사 구문과 '-어 하-' 동사 구문의 관계는 피동문과 능동문의 관계로 제시하였다.

(4) 마음껏 {*좋다, 좋아하다}

(5) ㄱ. 나{는/에게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

ㄱ′. 나는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 한다. (이익섭 1978:65)

ㄴ. 나{는/에게는} 종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ㄴ′. 나는 종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이익섭 1978:66)

(6) ㄱ. 아저씨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ㄱ′. *아저씨가 무섭**지 말아라**.

ㄴ. 종소리를 잘 들**어라**.

ㄴ′. *종소리가 잘 들리**어라**. (이익섭 1978:69)

(4)는 형용사와 달리 '-어 하-' 동사가 '마음껏'과 같은 부사와도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5)는 '-어 하-' 동사의 격틀이 타동사 '듣다'의 격틀과 같음을 보여준다. (6)은 '-어 하-' 동사, 타동사에서만 명령형이 가능하고, 형용사나 타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어 하-'가 붙기 전 형용사 구문은 피동성이 있고, '-어 하-' 동사 구문은 능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10] 이때의 '피동성'과 '능동성'은 의미론적 피동, 능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문의 통사적 특성과 능동문의 통사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 하-' 동사 구문이 형용사에 비하여 '능동문의 특성'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Kim(1990:63-5)은 '-어 하-' 동사의 주어 의미역을 '능동적 경험주(active Experiencer)'로 제시하였다. 심리형용사의 주어(감정 주체) 의미역은 '수동적 경험주(passive Experiencer)'로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파악한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 형용사와 비교하여 '능동성'이 드러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이익섭(1978)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능동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성'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직접적으로 '동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11], '-어 하-'의 통합으로 [+상태성, -행위

10) 이익섭(1978)에서는 '-어 하-'의 선행성분으로 '피동성 형용사'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피동성이란 '의미적으로 피동의 뜻이 있다기보다, 그것이 타동사에서부터 만들어지고 타동사의 성질을 버리고 새로이 어떤 성질을 얻는 절차와 내용이, 마치 피동사가 능동사로부터 만들어질 때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제시하였다(이익섭 1978:71). 예시로 든 형용사들은 대체로 경험주 의미역, 대상 의미역을 논항으로 갖는 심리형용사에 해당했다. 그러나 심리형용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되, 정확한 구분은 보류하였다.

성]이던 서술어가 [−상태성, +행위성]의 자질로 변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행위성] 자질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전형적인 행위 동사(action verbs)와 공유하는 특성을 일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7) ㄱ.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라**! cf. *민주주의의 죽음이 슬프**라**!
ㄴ. 그의 성공을 기뻐하**자**! cf. *그의 성공이 기쁘**자**!
ㄷ.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cf. *그 사람이 좋으**려고** 노력하였으나….
ㄹ. 그가 내게 유미를 미워하**도록** 종용하였다.
cf. *그가 나에게 유미가 밉**도록** 종용하였다.
(Kim, Y. J. 1990: 73−4의 예문을 본고에서 밑줄, 볼드체 표시를 추가함)

'−어 하−' 동사는 행위 동사처럼 명령·청유형, '−려고', '−도록' 등의 어미에 내포될 수 있는 반면에 원 형용사 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의도성(volition)이 요구되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하−' 동사는 행위성 자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Yang(1972)과 유사하다.

다만 Yang(1972)에서 '−어 하−'의 의미를 '경험주가 어떤 감정에 수동적으로 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면[12], Kim(1990:74)에서는 '경험주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일련의 행동들을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차이가 있다.[13]

---

11) 이 논의는 기술의 초점이 품사 전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 표지 실현 변화에 있다.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로, 논항의 외재화로 격 표지 변화를 설명하였다. 즉, '−어 하−' 통합은 내재논항이던 것을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theta−role)이 할당되는 외재논항으로 만드는 형태론적 규칙이다(Kim 1990:78−9). 이는 외재논항을 갖는 동사만이 대격(accusative Case)을 할당한다고 한 Burzio(1986)의 일반화(Burzio's generation)에 근거한다(Kim 1990:61−2). Kim(1990)에서 제시하는 '−어 하−' 동사는 모두 '을/를' 목적어를 갖는 경우로,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는 원 형용사에서 '이/가'로 표지되었다. 즉, '−어 하−'가 통합하면서 대격을 할당받게 된 것으로 보아 논항이 외재화된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어 하−'의 격표지 변화에 대한 생성문법 논의는 본고의 주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 각주에서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12) 본문의 예문 (1)에서 확인되듯이 Yang(1972:167)은 '좋다'와 '좋아하다'의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였다.
ㄱ. 내가 메리가 좋다. [Mary is likable to me.]
ㄴ. 내가 메리를 좋아를 한다. [I like Mary.]

13) '−어 하−' 동사와 달리 심리형용사는 경험주가 내적인 감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경험주의 감정 상태는 내적인 것으로, 행동 신호들 없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하였다(Kim 1990:74).

‘-어 하-’ 동사의 주체를 ‘능동적 경험주’로 제시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어 하-’는 경험주가 어떠한 감정을 느낄 때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 신호들을 가리키게 하며, 따라서 그 주체는 능동성을 가질 수 있는 ‘행위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경험주’이기도 하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능동성’을 언급한 논의들은 모두 형용사와 결합하여 타동사 구문을 이루는 ‘-어 하-’를 대상으로, 명령형, 의도 표현 등 의지와 관련된 표현에 올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어 하-’의 모든 구성에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인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 하-’는 ‘외로워하다, 추워하다’와 같이 자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행성분 또한 형용사 외에 동사, 구 구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추워하다’가 ‘춥다’에 비해 능동성이 드러난다고 하려면 우선은 각각의 문장이 모든 경우에 정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1인칭 주어에 대해 ‘추워하다’, ‘춥다’를 각각 사용할 경우 ‘추워하다’는 어색하다. ‘나는 추워’가 자연스럽고 ‘나는 추워해’는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좋아하다’와 다르다는 점에서 ‘-어 하-’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1인칭 주어에 대하여 현재 시제에서 사용된 ‘추워하다’는, 형용사와 비교하여 능동성의 의미가 확인된다는 설명 대신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2.2. 참조).

한편 ‘능동성’이 ‘-어 하-’ 자체의 의미기능인지 확신하기 어렵기도 하다. ‘-어 하-’가 사용된 문장에서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것은 ‘-려고’, ‘-도록’의 의미에 의한 것이지 ‘-어 하-’가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컨대 ‘나도 모르게 철수를 미워하고 있었다’의 ‘미워하-’는 주어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능동성’은 일부 분포에만 한정된 의미이다.

2.1.2. 외적 양상·행태적 표출

김세중(1994), 최정진(2005) 등은 ‘-어 하-’ 동사의 의미를 각각 ‘외적 양상’, ‘행태적 표출’로 보았다. 동사의 의미적 특성인 ‘동작, 움직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동사화 기능에 주목한 논의이다.

2.1.1.의 '능동성'이 제한된 분포에서 설명되었다면, 이들은 여러 분포를 논의 대상에 포함하여, 더 보편적인 의미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용사에 결합하여 타동사 구문을 이루는 '-어 하-' 결합 외에도, 동사와의 결합이나 자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결합 등도 지적하여 논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간단히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논의	심리·감각형용사 외 확장된 선행성분 목록	
	분류	제시한 항목
김세중(1994:112)	자동사	신나다(신나하다), 애타다(애타하다), 감격하다(감격해하다), 약오르다(약올라하다), 못 견디다(못 견뎌하다)
	속성 형용사	길다(길어하다), 비싸다(비싸하다)[14], …
최정진(2005:119)	타동사	꺼리다(꺼려하다), 신나다(신나하다), …
	관용표현	못 잊다(못 잊어하다), 몸달다(몸달아하다), …
	부정표현	[부정표현이 줄어든 말]: 같잖다(같잖아하다), 언짢다(언짢아하다), 개운찮다(개운찮아하다), …

[표 2-1] 각 논의에서 확장된 '-어 하-'의 선행성분 목록

김세중(1994)은 '-어 하-'는 '타인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외적 행동 양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선행성분은 주로 심리형용사지만 [표2-1]처럼 자동사, 속성형용사에도 붙어 '주어의 내적, 심리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기제(김세중 1994:86)'로 작용한다. 요컨대 '(주어가) 느끼는 상태를 타인이 알 수 있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의미를 기술하였다.[15]

'타인의 인지'를 언급한 것은 2.1.1.의 Kim(1990)과 유사하나, '행동 양상'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본 점이 다르다.[16] 행위의 주체가 의지를

14) 다음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김세중 1994:85).
ㄱ. 바지를 길어해서 잘라 주었다. ㄴ. 백화점의 옷값을 비싸했다.
이때 '-어 하-'의 의미는 "'길다', '비싸다'고 판단함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15) 자동사, 속성형용사가 '-어 하-'와 통합한 경우, 주어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일종의 심리형용사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선행성분의 의미적 특징과 관련한 내용은 2.2.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6) 김세중(1994)에서는 Kim(1990)의 논의에서 'agent', 'agentivity'을 각각 '행동주', '행동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역어 '행위주, 행위

지니는 전형적인 행위 동사와 달리, '-어 하-' 동사는 주어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한 행위성을 지닌다고 구별한 것이다. 그 근거로 다음의 예문들을 제시하였다.

(8) ㄱ.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라!
ㄴ. ?그의 성공을 기뻐하자!
ㄷ.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했으나...
ㄹ. ?그가 나에게 유미를 미워하도록 종용하였다. (김세중 1994:73)
(9) ㄱ. 그 사람을 좋아해라. (그 사람을 좋아해 봐.)
ㄴ. ?그 사람을 미워해라.
ㄷ. ?나는 {얼른/빨리/실컷} 등산을 좋아했다. (김세중 1994:88)

(8)은 Kim(1990:74)의 예문에 대해 김세중(1994:73)이 문법성을 평가한 것으로, 이처럼 주어의 의지가 전제되는 여타 구문들에 '-어 하-' 동사가 오는 경우는 대체로 부자연스럽다고 하였다.[17] 또 (9ㄱ, ㄴ)을 들어 '-어 하-' 동사가 '부정적 의미이면서 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말'이면 명령형이 불가하다는 화용론적 제약을 주장하였다(김세중 1994:88). 마지막으로 (9ㄷ)처럼 '-어 하-' 동사는 행위의 완급을 조절하는 부사와 공기하기 어려움을 들어, '-어 하-'가 항상 행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 하-'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라고 보았다. 이는 타인에게 인지될 수 있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그러나 이광호(1997:98)는 (10)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적 감정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어 하-'의 사용이 반드시 타인에게 인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 나는 경희를 좋아<u>했지만</u>(하지만) 아무도 <u>눈치채지 못했다</u>(모른다).

(10)과 관련하여 최정진(2005:111)은 '-어 하-'의 의미가 중화되는 환

성'을 사용하였고, 기술의 일관성을 위해 김세중(1994)의 논의를 소개할 때도 '행동주, 행동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행위주, 행위성'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17) 주어의 의지 및 자발적 행위와 관련된 구문으로 '-고 싶다', '-ㄹ 준비가 되어 있다', '-ㄹ 의향이 있다', '-ㄹ 능력이 있다', '-어 보다', '-ㄴ 것을 후회하다' 구문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예문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어 하-'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행태적 표출'로 제시하고, '-어 하-'의 선행성분 'X'의 의미가 일련의 행동양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어 하-'가 통합한다고 하였다. 가령, '나른해하다'는 '심리적으로 나른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품, 기지개 등의 일련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다(최정진 2005:112). 'X'의 의미가 행태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형용사를 비롯하여 동사, 구 구성 등 다양한 단위가 선행성분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때 '표출'이라는 기술은 주어의 의지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세중(1994)의 '외적 양상'과 유사하다.

단, (10, 11)과 같이 선행성분 'X'가 1인칭 화자 주어의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어 하-'의 '행태적 표출'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11ㄴ)은 행동양태가 드러난다는 의미보다 평소 화자의 심리상태를 말하는 (11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순간적인 상태를 뜻하는 (12ㄱ) '나른하-'는, (12ㄴ) '나른해하-'와 교체될 수 없다.[18] (13)와 같이 행동양태가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만 '나른해하-'가 쓰인다.

(11) ㄱ. 나는 오늘같은 날씨가 정말 좋다.
ㄴ. 나는 오늘같은 날씨를 정말 <u>좋아한</u>다.
ㄷ. 예전부터 나는 널 <u>좋아하</u>고 있었어. (최정진 2005:111)

(12) ㄱ. 나는 몸이 나른하다.
ㄴ. 나는 몸{*이/*을} 나른해한다. (최정진 2005:116)

(13) 내가 너무 <u>나른해하</u>니까 과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더라. (최정진 2005:115)

이러한 지적은 '-어 하-' 구성의 의미를 선행성분 및 주어 인칭 등 세부

18)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는 시간관여성이 없는 무계(atelic)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순간적/지속적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 시작하다'와 같은 기동상 구성이나 '-어 오다'와 같은 진행성 지속상(김성화 1990) 등이 가능한 부류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 세계의 상태성은 시간 내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원영(2008:62)은 형용사를 통한 상태의 기술은, 현실 세계의 상태가 지니는 '시간적 폭 중 어떤 한 지점에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 면에서는 시간관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최정진(2005)이 논의한 '순간적/지속적 상태'도 모순적인 기술은 아닐 것이다.

분포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다만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최정진(2005)은 어휘 자체가 지속적 상태를 뜻하는 어휘, 순간적 상태를 뜻하는 어휘로 나뉜다고 보았으나, 이는 어휘의 자체의 특성이기보다는 맥락의 영향이 큰 듯하다. (11ㄱ)의 '좋다'는 맥락에 따라 평소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순간적인 감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 하-'가 붙은 (11ㄴ)은 두 가지 의미 중 전자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12)의 '나른하다'는 빈도부사나 조건문 등 반복상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사용될 때 지속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나는 자꾸만 {나른하다/나른해한다}', '나는 비만 오면 {나른한/나른해하는} 편이다'에서는 (11ㄱ, ㄴ)과 같은 교체 현상이 확인된다. 이때도 '-어 하-'가 결합하면 보다 지속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 하-'가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다.

둘째, 최정진(2005:115)은 (12)와 달리 (13)의 '나른해하-'가 '나른함'이 행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하며, 동작성이 더 가미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태적 표출'의 의미를 요구하는 통사적 환경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의 선·후행절은 인과관계에 있으며, [이유]절의 주어와 [결과]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러한 점이 '행태적 표출'의 의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 하-' 결합 구성의 상태성 정도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좋아하-'가 '좋-'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면, 행위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14) ㄱ. 나는 오늘같은 날씨가 좋다.
ㄴ. 나는 오늘같은 날씨를 좋아한다.
ㄷ. 예전부터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최정진 2005:111)

(15) ㄱ. ?나는 오늘같은 날씨를 좋아하고 있어.
ㄴ. ?나는 오늘같은 날씨를 좋아하도록 애썼다.

(14)는 형용사 '좋-'이 쓰인 구문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제시되었으므로 상태성이 높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정진(2005:111)은 (14ㄷ)에서 진행상 '-고 있-'에 내포되므로 '좋아하-'는 상태성이 낮고 동작성

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14ㄴ)과는 다른 맥락으로 느껴진다. (14ㄴ)의 표현에서 진행상 '-고 있-'을 추가해보면(15ㄱ) 자연스럽지 못하다. '-도록'과 같은 의지 표현(15ㄴ)도 어색하다. 즉, '좋아하-'가 상태성이 여전히 높은 쓰임도 존재하는 것이다.

맥락 외에 어휘별로도 '-어 하-' 통합의 상태성(반대로는 동작성) 정도가 다르게 확인될 수 있다. 유현경(2004:40)은 또 다른 진행상 표현 '-ㄴ 중이다'에 '무서워하-'가 사용되면 어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뭉치에서는 (17)과 같이 '기뻐하-, 재미있어 하-, 낯설어 하-' 등이 '-ㄴ 중이다'의 선행성분으로 오는 것이 발견된다. 유현경(2004)은 (16)을 근거로 '-어 하-' 동사를 형용사와 비슷한 상태동사로 보았으나, (17)은 상태성이 모든 '-어 하-' 구성에 균일하게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16) ㄱ. *나는 호랑이가 무서**운 중이다**.
ㄴ. *나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중이다**. (유현경 2004:40)

(17) ㄱ. 송강이 속으로 기뻐하**는 중**에 서녕은 말을 놓아 곧추 장청에게 달려든다.
ㄴ.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 재미있어하**는 중이**라는 거 내가 모를까 봐.
ㄷ. 그런 연제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렇게 싫거나 거부감이 안 드는 스스로에 대해 낯설어하**는 중이**었다.

요컨대 '-어 하-'의 의미기능으로 '외적 양상·행태적 표출'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이 부각되는 정도는 맥락에 따라 가변적임을 보여준다. 맥락에 따라 상태성과 유사하게 이해될 때, 의지 표현이나 진행상 표현에 사용되어 행위동사의 행위성과 유사하게 이해될 때, 혹은 의지는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외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이해될 때도 있다. '-어 하-' 구성의 성질 또한 문장이 쓰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1.3. 동작성

'-어 하-'가 결합한 구성이 형태적으로 동사의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장경준(1998)은 '동작성'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형용사, 동사, 구 구성을 나누지 않고 상태성과 동작성을 양극단에 놓고 정도성에

따라 이들을 유형화하였다. '-어 하-'의 선행성분은 가장 동작성이 높은 부류를 제외하고, 차위의 동작성 강도를 갖는(상태성을 어느 정도 갖는) 부류들(아래 표에서 형용사, 상태동사, 동작동사Ⅰ)이라는 공통점을 세웠다. '-어 하-'는 이들에 결합하여 동작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작성 정도	범주	판별 기준	해당 어형
가장 낮음	형용사	*-는다, *-고 있다, *-어라, *겉으로는	(8) 감격스럽다, 개운찮다, 거추장스럽다, 고맙다 …
매우 낮음	상태동사	-는다, *-고 있다, *-어라, *겉으로는	(9) 결리다, 꺼리다, 내키다, 마음상하다, 시리다 …
낮음	동작동사 Ⅰ	-는다, -고 있다, *-어라, *겉으로는	(10) 감격하다, 격분하다, 못 견디다, 당황하다 …
조금 높음	동작동사 Ⅱ	-는다, -고 있다, -어라, *겉으로는	(11) 느끼다, 믿다, 보다, 생각하다, 여기다, 알다 …
높음	행동동사	-는다, -고 있다, -어라, 겉으로는	(8, 9, 10)-어 하다[19]

[표 2-2] 동작성의 정도에 따른 심리용언 분류(장경준 1998:20)

장경준(1998:20)이 제시한 동작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형 시제 '-는다' 활용 가능성. 둘째, 진행상 '-고 있-'과의 공기 가능성. 셋째, 명령형 활용 가능성이다. 첫째, 둘째 기준은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 기준이다. 셋째 기준은 명령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동작에 대하여 가능하고, 이는 동작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세웠다고 한다. 명령형이 불가능한 '못 견디다, 못 잊다, 못 참다'는 (18ㄱ′)과 같이 '-어 하-' 통합이 가능하지만, 명령형이 가능한 '견뎌라, 잊어라, 참아라'는 (18ㄴ′)과 같이 '-어 하-' 통합이 어색하다.

(18) ㄱ. 영희야, 어떤 수모도 {*못 견뎌라/*못 잊어라/*못 참아라}.
ㄱ′. 영희는 어떤 수모도 {못 견뎌 한다/못 잊어 한다/못 참아 한다}.
ㄴ. 영희야, 어떤 수모도 {견뎌라/잊어라/참아라}.

19) 동작성이 낮은 부류들하고만 '-어 하-'가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표 2-2]에서 장경준(1998)의 '행동동사'는 전형적인 행위동사(action verbs)와는 다른 개념이다. [표2-2]는 심리용언을 세분화한 것으로, 행위 동사는 이미 배제되어 있다. 일반적인 행위 동사와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는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

ㄴ′. 영희는 어떤 수모도 {*견뎌 한다/*잊어 한다/*참아 한다}.

(장경준 1998:12-3)

세 기준은 순차적으로 만족되어 모든 기준이 만족되는 동작동사Ⅱ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 하-'와 통합이 가능하다. 장경준(1998)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어 하-' 동사 또한 모든 기준이 충족되므로 재차 '-어 하-'가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게 된다.[20]

한편 '겉으로는'과의 공기 가능성은 동작동사 Ⅱ부류와 '-어 하-' 동사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느끼다, 믿다' 등의 동작동사Ⅱ부류는 셋째 기준까지는 모두 충족하지만 외적인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의 작용을 가리키므로 부사어 '겉으로는'과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2.1.2.의 이광호(1997), 최정진(2005)에서 지적된 '좋아하다'와 같이 여전히 주관적인 내면 상태를 가리키는 '-어 하-' 동사도 존재한다. 장경준(1998)에서 '-어 하-'는 동작성이 높아 '겉으로는'과도 쓰일 수 있는 행동동사로 제시되지만, '겉으로는'과 공기할 수 없는 맥락에서 쓰인 '-어 하-' 동사도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8) ?나는 **겉으로는** 오늘같은 날씨를 좋아한다.

또 장경준(1998:20)의 기준에서는 동작성이 완전하게 충족되더라도 '-어 하-'가 통합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예컨대 '반기다, 즐기다, 감탄하다, 으쓱하다' 등은 '-는다', '-고 있다', '-어라' 모두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동작성이 높으나, (19)에서 '-어 하-'와의 통합이 확인된다. (20)은 '-어 하-' 동사에 다시 '-어 하-'가 붙는 경우이다.

(19) ㄱ. 실패를 {반겨라/반겨해라}. 이모님은 뜻밖의 방문에 반겨하였다.

ㄴ. 난 미역국을 별로 즐겨하지 않았다.

ㄷ. 학생들은 모두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고 감탄해 했다.

ㄹ. 그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를 으쓱해하는 성질이 있어.

(20) 아빠는 작은 소리에도 시끄러워해한다. (이선웅 1995:34)

---

20) 후술되겠지만 '-어 하-' 구성이 두 번 결합하는 용례도 발견되므로 장경준(1998)의 '동작성의 강화' 설명을 '-어 하-' 구성의 전체 의미기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19, 20)처럼 이미 동작성이 높은 부류에 '-어 하-'가 통합하는 것은 잉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경준(1998)의 '동작성의 강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왜 '-어 하-'를 요구하게 되는가를 묻는, 원론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2. 인칭 제약의 완화

'동사화'와 관련된 의미기능(2.1. 참조) 외에도, '-어 하-'는 선행성분으로 온 심리·감각형용사의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고 제시되었다(Yang 1972; Lee 1976; 김흥수 1993; 김세중 1994; 유현경 1998, 2017; Kwon 2014; 노은주 2018).

(21)	ㄱ. {**나**/?철수}는 **기뻐**.	{**나**/?철수}는 **추워**.
	ㄱ′. {**너**/?철수} 지금 **기뻐**?	{**너**/?철수} 지금 **추워**?
	ㄴ. {?나/**철수**}는 **기뻐해**.	{?나/**철수**}는 **추워해**.
	ㄴ′. {?너/**철수**} 지금 **기뻐해**?	{?너/**철수**} 지금 **추워해**?

예컨대 (21)처럼 평서문, 의문문에서 심리·감각형용사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 각각 1인칭, 2인칭 주어가 가장 자연스럽고, 3인칭 주어는 '-어 하-'가 통합한 형태일 때 자연스럽다.[21] 따라서 '-어 하-'는 3인칭 주어의 현재 심리·감각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문법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어 하-'의 의미기능은 대체로 '객관화'로 제시되었는데, 이때 무엇에 대한 객관화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먼저 인칭 제약을 보이는 어휘 부류와 그 특징을 살펴

21) 평서문에서 2인칭을 다루지 않은 것은, 2인칭 주어의 심리·감각 상태를 서술하는 발화 상황 자체가 화용론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청자의 내면 상태에 대해 화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상상하지 않고서는 매우 드물다. 예컨대 의사인 화자가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보고(2.2.1.), 이러한 제약 현상이 완화되는 조건과 '-어 하-' 구성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2.2.2.). 이를 바탕으로 '-어 하-'의 의미기능으로 제시된 '객관화'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로써 설명 가능한 '-어 하-' 구성의 범위를 검토한다.

2.2.1. 주관 술어와 인칭 제약

심리·감각형용사는 주어의 마음속 경험을 나타낸다. 이들은 별도의 맥락 없이는 경험 주체 외의 타인이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고, 객관적 판단도 불가능하므로 주관적인 성격이 있다(김영희 1973, 이광호 1997). 이에 따라 김영희(1973, 1988), 김흥수(1993), 김세중(1994), 유현경(1998), 목정수(2014) 등은 경험주 논항의 유무를 기준으로 주관 술어와 객관 술어를 구분하였다. 나타내는 의미가 심리·감각 등 주관적인 경험으로, 경험의 주체인 경험주가 요구되면 주관 술어[22], 대상의 성질·속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으로 경험주가 요구되지 않으면 객관 술어로 분류한 것이다.[23]

다만 주관 술어와 객관 술어의 어휘가 명확하게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 술어로서의 쓰임과 객관 술어로서의 쓰임을 모두 갖는 어휘도 존재하

---

22) '주관 술어'라는 용어 대신 다음의 여러 가지 용어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Yang(1972:159)의 '자기-판단의 동사(verbs of self-judgement)', 김영희(1973, 1984), 목정수(2014)의 '주관동사', 유현경(1998), 정연주(2010, 2011) 양정석(2015, 2017)의 '주관형용사', 유현경(2000, 2017)의 '주관성 용언', 이광호(1997)의 '주관적 상태동사', 허세문·임동식·박유경(2015)의 '화자지향 심리 술어', 허세문(2020)의 '주관 심리 술어', 이정민(2016)의 '개인 취향 술어(Predicates of Personal Taste)', 노은주(2018)의 '사적 술어(Private Predicates)' 등은 '주관 술어'를 유형화한 것이다.

23) 세부적인 분류는 조금씩 다르다. 김영희(1988)은 주관동사, 객관동사, 중성동사의 삼분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주관동사는 경험주 명사구가 요구되며, 화자 관련 기준만 존재하는 반면 객관동사는 경험주 명사구가 요구되지 않으며, 화자 외 대상 관련 기준도 존재한다. 중성동사는 경험주를 수의적으로 요구하여 중간적 부류로 제시했다. 유현경(1998)은 격틀에 따라 형용사를 세분하였는데, 가장 크게는 주어에 경험주가 할당되는 주관형용사와, 주어에 대상역 또는 처소역을 할당하는 객관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김세중(1994)은 경험주가 요구되어 그의 내면을 나타내는 심리형용사, 경험주가 요구되지 않고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형용사,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기술이면서도 경험주의 존재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준심리형용사로 나눴다. 준심리형용사의 경험주는 대상의 속성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이로, 김영희(1988)의 중성동사와 마찬가지로 중간 부류에 해당한다.

므로, 어떤 어휘가 주관 술어로 쓰였는지 객관 술어로 쓰였는지는 맥락에 따라 상정되는 경험주가, 특정한 경험주로 나타나는가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2) ㄱ. 나는 아기가 너무 예쁘다.
ㄴ. 얼굴과 외모로만 따진다면 세 자매 중에서 지혜가 가장 예쁘다.
(유현경 1998:137)

가령 '예쁘-'는 (22ㄱ)에서 특정한 경험주 '나'가 드러난다. 아기에 대해 화자가 갖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주관 술어로서의 쓰임이 드러난다. 반면 (22ㄴ)은 경험주가 드러나지 않고 대상 '지혜'의 속성을 나타내며, 객관 술어로서의 쓰임이 드러난다.[24]

주관 술어의 쓰임과 객관 술어의 쓰임 간 가장 큰 특징은 주어의 인칭 분포에서 확인된다. 주관 술어가 나타내는 심리·감각 등 주관적인 경험은 경험한 주체가 가장 잘 아는 정보이므로, 발생 시점에 제3자가 진술하는 것이 어색하다(김흥수 1993:133-9). 즉, 현재 경험주의 내면 상태는, 경험주 자신이 직접 화자로서 진술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 결과 현재시제로 나타낼 때 평서문은 1인칭 주어가, 의문문은 대답의 주체로 기대되는 2인칭 청자 주어가 선호된다.[25] 예컨대 (22ㄱ)에서 아기가 예쁘다고 느끼는 주체를 '지혜'로 나타내려면, '지혜는 아기가 너무 예쁘다', '지혜는 아기가 예뻐?'와 같은 형태는 어색하다.[26] 반면 객관 술어의 쓰임에서는 주관 술어와 달리 이러한 인칭 선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너는/지혜는 예뻐'가 모두 가능하여, '예쁘-'의 속성을 갖는 주어는 인칭에 제약이 없다.

San Roque et al.(2018:66-7)은 영어 말뭉치에서 'hungry', 'beautiful'의 주어 인칭 분포를 살폈을 때, 평서문에서 주어의 내면을 가리키는

24) 경험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나 '우리에게' 등의 일반적인 경험주를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느껴지는 심리 상태는 비록 그것이 주관적 경험이라도 보편적이므로, 객관적 속성으로 볼 수 있게 된다(유현경 1998:138).
25) 기술의 편의상 '1·2인칭 주어 분포'로 기술하겠다. 이는 평서문 1인칭, 의문문 2인칭을 의미한다.
26) 지혜의 내면에 대해 화자가 매우 잘 알아서 지혜 대신 단정적으로 내면을 서술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색하다. '지혜는 아기를 너무 예뻐한다' 혹은 '지혜는 아기가 너무 예쁘대'와 같은 다른 문법 요소를 취한 형태가 선호된다. 이는 2.2.2.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hungry’는 1인칭 주어가 선호되고, 주어의 외양을 가리키는 ‘beautiful’은 비-1인칭 주어가 선호되는 것을 보였다. 전자는 주관 술어, 후자는 객관 술어에 해당한다.

인칭	*be hungry*		*be beautiful*	
	평서문	의문문	평서문	의문문
1st	171	0	2	0
2nd	12	249	272	0
3rd	27	3	1160	6

[표 2-3] 영어 형용사 종류에 따른 주어 인칭 빈도(San Roque et al. 2018:66-7)

한국어, 일본어에서도 주관 술어의 주어로는 1·2인칭이 선호되는데, 만약 1·2인칭 분포에서 벗어날 경우(23, 24), 문장의 문법성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점에서 ‘주어 인칭 제약 현상’으로 보고되었다(김세중 1994, 이정민 1994, 2016, 이광호 1997, 유현경 1998, 2017, 박재희 2014, 2017, 허세문·임동식·박유경 2015, 노은주 2018, 허세문 2020, 박소영 2022).[27]

(23) ㄱ. (내가)/ #네가/ #철수가 외로워!
ㄴ. (내가)/ #네가/ #철수가 추워! (허세문·임동식·박유경 2015:83)[28]

(24) ㄱ. *{Watashi/*anata/*kare}* *wa* *sabishii* *desu*
I /you /he Top lonely Cop-Pres
‘I am lonely.’ / *‘You are lonely.’ / *‘He is lonely.’
ㄴ. *{Watashi/*anata/*kare}* *wa* *samui* *desu*
I /you /he Top cold Cop-Pres
‘I am cold.’ / *‘You are cold.’ / *‘He is cold.’
(Tenny 2006:247)

두 언어는 각각 ‘-어 하-’, ‘-garu(がる)’의 결합에 의해 (25, 26)로 나타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언급되었다.[29] 타인의 내면에 대하여 표현할

27)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Yang(1972)은 ‘동일-주어 제약(Equi-Subject Constraint)’, 김흥수(1993)는 ‘경험주-화자 동일성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8) 문법성 판단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현재 ‘너’나 ‘철수’의 감정·감각을 진술하는 무표적인 맥락에서 어색하고, 특수한 맥락이 없이는 자연스러운 사용이 어렵다고 했다.
29) Kuno(1973:84)는 ‘がる(garu)’에 대하여 ‘신호를 보임, -ing처럼 행동하는(to show a sign of, to behave like -ing)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Tenny(2006:250)는 ‘겉으로 보이는(appearing to be)’ 의미를 더하는 동사 체계 일부분으로서 증거성 표

때 별도의 형태를 통해 대응형이 선호된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 대조된다.

(25) ㄱ. 철수가 외로워해(외롭-+-어 하-+-어).[30]
ㄴ. 철수가 추워해(춥-+-어 하-+-어).

(26) ㄱ. *Mary* *wa* *sabishi**gatte** iru yo*
Top lonely-GARU-Pres-YO
'Mary appears to be lonely-Yo'
ㄴ. *Mary* *wa* *atu**gatte** iru yo*
Top hot-GARU-Pres-YO
'Mary appears to be hot-Yo' (Tenny 2006:251)

이와 관련하여 양정석(1997:228-244)은 주관 술어가 '-어 하-'와 결합하여 '객관적 어휘 요소'를 형성하는 형태통사론적 특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주관 술어는 '-어 하-' 대응을 통해 객관 술어처럼 인칭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2.2. 인칭 제약의 완화 기제와 '-어 하-'

'-어 하-'가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을 완화해준다면, '-어 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인칭 제약이 어떤 기제로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은 '-어 하-' 통합 외에도, 다른 맥락 정보에 의해 쉽게 완화될 수 있다. 앞서 주관 술어가 현재시제에서 보인 1·2인칭성은 은, 개인의 발화시 주관적 경험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이 알기 어려워 대신 서술하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화용론상의 제약이었다. 만일 화용상의 맥락 조건이 보충되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화자가 직접적인 경험주가 아니어도, 경험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거나 이미 알고

지라고 보았다.

30) 본고는 2인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색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눈앞의 청자의 내면 상태에 대해 화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상상하지 않고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정되는 경우에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은 화용론적 상황에 의한 제약으로, 엄격한 통사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맥락 정보에 의해 쉽게 완화될 수 있는 현상이다.

있다는 맥락에서는 화자가 타인의 내면을 대신 서술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현경(1998, 2017)에서 '인칭 제약 완화 기제'라는 이름으로, 노은주(2018), 박소영(2022), 이정민(2016) 등에서는 '인칭 제약이 사라지는 환경'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어 하-'와 함께 시점의 옮김, 추측 표현, 과거 시제, 전언 표지 등이 언급되었다.

(27)ㄱ. (철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철수가 된 것처럼**) 철수는 지금 무척 추워.
ㄴ. 철수가 무척 {추**울 것 같**아/춥**겠**다}
ㄷ. 어젯밤 철수는 무척 추**웠**다.
ㄹ. 철수가 무척 {춥**대/춥다고** 해}
ㅁ. 철수는 무척 추**워한다**.

(27ㄱ)은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화자가 철수의 감정에 이입[31]하여 자신이 겪는 것처럼 표현하는 상황이다. 화자가 곧 철수인 셈이므로 화자의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서술하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다. (27ㄴ)은 화자가 타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 추측하는 상황이다. 실제 3인칭 경험주 주어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경험주에 대하여 주관적인 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32]. (27ㄷ)과 같이 과거 사건으로 표현하거나, (27ㄹ)처럼 전해 들은 사실은, 타인의 주관적인 내면이라도 그것이 이미 외적으로 드러나서 화자에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기에 화자가 대신 서술하는 상황이 자연스럽다.

(27ㅁ)이 '-어 하-'가 사용되어 철수가 현재 추위를 느끼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은, 2.1.에서 살핀 동사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동사화와 관련된 의미기능으로, 내면적 상태가 '외적인 행동 양상'으로 드러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주관적인 내면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 하-'는 동사화 기능에 기반하여 '주관적 내면을 객관화(이정민

31) 시점의 옮김 혹은 감정이입과 관련하여서는 남기심(1989), 한송화(2000), Kwon(2014), 조형원(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2) 노은주(2018)에서는 화자의 생각, 판단, 인식 양상 등을 화자의 '사적 표상'이라고 칭하였다. 3인칭 주어의 주관적 경험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사적 표상이지만, 그에 대하여 화자가 인식하거나 추측하게 되는 상황은 화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화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4, 이광호 1997, 유현경 1998, 2017 등)'하는 의미가 있으며, 통사적으로는 주관적 경험 표현의 주어 인칭 제약을 완화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어 하-'에 선행하는 성분은 주관 술어로 쓰였다고 보게 된다. 이정민(1994:10)은 '-어 하-'가 주관적인 것을 노출(evince)시켜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 형용사로 분류되는 '길다, 짧다, 맞다, 헐겁다, 느슨하다, 무겁다, 가볍다, 쉽다, 어렵다' 등도 '-어 하-'로 동사화 시키면 주관 술어의 쓰임을 경유하여 객관화된다고 하였다.[33] 정연주(2010:299)에서도 객관 술어 가운데 주관 술어의 용법으로도 쓰이게 되면,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34]

(28) ㄱ. 수정이에게는 새로 전학 간 학교가 멀다.
ㄴ. 수정이는 새로 전학 간 학교를 유난히 <u>멀어 했다</u>. (정연주 2010:299)

(28ㄱ)은 수정이 있는 곳으로부터 학교로의 거리가 객관적으로 먼 상태를 나타내지만, (28ㄴ)은 수정이가 학교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여 주관 술어로 사용된 의미이다. 만일 '수정이가 새로 전학 간 학교가 멀다'라고 하면 다소 어색한데, 주관 술어로 사용된 '멀-' 또한 인칭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35] 이는 '-어 하-'가 결합함으로써 수정의 주관적 내면이 객관화된다.

---

33) 이정민(1994:10)에서는 이를 '감각 주관화'라고 하였다. 예컨대 '짧지도 않은데 짧아한다'에서 '-어 하-'에 선행하는 '짧-'은 경험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감각으로, 감각 주관화가 일어난 경우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 단어가 주관 술어로의 쓰임, 객관 술어로의 쓰임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짧-'의 경우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날 때는 주관 술어로의 쓰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34) 정연주(2010)에서는 '멀다', '좁다'와 같은 경우 객관 술어의 쓰임이 더 기본적이라고 보고, '좁다'류를 객관 술어에서 주관 술어로 전용될 수 있는 부류로 칭하였다. 그런데 '차갑다, 간지럽다' 등 주관/객관 술어 중 어느 것이 기본적인 용법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어휘들도 있다. 이는 말뭉치를 살펴 제시할 수 있겠으나, 여러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 본고에서는 부득이하게 기본적 용법에서의 전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 어휘가 주관 술어의 용법, 객관 술어의 용법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보기로 한다.

35) '나는 전학 간 학교가 멀다' 또한 어색하다고 지적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어가 1인칭인 위 문장이 '수정이는 전학 간 학교가 멀다'에 비하여 자연스럽다고 여긴다. '나는/수정이는'이 엄밀히 문장성분으로서 주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주제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제로 보더라도 3인칭에 비하여 1인칭이 오는 것이 비교적 구어

이러한 기술은 동사에도 '-어 하-'가 결합하는 동인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앞서 '질리다, 화나다' 등은 상태성이 낮은, 동사 부류에 속하지만, 주어의 주관적인 내면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들이 암시하는 주어의 주관적인 내면이, 다른 이들이 알 수도 있게끔 객관적으로 나타내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 '-어 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29)과 같이 이들은 동사지만 주관적 의미에 의해 현재시제에서 인칭 제약을 보이며, '-어 하-'의 통합으로 3인칭 주어의 내면 서술이 가능해진다.

(29) ㄱ. 나연이는 계속 파스타만 먹어서, 이제는 {?질려/질려 해}.
ㄴ. 나연이가 {?화난다/화나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못한다. '반기다, 화내다' 등은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어 인칭 제약을 뚜렷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다.

(30) ㄱ. {나/찬우}는 국밥이라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긴다.
ㄴ. {나/나연이}가 화낸다.

(30)은 현재시제 평서문에서 3인칭 주어가 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는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지만 주관적인 성격이 덜한 부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를 위해 '-어 하-'가 결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경험주 주어의 주관적 내면을 나타내는 부류가 아닌데도 '-어 하-'가 결합하기도 한다. 정연주(2010)은 '겸손하다, 소심하다'처럼 주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객관 술어에도 '-어 하-'가 결합함을 보였다. '수정이는 별것 아닌 일로 소심해 했다(정연주 2010:299)'와 같은 용례를 들었는데, 이때 주어인 수정이가 경험주로서 소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성격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주관 술어로 쓰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의 '-어 하-'가 결합한 것은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후술하겠지만 '(어깨를) 으쓱하다, 움찔하다'와 같이 신체 동작의 의미

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기술을 하였다.

에 '-어 하-'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36], 이 또한 주관 술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어 하-'가 통합할 수 있는 표현의 의미적 특징이 주관 술어 외에도 다양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선행표현의 의미적 특징에 따라 '-어 하-'의 선택 요인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선행요소로 나타난 목록을 종합하고 그 의미적 부류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2.3. 양태적 의미

한편 2.2.에서 살핀 '-어 하-'의 주어 인칭 제약 완화 기능에 대하여, 자기조응성(egophoricity), 증거성(evidentiality) 등의 양태 범주와 관련지은 시각도 있다. 이들은 담화 관련의 특정한 문법 범주를 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 하-'가 사용된다고 제시하였다. 2.3.1.은 '자기조응성' 범주와의 관련을, 2.3.2.은 '증거성' 범주와의 관련을 살펴보겠다.

2.3.1. 자기조응성 범주와의 관련

앞서 주관 술어는 의미 특성상 1·2인칭 주어가 선호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자기조응성(egophoricity)' 범주의 실현 분포와 겹친다.[37] 주관

36) 구체적 용례를 간단히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후술하겠다.
(예문) 그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를 으쓱해하는 성질이 있어.
그녀가 놀라 움찔해했지만 굳이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37) '자기조응성/비(非)자기조응성'은 '동칭conjunct/이칭disjunct(Curnow 2002b)', '주관subjective/객관objective(Slater 2003)' 등의 용어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egophoricity'의 'ego'는 자기(self)를, '-phor'는 전달(carry)의 의미와 관련되며(San Roque et al. 2018:7), 이지은(2021:1153)에서는 'anaphor'와 'cataphor'가 각각 전방조응, 후방조응이라는 술어로 번역되는 것을 고려하여 '자기조응성'이라는 번역 술어를 제시하였다. 정해권(2020), 정경아(2021), 정해권·정경아(2021)에서는 '자향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는 'egophoricity'의 개념이 화자의 진술을 타인과 구분 짓고자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가리키게 되는, '자기지향성'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진술임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기조응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술어와 주로 결합하는 '-어 하-'도 자기조응성 범주의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기도 하였다.

자기조응성이란, 화/청자(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화제에 대해 갖는 인식적 특권(epistemic authority)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이다(Bergqvist&Kittilä 2020:2). 사태에 의식적 자아(a conscious self)를 가지고 깊숙이 관여하여 얻은 지식, 혹은 내면과 관련된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 알고 있는 인식적 특권자(primary knower)가 존재한다(San Roque et al. 2018:2). 평서문에서는 화자가, 의문문에서는 청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인식적 특권자이다. 따라서 자기조응성을 표시하는 체계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일 때 실현되는 인칭민감성(person sensitivity)을 보인다.

(31) ㄱ. *Ji* *wan-**ā**.*
1SG go-PST.EGO
'I went.'
ㄴ. *Cha* *wan-**a**.*
2SG go-PST.ALLO
'You went.'
ㄷ. *Wa* *wan-**a**.*
3SG go-PST.ALLO
'S/he went.' (NEWAR, Hargreaves 2005:12)
ㄹ. *Ji* *kutuwla-**a**.*
1SG get.lost-EXT[38] (NEWAR, Bendix 1992:236)

(31)은 Kathmandu Newar (Tibeto-Burman 언어)의 예시이다. (31ㄱ)의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간' 경험은 행위주인 화자에게 인식적 특권이 있는 정보인 반면, 행위주가 다른 사람인 (31ㄴ, ㄷ)이나,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31ㄹ)은 그렇지 않다.[39] 이는 과거시제에서 'ā'와 'a'의

38) 화자에게 인식적 특권이 없는 경우 실현되는 표지 'a'는 Hargreaves(2005:12)에서 'ALLO'로 역주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allophoric'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Bendix(1992:236)는 'EXT'로 역주를 달았는데, 이는 'external evidential' 혹은 'disjunct'를 나타낸다. 이들은 대화참여자에게 인식적 특권이 없음을 표시한다. 즉, 자기조응성의 반대 개념인 '비-자기조응성(non-egophoricity)' 표지로 볼 수 있다.

39) 이는 인칭과 자기조응성이 동일한 범주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칭은 담화 참여자인

별도의 표지로 구별된다. 화자의 의지가 연루된 정보에 조응하는 표지 '-ā'는 '자기조응적 표지(Egophoric marking)', 그렇지 않은 정보에 조응하는 표지 '-a'는 '비-자기조응적 표지(Non-egophoric marking)'라고 한다. San Roque et al.(2018:18)은 이러한 자기조응성의 실현을 '주어/행위자-유형(subject/actor-type)'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화자가 경험주로서 내적으로 경험한 감각·감정 등에 대해서도 화자는 인식적 특권을 갖는다. 이는 '경험자-유형(undergoer-type)'으로 제시되었다(San Roque et al.2018:18). Cha'palaa(Baracoan 언어)의 예시이다.

(32) ㄱ. *aa - sun - **ten** - shee*
AUG-happy-**feel.**$_{\text{EGO}}$-$_{\text{EV.BPG}}$[40]
'(I) am really happy'
ㄴ. *aa - sun - **tya** - i - shee*
AUG-happy-**feel.**$_{\text{N.EGO}}$-become-$_{\text{EV.BPG}}$
'(he) is really happy (or 'you are really happy')'
(CHA'PALAA, Floyd 2018:290)

(32ㄱ)에서 화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므로 인식적 특권이 있다. 반면 (32ㄴ)의 타인의 감정은 화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인식적 특권이 떨어진다. 이것이 어휘요소 '느끼다'에 대하여 자기조응적 술어 'ten'과 비-자기조응적 술어 'tya'로써 구별된다. 이때 'tya'와 함께 실현되는 '-i-'는 동사 굴절 요소로 상적 변화를 나타낸다.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는 범주이지만, 자기조응성은 대화 내용에 대해 담화 참여자가 갖는 우월한 인식적 특권의 위치를 표시하는 범주이다. 둘은 겹칠 수도 있지만 구분되는 지점도 존재한다(San Roque et al. 2018:49). (31ㄱ, ㄴ, ㄷ)은 인칭과 동일한 범주 실현을 보이지만, (31ㄹ)과 같이 1인칭에 항상 자기조응 표지가 붙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행동이라도 의지가 없어 인식적 특권이 없는 정보라면 비자기조응 표지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 인칭과 구분되는 범주로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응성이 평서문에서 1인칭성, 의문문에서 2인칭성을 강하게 띠는 언어도 있다. 즉, (31ㄹ)처럼 화자가 무의식적·무의지적으로 행한 것이라도 화자가 행위주이기만 하면 자기조응 표지를 동일하게 실현하는 언어가 있다. 아래는 Floyd(2018:284)의 Cha'palaa어 예시이다.

ㄱ. *pi-i-re-ki-**yu*** *i-ya*
disappear-become-$_{\text{CAUS}}$-do-$_{\text{EGO}}$ 1-$_{\text{FOC}}$ 'I lost it'

40) general knowledge evidential를 뜻하는 역주이다. 지각/추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임을 표시하는 증거성을 말한다.

(3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Cha'palaa어는 화자와 비-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형태적으로 구별되고, 상적 특징도 일부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어의 주관 술어와 '-어 하-' 동사의 대응과 유사한 면이 있다. Floyd(2018:289)에서도 Cha'palaa에서 '경험자-유형'의 자기조응성 술어와, 한국어, 일본어의 주관 술어(private predicates)와의 유사성을 언급하였다.[41]

하지만 이들 어휘가 곧 자기조응성 표지인 것은 아니다. 자기조응성은 문법 범주이므로, 어휘 요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이지은 2021:1187). 한국어, 일본어, Cha'palaa의 심리·감각 표현이 자기조응성 분포를 보이는 것은 자기조응성이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분포가 겹치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42]

정해권·정경아(2021:110)은 심리형용사와 그에 대응하는 '-어 하-' 동사가 각각 자기조응적 분포, 비-자기조응적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앞서 심리형용사의 인칭 제약은, 내적 경험은 경험주 외의 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배타적 성격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는 자기조응성의 '인식적 특권'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33) ㄱ. 난 아이스크림 <u>먹고 싶어</u>.
ㄴ. 너 아이스크림 <u>먹고 싶어</u>?
ㄷ. 영희가 아이스크림 <u>먹고 싶어해</u>. (정해권·정경아 2021:111)

(33ㄱ, ㄴ)은 각각 평서문의 근원 인식자(primary knower)인 화자, 의문

41) 자기조응성의 실현은 주어/행위자-유형에서 실현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주어/행위자-유형의 실현 없이 경험자-유형에서만 실현되는 언어는 발견되지 않았다(San Roque et al. 2018:18). 한국어 또한 주어/행위자 유형에서의 자기조응성 실현 양상이 존재할 것이나, 본고는 '-어 하-'의 주 선행요소인 주관 술어를 살피며 자기조응성과의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므로, 한국어에서의 주어/행위자 유형의 실현 양상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관련 연구를 언급해두기로 한다. 정해권(2020:362)는 인칭법, 감동법, 의도법 등으로 논의된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오/우-'를 자기조응성 표지로 언급하였는데,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42) Floyd(2018:291) 또한 'ten', 'tya'에 대하여 자기조응/비-자기조응적 표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각각을 ego verb, non-ego verb로 제시하며, 같은 의미('feel')인 보충 관계로 보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단어로서 각각 '내적 상태(internal states)'와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태(externally observable states)'로 보는 것 중 어떤 기술이 더 적절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어 하-' 구성을 어휘화된 구성과 그렇지 않은 구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문의 근원 인식자인 청자가 주어인 자기조응적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해, (33ㄷ)은 비-화자가 주어로, 비-자기조응적 분포를 보인다. (33ㄱ, ㄴ)은 자기조응성이 실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해권·정경아(2021)은 무표적 종결어미 '-어', '-다'를 자기조응적 표지로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San Roque et al.(2018:13)은 일본어 주관술어의 예시를 들며 무표지 술어(zero-marked predicates)가 외현적인 비-자기조응적 술어 형태(overt non-egophoric forms)와 비교하여 더 자기조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일본어의 주관적 경험 표현은 한국어와 평행한 인칭 제약을 보였으므로 한국어에도 San Roque et al.(2018)의 설명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 술어에 붙는 문법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 '-다' 등의 무표적 어미는 자기조응적 표지로, 반대로 유표적인 '-어 하-' 구성은 비-자기조응적 표지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평서문 서술어 자리에 쓰인 주관 술어의 후행 문법 구성으로 '-어', '-다'가 나타난다면 1인칭 주어와, '-어 하-'가 나타난다면 비-1인칭 주어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분포에서 벗어난 예외적 쓰임이 발견되기도 한다. 1인칭 주어에 '-어 하-' 동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우나, 3인칭 주어에 '-어 하-' 없이 '-어', '-다' 등의 무표적 어미로 실현된 경우가 있다. 이는 별도의 화용적 효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평서문 1인칭, 의문문 2인칭의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것으로 설명된다. Fried(2018:221)는 별도의 화용적 효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평서문 1인칭, 의문문 2인칭의 자기조응성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형태를 취하는 언어도 있다고 하였다.[43] 예컨대 3인칭 주어에 자기조응 표지가 실현되면, 화자가 3인칭 주어의 내적 정보에 대하여 확신성을 갖고 있다는 함축이 수반될 수 있다(San Roque et al. 2018:30). 반대로 1인칭 주어에 비-자기조응적 표지가 쓰이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의외성 등의 부가 의미를 보일 수 있다.[44]

---

43) Fried(2018:221)에서는 Mangghuer를 그 예시로 들었다. 평서문을 기준으로 1인칭 주어에 비-자기조응적 표지가 실현될 경우, 화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을 법한 인식적 특권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통제 결여(lack of control), 의외성(mirativity), 불쾌함(annoyance), 요구 거절(refusal of request)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3인칭 주어에 자기조응적 표지가 사용될 경우, 화자에게 없을 것이 예상되는 인식적 특권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확실성(certainty), 확신(confidence), 예측(prediction), 자기-의심(self-doubt), 정보에 대한 특권적 접근(privileged access to information) 등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34) ㄱ. 난 커피 좋아해. (정해권·정경아 2021:111, 각주 5)
ㄴ. (?) 영희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정해권·정경아(2021:111)가 (34ㄱ)을 '화자를 3인칭처럼 객관화한 것'으로 풀이한 것도 이러한 관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34ㄴ)은 화자가 '영희'의 의중에 대한 확신성을 지니고 그것을 대신 전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다. 제3자의 감정에 대해 화자가 청자보다 상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박용식(2004:59)은 자기조응성 범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1인칭 주어에 쓰인 '-어 하-' 통합 표현은 화자가 자신을 대상화시켜 자신의 감정·감각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유사하다.

요컨대 '-어 하-' 구성을 자기조응성 범주와 관련해본다면, '-어 하-'는 자기조응적 분포를 보이는 주관술어의 대응형으로 비-자기조응적 분포를 보인다. 예외적으로 1인칭 주어에 사용된다면 화자가 자신을 제3자처럼 객관화하여 내면을 표현한다는 의미효과가 발생한다.

'-어 하-'를 자기조응성 범주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는 일은, 한국어 심리·감각 형용사의 인칭 분포의 특이성을,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다. 2.2.의 타인의 주관적 내면을 객관화해야 나타낼 수 있다는 '객관화' 기능이, 자기조응성 논의에서는 인식적 특권에서 기인한 결과로 정리된다. 따라서 자기조응성 관련 논의 또한 2.2.의 기술이 가졌던 한계를 비슷하게 갖는다. '-어 하-'의 선행요소로, 자기조응적 분포가 요구되지 않는, 다시 말해 3인칭 주어의 제약이 없는 전형적인 동작 동사나 객관형용사 등이 오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좋다, 좋아하다'와 같이 1인칭 주어에 사용되었을 때 의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화용적 의미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2. 참조).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맥락으로 나누어 다른 방식의 설명을 취해볼 필요를 보여준다.

---

44) 앞서 (29ㄹ)의 경우가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29ㄹ)의 비-자기조응 표지 '-a'는 화자가 통제가 결여된 상황이라는 화용적 의미효과를 거둔다.
(예문) *Ji* *kutuwla-**a**.*
1_{SG} get.lost-$_{EXT}$ (NEWAR, Bendix 1992:236)

2.3.2. 증거성 범주와의 관련

2.3.2.1. 증거성 체계와 실현 양상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 현상(2.2.)은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와 관련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 술어와 결합하는 '-어 하-' 구성도 증거성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 있다.

먼저 증거성이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의 습득 경로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이다. 증거성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실현된다. 이에 대해 유형론적 체계를 수립한 연구로는 Plungian(2001)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증거성을 정보 출처의 성격에 따라 크게 '직접 증거(direct evidence)', '성찰 증거(reflected evidence)', '매개 증거(mediated evidenc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세 유형이 모두 구별될 수도 있지만, 기준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화자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지했는가를 기준으로 '직접 증거'와 나머지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즉, 추리나 추론을 통한 '성찰 증거', 남에게 전해 들은 '매개 증거'는 '직접 증거'와 대립되는 '간접 증거'로 묶을 수 있다. 둘째, 정보에 대해 화자의 관여 정도(parameter of speaker's involvement)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 증거'와 '성찰 증거'는 남에게서 전해 들은 '전언'과 구별된다. 이들을 개인적(personal, non-quotative) 증거로 묶어서 '전언'과 대립할 수 있다.[45]

개별 언어에 따라 어떤 증거성 유형들이 같은 표지로 실현되어 묶이는지는 다를 수 있다.[46] 또 세 가지 유형 안에서도 더 세분화되어 다른 표지로 더 구별하는 언어들도 있다. 아래 [표 2-4]는 증거성 범주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나눌 경우, 최하위 항목으로 나타난 내용(Plungian 2001:354)을 제시한 것이다. 단, Plungian(2001:353-4)의 분류와 설명을 필자가 하나의 표로 수정·요약하여 나타내었으며, 번역 및 상세 설명은 이의종(2012:7)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

45) 각 증거성 유형의 번역어는 이의종(2012:7)에서 제시한 용어를 받아들였다.

46) 예컨대 Balkan, Causcasian, Ob-Ugrian은 '성찰 증거', '매개 증거'를 간접 증거로써 같은 표지로 실현하고, '직접 증거'는 다르게 실현한다. Lezgian, Latvian, Quechu는 '직접 증거', '성찰 증거'를 개인적 증거로 함께 묶고, '매개 증거'와 대립되는 체계를 보인다고 보고된다(Plungian 2001:353).

<table>
<tr><td rowspan="7">간접 증거
(Indirect evidence)</td><td rowspan="6">개인적 증거
(Personal evidence)</td><td rowspan="3">직접 증거
(Direct evidence)</td><td>시각적(Visual) (보아서 앎)</td></tr>
<tr><td>감각적 (Sensoric) (시각 외의 지각으로, 즉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아서 앎)</td></tr>
<tr><td>내성적 (Endophoric) (배고픔, 통증 등 내적 상태를 스스로 느껴서 앎)</td></tr>
<tr><td rowspan="3">성찰 증거
(Reflected evidence)</td><td>동시적 추리 (Synchronous inference)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보아서 앎)</td></tr>
<tr><td>회고적 추리 (Retrospective inference)
(어떤 일이 일어났던 흔적을 보아서 앎)</td></tr>
<tr><td>추론 (Reasoning)
(일반적 사실, 화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앎)</td></tr>
<tr><td></td><td>매개 증거
(Mediated evidence)</td><td>전언 (Quotative)</td></tr>
</table>

[표 2-4] 증거성 세부 유형(Plungian 2001:353-4의 표와 내용을 하나로 옮김)

한국어에서 증거성 표현은 다음과 같은 표지들이 제시되어 왔다. (35ㄱ)의 어미들은 화자가 직접 알았음을 표시한다. 지각의 시점에 따라 세부 의미가 다르다. (35ㄴ)의 어미 및 우언적 구성은 화자가 직접 관찰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서를 가지고 추측하여 알아낸 지식을 표시한다. 이의종(2012:9)에서는 '추측'으로 제시하는데, Plungian(2001)의 '성찰 증거' 범주에 해당한다. (35ㄷ)의 어미(구조체)들은 전해 들었음을 표시한다.

(35)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 (이의종 2012:9)
ㄱ. 직접 증거: '-더-', '-네', '-길래', '-었더니' 등
ㄴ. 추측: '-겠-', '-을 것이-', '-은가/나 보-', '-을/은 모양이-' 등
ㄷ. 전언: '-다/라/자/냐(고 하)-', '-다는/라는/자는/냐는', '-대/래/재/냬' 등

(35ㄱ~ㄷ)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어의 증거성 표현들은 어미, 우언적 구성, 어미 구조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단일한 형태통사적 범주 내 체계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 실현이 필수적이지도 않다. 가령, 화자가 '철수

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돈 사실'을 과거에 지각했고, 이를 표현한다면 과거의 지각 표지 '-더-'를 실현하여 '철수가 운동장을 돌더라'로 말해도 되지만 '철수가 운동장을 돌았어'로 '-더-' 없이도 실현이 가능하다.[47]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어의 증거성 체계가, 시제나 격 체계에 비견할 만한 꽉 짜인 문법 체계로서 존재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이의종 2012:8-9).

한국어의 증거성 실현에 대해서는 '정보관할권(territories of information)'과의 상호작용을 논한 이의종(2012)을 참고할 수 있다. Kamio(1997)의 정보관할권 이론은, 정보가 대화 참여자 중 누구의 관할권 안에 있느냐에 따라 증거 강도를 달리 표현하며, 그 결과 언어형식도 달리 선택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면, 직접 증거 표지는 무표적 단언과 대립하여 화자의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게 되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이를 문법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48] 즉, 화자가 가장 잘 아는(관할권 내) 정보라면 무표적 단언으로 실현하고, 화자가 잘 모르는(관할권 외) 정보라면 별도의 증거 표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36) ㄱ. 내가 나도 모르게 졸고 있더라고.
ㄴ. 너희 아버지 교문에 계시더라. (이의종 2012:38의 예문)

이는 대표적인 직접 증거 표지 '-더-'가 화용상 1인칭 제약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만일 화자가 스스로에 대해 '-더-'를 사용할 경우, 의외성·비의도성의 부가적인 의미가 더해진다. (36ㄱ)은 자신이 졸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가 확인된다. 화자가 잘 모르는 정보, 즉 자신의 관할권에 있지 않은 정보는 직접 증거 표지를 실현한다. (36ㄴ)에서 청자의 아버지에 대한

47) 증거성 범주의 실현이 필수적인 언어의 경우, 모든 정보에 대하여 그 습득 경로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화자가 스스로 행한 행위는 증거성 표지 없이 무표적으로 실현되지만, Kashaya에서는 화자가 행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성 표지 performative 접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각 증거성 접사가 별도의 형태로 실현된다(송재목 2007, 2015).

48)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그것을 외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다른 맥락 정보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면, 굳이 실현하지 않는 것이 언어 경제적으로도 자연스럽다. 만일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현적으로 실현이 되었다면, 별도의 화용상 의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는 화자가 아닌, 청자에게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더-'는 청자의 관할권을 존중하며, 정보에 대해 '이 정보는 나의 것이 아님'을 표시하여 정보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이의종 2012:28-9). 만일 무표적 단언으로(예컨대 '너희 아버지 교문에 계셔') 발화한다면, (36ㄴ)보다 화자가 확실하게 아는 정보를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다.

2.3.2.2. 주관 술어와 증거성

'-어 하-'의 주요 선행요소로 언급된 주관 술어는 Plungian(2001)의 '내성(endophoric, endopathic) 증거성'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내성 증거성이란, 경험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증거를 말한다(Plungian 2001:352). 송재목(2007), Kalsang, Speas and Villiers(2013), 허세문(2020:397) 등의 논저에서도 감정·감각 경험은 그 자체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증거가 된다고 언급되었다. 특히 송재목(2018:110)은 한국어의 심리형용사가 어휘 내재적으로 내성 증거성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였는데, 관련된 사건을 화자가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에 속하지만, 감각기관을 통한 외부의 관찰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시각/감각 증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49]

이는 모든 언어에서 그러하나,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별도 표지 실현으로 구별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 일본어는 감정·감각 표현과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을 별도의 표지로 구별하고, 그 결과 일정한 대응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이는 영어, 중국어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별도의 표지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37) ㄱ. Mary is dizzy.
ㄴ. I haven't seen Mary lately. ??She is dizzy. (이정민 2016:683)

49) '감각 증거'의 어휘와 용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본고에서 '객관 술어로 쓰일 수도 있고 주관 술어로 쓰일 수도 있는 어휘'가 객관 술어로 쓰인 예를 말하는 듯하다. 가령 '깃털은 간지럽다'에서 '간지럽-'의 경우, 객관 술어로 쓰였으나 감각 증거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속성이다. 반면 '깃털 때문에 발이 간지럽다'에서는 외부의 관찰을 통해 획득한 속성이 아니라, 내면에서 경험한 감각 상태를 뜻한다. 이처럼 한 어휘가 감각 증거성으로도, 내성 증거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에서 감각 증거와 내성 증거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으로 생각된다.

(38) 메리는 (지금) {??어지러워 / 어지러**워 해**}.

(39) *Mary wa* *sabishi**gatte** iru yo*[50]

Top Lonely−GARU−Pres−Yo

'Mary appears to be lonely−YO.' (Kuroda 1973:384)

타인의 내면을 대신 서술하려면, 화자가 발화시 이전에 그것을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증거습득 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어, 중국어 등 대부분 언어에서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맥락적으로 전제수용(accommodation)된다. (37ㄱ)은 계사를 사용하여 Mary의 내면을 나타내는데, 화자의 내면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낸다.[51][52] (37ㄴ)처럼 명시적으로 화자의 증거습득 사건이 부정되지만 않는다면 다른 감정·감각 표현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어는 발화시에 타인의 내면을 서술하려면 '−어 하−'가 통합한 형태가 요구되고, 일본어는 '−garu' 통합이 요구된다. 각 문법 구성이 증거습득 사건을 전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38, 39)가 수용성이 있는 문장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Kuroda(1973), Kuno(1973), Tenny(2006) 등은 '−garu'가 어휘적 층위의 증거성 표지라고 제시하였고, 이정민(2016)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garu'에 대응하는 '−어 하−'를 시각 증거성 표지로 보았다.

'−garu'를 시각 증거성 표지로 본 입장의 근거는, '−garu'가 주관적 내면 상태에 '겉으로 드러남(appearing to be)(Tenny 2006:250)', '그렇게 행동을 드러냄(to show a sign of, to be have like ~)(Kuno 1973:84)'과 같은 의미를 더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눈으로 보아서 얻은 증거습득 사건임이 전제된다고 보았다.[53] 해당 정보는 시각 증거를 갖는 정보가

---

50) '−garu'가 통합하지 않은 어형에 대해 비문이라고 제시한 내용은 2.2.1.의 예문 (24)를 참고하기 바란다.

51) Lehmann(2011)은 영어에서 계사 대신 동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구분하는 화용적 효과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래 예문에서 'feel'은 화자 주어에, 'look'은 비−화자 주어에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문) { I / ?You } feel happy.

{ ?I / You } look happy.

52) 중국어는 '看起来(보아서 앎)', '听说(들어서 앎)'와 같은 시·청각 증거성 표지가 제3자의 주관적 경험을 서술할 때 함께 자주 쓰인다. 단, 이러한 표지가 없더라도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와 유사하고, 한국어, 일본어와 대조된다.

53) 이정민(2016)에서는 왜 증거성의 유형 가운데 '시각 증거성'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어 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된다. 또 '-garu'의 대응짝이 생산적이지 않아 목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적인 증거성 표지로 파악하였다(Tenny 2006:252).[54]

그러나 과연 한국어의 '-어 하-'도 '어휘적 시각 증거성 표지'로 단정되는 문법 구성인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3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어 하-'의 통합은 주관 술어 외의 객관 술어, 그리고 주/객관 술어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동작 동사 부류에도 일어나며, 형태적 단위만을 형성한다기보다 통사적 성격도 함께 나타나는 부류들을 생산적으로 형성한다.[55] 이는 '-어 하-'를 Tenny(2006)의 '-garu'처럼 어휘적인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어 하-'가 '시각 증거성(visual evidentiality)'을 나타내는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화자가 타인의 내면을 대신 서술하려면 그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전해 들어서 알거나, 보아서 앎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한국어의 증거성 체계에서 이들은 각각 추측, 전언 표지, 그리고 '-어 하-'에 의해 표시된다. 그러나 타인의 내면을 보아서 알고, 이를 화자가 대신 표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그 내면을 추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화자가 '철수가 부끄러워한다'라고 발화할 수 있는 것은 철수의 행동이나 외양을 보아서 아는 것이긴 하지만, 화자 자신이 경험주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Plungian(2001)의 유형 체계에서 '성찰 근거'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다만 시각 증거성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어 하-'의 실현 양상을 증거성 범주와 관련하는 일은, 통사적 환경에 따라 필수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Tenny(2006:249)는 '-garu' 외에 절(clause)적 층위의 증거성이 3인칭 주어의 내면 표현을 가능하게 함을 보였다. (40)은 '-ㄴ 것이다' 구성에 대응하는 noda절에 주관적 내면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garu' 통합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noda 절에 표시되는 증거성이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고 설명하였다.[56]

---

54) '*samui/samugaru*(be cold)', '*sabishii/sabishigaru*(be lonely)', '*kanashii/kanashigaru*(be sad)', '*atui/atugaru*(be hot)' 등을 예로 들었다.

55) 3.2의 예외적 통합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 용례는 생략하고 나중에 3.2.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56) '-ㄴ 것이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부연하는 것으로, 그 구성의 의미 자체에 증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40) ㄱ. Mary wa sabishii noda 'Mary is lonely(메리는 외로운 것이다)'
ㄴ. Mary wa sabishi**gatte** iru noda 'Mary is lonely(메리는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다[57])'

이 외에도 명사절, 'no one doubts'에 대응하는 구성에 종속된 경우 등 내포절 환경에서 3인칭 주어의 내면 표현 제약이 완화된다고 제시되었다(Kuroda 1973:9-10, Tenny 2006:252). 이를 참고하여 허세문(2020), 박소영(2022) 등에서도 이유의 종속절, 관형절, 명사절 등의 비한정적 환경에 사용된 심리형용사가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는 현상을 다루었다.

이러한 작업은 (41)처럼 '-어 하-'가 수의적으로 통합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8] (41ㄱ)의 '-어서' 원인절, (41ㄴ)의 관형절은 화자가 잘 알고 있음이 전제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거 강도가 높은 무표적 단언으로 실현된다. 즉, '-어 하-' 없이도 표현이 가능하다. 반대로 '-어 하-'의 사용은, 선행요소가 나타내는 '주관적 내면'이 자신의 정보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41) ㄱ. 철수는 귀신이 무서워서 밤에 잘 나가지 않아.
ㄱ′. 철수는 귀신을 무서워해서 밤에 잘 나가지 않아.
ㄴ.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ㄴ′. 내가 먹고 싶어했던 음식

이때 '-어 하-'가 증거성과 관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해야 좋은가? 타인의 내면을 서술할 때는 추측의 성격도 존재하므로 시각의 직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그 의미를 '관찰'이라고 제시해볼 것이다.[59] '관찰'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을 대상으로, 감각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시각을 이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보관할권에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폭 동안 살

57) 예문은 Kuroda(1973: 20-21, 381)의 예문을 가지고 왔으며, 이에 대한 한국어 해석은 노은주(2018: 26-27)을 참고하였다.
58) 여기서 수의적이라 함은, 3인칭 주어의 내면 표현이라 '-어 하-'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없어도 무방한 환경을 말한 것이다.
59) 관찰을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성격이 혼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본고에서 파악한 기술일 뿐 명확한 체계를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이는 추후 증거성 체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더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펴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추측을 결론으로 내리는 활동이다. 이는 추측, 지각, 전언의 표지와 구별된다. 다음 (42)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자.

(42) (청자가 얇게 입은 모습을 보고)
ㄱ. ??너 지금 추워. / ?너 지금 추**워해**. / 너 지금 추**워하**고 있어.
ㄴ. ?*너 그때 춥더라./ 너 그때 추**워하**더라. / 너 그때 추**워하**고 있더라.
ㄷ. ?너 지금 춥네. / 너 지금 추**워하**네. / 너 지금 추**워하**고 있네.
ㄹ. 너 춥{겠, -ㄹ 것 같}다. /너 추**워하**{겠, -ㄹ 것 같}다.

(42)에서 청자가 추위를 느끼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아닌 청자의 정보관할권에 속한다. 눈앞에 있는 청자의 내면을 화자가 나타내는 경우는 특수한 맥락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화자가 청자에게 알려주는 상황이나 청자의 상태를 추측할 때 한하여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60]

청자의 현재 내면을 나타내는 (42ㄱ)은 무표적 단언이 어색하고, '-어 하-'가 통합하면 수용성이 비교적 나아지며, 진행상 '-고 있-'까지 사용되면 훨씬 자연스럽다. 진행상은 사태의 시간 폭이 전제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데, '-어 하-'가 관찰의 의미라면, 일정한 시간 폭 동안 살펴보는 행위라는 의미가 더해지므로 진행상과 공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잘 설명된다.

(42ㄴ)의 과거 지각 사실을 나타내는 '-더-'는 반드시 '-어 하-'가 통합해야만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청자의 과거 내면 경험을 화자가 사실로써 지각한 것은 관찰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하-'가 쓰여 관찰의 의미가 드러나야 자연스러워진다. (42ㄷ)은 화자가 새롭게 지각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네'가 사용되었는데, '-더-'에 비해 무표적 단언의 실현이 낫지만 여전히 어색하다. 이는 '-어 하-'의 통합으로 자연스러워진다.

(42ㄹ)은 추측의 '-겠-', '-ㄹ 것 같-'이 사용되었는데, 추측 자체는 화자의 정보관할권에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 이뤄지며, 무표적 단언으로 실현할 수 없고 간접 증거 표지를 실현하여 나타낸다. 이때 '-어 하-'가 함께 사용되면 눈앞의 청자가 아니라 미래 시점의 청자에 대하여 추측하는 의미가 될 때 자연스럽다.[61] 청자의 현재 모습에 대한 관찰을 통해 더 불확실한

60) 가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많이 외롭습니다'와 같이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특수한 맥락 없이 눈앞의 청자에게 '너는 외로워'라고 발화하는 상황은 일상적 문맥에서 자연스럽지 않다(이의종 2012:20).

더 미래 시점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시점의 타인의 내면은 화자의 정보관할권에서 더 멀어지므로, 화자에게 단언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간접 증거 표지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간접 증거 표지와 함께 '-어 하-'도 같이 실현하면 더 효과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 하-'가 주관적 내면이 아닌 표현에도 붙는 사실도 '관찰'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다. 가령 '겸손해했다', '움찔해하는 사람, 주춤해하는 적들'과 같이 성격에 대한 평가 의미의 형용사나, 동작 동사들에도 '-어 하-'가 붙는데, 이러한 통합형의 출현 환경이 관형절이나 묘사와 같은 특정한 맥락으로 빈번하게 제시된다면 증거성과도 관련해볼 수 있겠다.

다만 증거성과 관련한 설명도, 지금까지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못한다. 앞서 '좋다-좋아하다'는 1인칭 주어에 쓰일 때 의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최정진 2005), 가령 '나는 철수를 좋아해'에 쓰인 '-어 하-'를, 화자가 스스로에 대해 관찰하여 알게 된 의외의 사실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증거성 실현과 무관하게, 특정 어미 앞에서 '-어 하-'가 반드시 쓰여야만 하는 경우들을 다루려면 동사화 기능 등의 다른 설명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 하-'의 기능은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에 따라 부각되는 선행요소와 후행하는 통사적 환경 또한 다양하다. '-어 하-'의 의미기능을 하나로 단정하여 설명하는 일은, '-어 하-'가 지닌 다양한 분포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어 하-'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분포의 특이성에 따라 선행요소의 종류를 나누고, 그에 따라 '-어 하-'가 선택되는 데 작용하였을 문법 범주 및 의미기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말뭉치에서 '-어 하-'가 드러난 용례를, 선행표현과의 통합 양상과 문장에서 후행요소와의 분포 경향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61) 눈앞의 청자에 대해 추측하는 상황에서 '-어 하-'가 쓰이면 비교적 자연스러움이 덜하다. 아래 예문 2와 같은 상황에서 '-어 하-'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문 1) 너 지금 {춥겠다 / ?추워하겠다}, 얼른 들어가자.

(예문 2) 옷 입은 걸 보니 너 나중에 추워하겠다.

3. ‘-어 하-’의 선행요소

3장부터는 구체적인 통합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3.1.에서 ‘-어 하-’의 선행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세부 의미유형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나아가 3.2.에서는 선행요소 가운데 예외적 분포를 지적함으로써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는 목록이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3.1. 선행요소의 분류

(1~5)는 말뭉치에 나타난 ‘-어 하-’의 선행요소로, (1)의 감정 의미의 용언 부류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2)의 감각 의미, (3)의 성격·태도 의미, (4)의 신체 동작 의미 등 다양한 의미유형이 발견된다. 한편 (5)처럼 ‘-어하다’ 동사도 일부 발견되었다.

(1) ㄱ. 좋다(좋아하다), -고 싶다(-고 싶어하다), 싫다(싫어하다), 기쁘다(기뻐하다), 두렵다(두려워하다), 밉다(미워하다), 그립다(그리워하다), 괴롭다(괴로워하다), 겁나다(겁나하다), 거슬리다(거슬려하다) …

ㄴ. 어쩔 줄 모르다(어쩔 줄 몰라하다), 당황하다(당황해하다), 못 견디다(못 견뎌하다), 만족하다(만족해하다), 겁내다(겁내어한다, 겁내한다) …

(2) 피곤하다(피곤해하다), 아프다(아파하다), 불편하다(불편해하다), 목마르다(목말라하다), 춥다(추워하다), 배고프다(배고파하다) …

(3) 자신만만하다(자신만만해하다), 겸손하다(겸손해하다), 시큰둥하다(시큰둥해하다), 유쾌하다(유쾌해하다), 시무룩하다(시무룩해하다), 태연하다(태연해하다), 느긋하다(느긋해하다), 담담하다(담담해하다), 성급하다(성급해하다) …

(4) 으쓱하다(으쓱해하다), 움찔하다(움찔해하다), 자세/말씨를 고치다(고쳐하다), 주춤하다(주춤해하다), 멈칫하다(멈칫해하다), 떠들다(떠들어하다) …

(5) 기뻐하다(기뻐해하다), 아파하다(아파해하다), 어이없어하다(어이없어해하다), 슬퍼하다(슬퍼해하다), 신나하다(신나해하다)

각 의미유형은 주관성(subjectivity)의 정도가 다르다.[62] 주관성이 높다는 것은 화자의 관점,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말한다. 어떤 표현이 감정, 감각과 같이 발화시 '화자'만이 알 수 있는 내면 상태를 주로 표현한다면, 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63] 발화시 내면은 화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현재시제에서 1인칭 화자 주어를 요구하는 인칭 제약이 나타난다.[64] 다만 (1ㄴ)은 내면의 상태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화자만이 아는 것은 아니므로 인칭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3)처럼 대상의 성격, 태도를 나타내거나 (4), (5)처럼 외적인 행동 양상이 드러나는 경우, 타인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들은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칭 제약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2.2.1.의 주관 술어와 객관 술어의 구분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본고는 주관성의 정도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존의 주/객관 술어는 형용사 분류 체계에서 주로 논의된 것으로, 경험주 논항의 유무를 판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4)와 같은 동작 동사나 (1ㄴ)처럼 '경험주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면서도 인칭 제약은 거의 없는 부류' 등을 다루기 어렵다.[65] 또한 어휘의 주/객관성은 맥락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나, 이러한 주/객관 술

---

62) Lyons(1977:739)는 주관성을 '화자가 발화하며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드러내는 태도'로 제시했다. 주관성의 개념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인지언어학은 언어 표현의 의미가 객관적 실세계의 대응이 아닌, 화자가 주어진 상황을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Langaker(1991:316)는 화자가 주관성/객관성을 가지고 특정 실체나 상황을 해석한다고 보았다. 가령 화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안경 자체를 바라볼 때와, 안경을 '쓰고'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의 안경은 각각 다른 위상을 갖는다. 전자의 상황에서 안경은 '지각의 대상'이지만, 후자의 상황에서 안경은 화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자체가 '지각의 주체'가 된다. 전자는 객관성을, 후자는 주관성을 비유한다.

63) 2.2.1.의 주관 술어가 여기에 속한다. 주관 술어가 현재 시제에서 표현될 때 발생하는 인칭 제약도 결국 주관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4) 화자만이 아는 내적 상태는 타인이 대신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인칭 화자가 주어로서 자신의 상태를 서술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이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이다. 단, 타인의 내적 상태를 잘 아는 맥락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제약은 완화될 수 있다(2.2.2. 참조). 따라서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은 통사적인 현상이기보다는 화용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65) 주/객관 술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어휘가 주관 술어로서의 쓰임과 객관 술어로서의 쓰임을 모두 갖기도 함(2.2.1. 참조)을 고려할 때, 주관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의 이점이 있다. 예컨대 '비싸-'는 '보리보다 쌀이 비싸다'에서 주관성이 낮지만, '나에겐 그 물건이 너무 비싸'에서는 '나'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의 용어는 이것이 양분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본고는 주/객관 술어의 용어 대신 '주관성'의 정도에 따라 선행요소를 분류하였다.

(1ㄱ), (2)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로 묶인다. (3), (4), (5), (1ㄴ)은 의미유형은 다양하지만 1인칭 화자 주어로의 제약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낮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3.1.1. 주관성이 높은 부류

감정, 감각 의미는 대체로 화자만이 알 수 있는 내면 경험을 나타낸다. 어떤 단어들은 현재시제의 주어가 1인칭 화자로 선호되는데, 이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세부 의미유형에 따라 3.1.1.1.에서 감정 부류를, 3.1.1.2.에서 감각 부류를 다루겠다.

3.1.1.1.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

감정의 의미유형을 가진 부류 중 현재시제에서 인칭 제약을 갖는 경우를 '화자 중심 감정 용언'으로 부를 것이다. 이는 유현경(2018)의 용어를 따른 것이다. 유현경(2018:39-43)은 '감정용언'을 '감정 주체의 내적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으로 정의하고, 감정 주체가 화자인 부류와 주어인 부류로 나누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화자 중심 감정 용언	주어 중심 감정 용언
특징	주관성 , 비의도성	객관성 , 의도성
항목	심리형용사, 심리자동사, '-어지다'류 동사(그리워지다, 슬퍼지다, 싫어지다, 정떨어지다,…)	'-어하다'류 동사, '사랑하다'류

[표 3-1] 감정 주체에 따른 감정용언 분류(유현경 2018:39-43)

(6) ㄱ. {나는/*너는/*그는} 영희가 좋다.
ㄴ. {나는/너는/그는} 영희를 좋아한다.
ㄷ. {나는/너는/그는} 영희를 사랑한다. (유현경 2018:51)

(7) ㄱ. *나는 영희가 좋으려고 했으나 좋아지지 않았다.

ㄴ. 나는 영희를 좋아하려고 했으나 좋아지지 않았다. (유현경 2018:51)

(6ㄱ)과 같은 화자 중심 감정 용언은 화자 자신의 내면 감정을 나타내므로 현재 시제에서 주어와 화자가 일치해야 하는 인칭 제약이 있다. 또 (7ㄱ)에서 비의도성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반면 주어 중심 감정 용언은 (6ㄴ, ㄷ)처럼 인칭 제약이 없으며, (7ㄴ)에서 주어의 의도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화자가 감정의 주체라면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감정을 알 수 없지만, 이에 비하여 주어의 감정은 화자가 외현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유현경 2018:55). 가령 '화나다'와 '화내다'를 비교한다면, 후자는 주어의 '화난' 감정과 함께 그것이 표출되는 행위를 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인칭 제약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8) ㄱ. 사소한 일인데도 {나는/*너는/*철수는} 무척 화난다.
ㄴ. 사소한 일인데도 {나는/너는/철수는} 무척 화낸다.

감정 용언에 대한 유현경(2018)의 분류는 단순히 경험주 상정의 여부로 나누었던 주관/객관 술어의 분류보다 더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주어 중심 감정 용언은 의미상 경험주 논항을 가지고 경험주의 내면을 표현하지만, 인칭 제약이 나타나지 않아 심리·감각형용사와 함께 주관 술어 부류로 묶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자 중심/주어 중심'으로 감정 용언을 세분화한 유현경(2018)의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의 항목에 대하여 유현경(2018)은 심리형용사, 심리자동사, '-어지다'류 동사를 들었다. 심리형용사, 심리자동사의 경우 '-어 하다' 동사의 대응이 있다고 하였는데, 말뭉치 조사 결과 '-어 하-'의 선행요소로 (9)의 심리형용사와 (10)의 심리자동사가 확인되었다.[66][67]

---

66) 유현경(2018:48)은 '그리워지다, 슬퍼지다, 정떨어지다' 등의 '-어지다' 동사류는 '그리워져하다, 슬퍼져하다' 등과 같은 '-어 하-' 대응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정나미 떨어지다'가 '-어 하-'의 선행요소로 발견되었다.

ㄱ. 농민들은 자기들이 어엿한 자작농이 되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않고, 소작인 시절에 지주한테도 간섭받지 않았던 논두렁의 콩을 세는 것에 정나미 떨어져 하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떨어지다'는 엄밀히 의미상 '-어지다'를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어휘화된 단위이다. '-어지다'가 분석되는 '그리워지다, 싶어지다' 등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떨어지다'를 '-어지다' 동사류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9) 좋다(좋아하다), -고 싶다(-고 싶어하다), 싫다(싫어하다), 기쁘다(기뻐하다), 두렵다(두려워하다), 밉다(미워하다), 그립다(그리워하다), 괴롭다(괴로워하다), 슬프다(슬퍼하다), 무섭다(무서워하다), 궁금하다(궁금해하다), 힘들다(힘들어하다), 즐겁다(즐거워하다), 의아하다(의아해하다), 부럽다(부러워하다), 불안하다(불안해하다), 미안하다(미안해하다), 부끄럽다(부끄러워하다), 반갑다(반가워하다), 고맙다(고마워하다), 아쉽다(아쉬워하다), 안타깝다(안타까워하다), 어리둥절하다(어리둥절해하다), 행복하다(행복해하다), 귀엽다(귀여워하다), 놀랍다(놀라워하다), 재미있다(재미있어하다), 초조하다(초조해하다), 서운하다(서운해하다), 못마땅하다(못마땅해하다), 예쁘다(예뻐하다), 어렵다(어려워하다), 어이(가) 없다(어이(가) 없어하다), 난감하다(난감해하다), 흡족하다(흡족해하다), 자랑스럽다(자랑스러워하다), 귀찮다(귀찮아하다), 신기하다(신기해하다), 정나미떨어지다(떨어져하다) …

(10) 겁나다(겁나하다), 거슬리다(거슬려하다), 물리다(물려하다), 마음(에) 들다(들어하다), 내키다(내켜하다), 신나다(신나하다), 마음에 걸리다(걸려하다), 헷갈리다(헷갈려하다), 설레다(설레어하다/설레하다), {기운,넋,얼,힘,맥}이 빠지다(빠져하다), 열받다(열받아하다), 소름끼치다(소름끼쳐하다), {마음/자존심/기분} 상하다(상해 하다), {약/열}오르다(올라 하다), 정나미떨어지다(떨어져하다), 애타다(애타하다), 졸리다(졸려하다), 사무치다(사무쳐하다), 신경(이) 쓰이다(쓰여하다), 분통터지다(분통터져하다), 속(이)상하다(속을 상해 하다), 근질근질하다(근질근질해하다), 탐나다(탐나하다), 마음 달다(달아하다), (비위가) 상하다(상해 하다), 신경질나다(신경질나하다), 신바람나다(신바람나하다), 땡기다(땡겨하다)[68], (뒤가) 켕기다(켕겨하다), 북받치다(북받쳐하다) …

(9)에는 '좋다, 예쁘다, 귀엽다' 등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이 있는데, '-어 하-'의 선행요소로 온 경우는 모두 경험주가 존재하여, 경험주의 주관적인 내면을 나타내는 단의로 파악되었다.[69]

---

(9)의 심리자동사 부류에 함께 제시하였다.

67) (9, 10)은 확인된 전체 목록은 아니며, 고빈도로 나타난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68) 말뭉치에서는 '땡기다(땡겨하다)'가 나타났는데 이는 '구미가 당기다'의 구어 발화다.

69) 특히 '좋다, 예쁘다, 귀엽다'는 주관성의 정도에 따라 지시하는 의미도 변별된다. 예컨대 '좋다'는 호감, 쾌감 등 감정 의미('like')에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대상의 속

(10)에 나타난 심리자동사 부류도 경험주의 주관적 내면을 나타내지만, 현재시제에서 동사의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9)의 심리형용사 부류와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동사 어미 '-는다', '-는'을 취할 수 있는 점 이외에는 심리형용사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유현경 2000, 2004, 2018).

첫째, 현재시제에서 화자가 경험주 주어로 올 것이 요구된다. (11ㄱ, ㄴ)과 달리 화자가 주어가 아닌 (11ㄱ′,ㄴ′)은 화자가 주어 '철수'의 내면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대신 서술한다는 맥락 없이는 매우 어색하다. '-어하-'가 통합한 (11ㄱ″,ㄴ″)이 더 자연스럽다.

(11) ㄱ. 나는 밤에 나다니기가 겁난다.
ㄱ′. ?철수는 밤에 나다니기가 겁난다.
ㄱ″. 철수는 밤에 나다니기를 겁나한다.
ㄴ. 난 너의 그런 태도가 좀 거슬린다.
ㄴ′. ?철수는 너의 그런 태도가 좀 거슬린다.
ㄴ″. 철수는 너의 그런 태도를 좀 거슬려한다.

둘째, 이들은 현재시제에서 동사 활용 양상을 보이지만, 명령형이 어색하고 진행상 표현도 어색하다는 점에서 형용사에 가깝다.

(12) ㄱ. ?사소한 일에 겁나지 마라. / ?사소한 일에 겁나고 있다.
ㄱ′. 사소한 일에 {겁내지,겁나하지} 마라.
사소한 일에 {겁내고,겁나하고} 있다.
ㄴ. ?입바른 소리에 거슬리지 마라. / ?입바른 소리에 거슬리고 있다.
ㄴ′. 입바른 소리에 거슬려하지 마라. / 입바른 소리에 거슬려하고 있다.

두 특징은 유현경(2018)이 지적하였던 화자 중심 감정 용언의 '주관성',

성에 대한 평가 의미('good')에서 객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ㄱ. 나는 홍삼이 좋아.(↔싫어)
ㄴ. 태양인에겐 홍삼이 안 맞아. 소음인인 나{는/에게는} 홍삼이 좋아.(↔나빠)
반의어 관계를 통해서도 이들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은 화자가 홍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ㄴ은 화자에게 홍삼을 먹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쁘다, 귀엽다'도 마찬가지로 구별된다. 주관적 의미라면 대상의 외양과 관계없이 좋아한다는 감정 의미로 해석되지만, 주관성이 낮다면 대상의 생김새만을 평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3)의 목록에서 이들을 제시한 것은 주관성이 개입한 감정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비의도성’의 특징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여 (9, 10)을 아울러 화자 중심 감정 용언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다. 요컨대 (9, 10)의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은 보통 화자가 감정 주체가 되지만, 말뭉치에서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났을 때는 화자가 아닌 3인칭 주어도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는 (13)에서 확인된다. 각 문장의 감정 주체를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13)ㄱ. 보위부대원들은 서운해하지만, 그를 맞는 **제1연대 대원들은** 아주 좋아한다.
ㄴ. 시언네 반 여학생들은 이 학교의 꽃이다. **상급생들**도 귀여워해 주었고 **선생님들**도 모두 예뻐한다.
ㄴ. **어떤 부인들은**, 그것이 다만 새로 나온 물건이라는 까닭만으로도 마음에 들어한다.
ㄹ.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명은**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듯 통통 뛰며 신나한다.

3.1.1.2.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

‘-어 하-’의 선행요소로 외부 자극에 대하여 경험주가 느낀 신체감각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발견되었다.[70] 그 목록은 (14)와 같다.

(14)ㄱ. 피곤하다(피곤해하다), 목마르다(목말라하다), 배고프다(배고파하다), 배부르다(배불러하다), 배아프다(배아파하다), 출출하다(출출해하다), 시장하다(시장해하다), 뜨끔하다(뜨끔해하다), 시리다(시려하다), 시렵다(시려워하다), 짜릿하다(짜릿해하다), 따갑다(따가워하다), 따끔하다(따끔해하다), 간지럽다(간지러워하다), 춥다(추워하다), 덥다(더워하다), 오싹하다(오싹해하다), 어지럽다(어지러워하다), 가뿐하다(가뿐해하다)…
ㄴ. 시원하다(시원해하다), 따뜻하다(따뜻해하다), 뜨겁다(뜨거워하다), 서늘하다(서늘해하다), 메스껍다(메스꺼워하다), 맛있다(맛있어하다), 달다(달아하다), 얼얼하다(얼얼해하다), 느끼하다(느끼해하다), 가볍다(가벼워하다), 시끄럽다(시끄러워하다), 눈부시다(눈부셔하다), 아득하다(아득해하다), 적막하다(적막해하다), 축축하다(축축해하다) …

70) ‘감각’은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의 수용 기관에서 인식된 양상(송정근 2007:20)’으로 정의된다. 수용 기관을 반영하여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등으로 분류된다.

(14)는 신체감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 현재시제에서 화자 경험주를 요구한다. 다만 일부 논의에서 (14ㄴ)은 신체감각의 의미 외에 대상의 속성을 가리킬 때도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감각형용사와 구별되기도 했다.[71]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한 표현이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은 자연스럽다. 본고는 (14ㄴ)이 자극에 대한 신체감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 (14ㄱ)처럼 특정한 경험주가 상정되며 현재시제에서 1인칭 화자가 선호된다는 점에서 (14ㄱ)과 함께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으로 묶고자 한다. (14ㄱ, ㄴ)의 인칭 제약 현상은 (15), (16)에서 확인된다.

(15) ㄱ. 나는 피곤하다. / 그 사람이 피곤해하다
ㄴ. 그 사람이 피곤하다. (오미나 2013:254)
(16) ㄱ. 설탕이 달다.
ㄴ. {나는/*너는/*그는} 이 다방의 커피가 달다.
ㄷ. 철수는 이 다방의 커피를 달아한다. (송정근 2007:27)

(15)의 '피곤하-'는 (14ㄱ)에 속한다. 3인칭 주어가 온 (15ㄴ)의 경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부류가 지닌 높은 주관성으로 인해 감각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1인칭 화자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담화상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정확하게 교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오미나 2013:254). 화자가 아닌 이의 감각을 나타내려면 '-어 하-' 구성의 대응이 필요하다.

'달-'은 (14ㄴ)에 속한다. (16ㄱ)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나, 적어도 (16ㄴ)에서는 경험주의 신체감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송정근(2007:27)은 적어도 (16ㄴ)에서는 '달-'도 경험주가 상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1인칭 화자만이 가능한 것이 드러난다. '피곤

71) 유현경(1998, 2000)은 둘째 명사구가 특정 감각 상태의 신체 부위로 나타나 주격 중출구문을 이루는 부류를 '감각형용사'로 보았다. (13ㄱ)이 유현경(1998, 2000)의 '감각형용사'에 해당한다. 이는 첫째명사구에 경험주 의미역이 할당되므로 주관 술어에 해당한다. 반면 (13ㄴ)은 대상 주어의 속성을 서술하는 '성상형용사'로 객관술어에 속한다고 보았다. 유현경(1998)의 논의는 형용사 체계를 격틀이라는 통사적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똑같이 경험주 의미역을 갖더라도 구체적인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미적 특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 '달-' 모두 3인칭 경험주를 나타내려면 '-어 하-' 구성의 대응이 필요하다(15, 16에서 밑줄로 표시된 문장 참조).

요컨대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난 감각 의미 중 현재시제에서 인칭 제약이 나타나는 부류를 묶어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 관련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연구에서 '감각 용언'은 감각기관에 따라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으로 분류된다. 색채, 명암, 크기, 모양, 재질, 온도, 습도 등의 다양한 하위 유형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4)에는 시각과 관련된 감각 경험이 없다. 대부분 촉각, 미각·후각, 청각 관련의 경험이다.[72]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7) ㄱ. **[촉각]** 아프다, 고통스럽다, 불편하다, 목마르다, 춥다, 배고프다, 시원하다, 어지럽다, 숨가쁘다, 덥다, 뜨끔하다, 배아프다, 뜨겁다, 시리다, 가볍다, 간지럽다, 시장하다, 따뜻하다, 오싹하다, 배부르다, 짜릿하다, 서늘하다, 출출하다, 가뿐하다, 따끔하다, 시렵다, 가깝다…

ㄴ. **[미각]** 맛있다, 메스껍다, 맵다, 달콤하다, 얼얼하다, 느끼하다 …

ㄷ. **[청각]** 시끄럽다, 적막하다 …

ㄹ. **[복합]** 메스껍다(미각, 촉각), 맵다(미각, 촉각), 얼얼하다(미각, 촉각), 눈부시다(촉각, 시각), 아득하다(시각, 청각)[73] …

(17ㄹ)의 '눈부시다, 아득하다'는 의미상 시각과도 관련될 수 있으나, '-어 하-' 통합 용례에서는 심리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 ㄱ. 어쨌거나, 그 남자는 사람들이 <u>눈부셔하</u>는 어떤 위치에 오른 다음 아가씨한테 청혼을 하리라고 여겨지옵니다. (심리)

ㄴ. 당신과 나는 세상의 모든 촉탁으로부터 멀어진 채 잠시 <u>아득해하</u>고 있

---

72) 미각과 후각은 인식의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형태적으로도 동일한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묶어서 제시하였다(송정근 2007:187).

73) '눈부시다'를 시각과 촉각의 복합으로 제시한 것은 '눈부시다'의 여러 단의 중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는 단의에 대한 설명이다. 눈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촉각 경험으로도 이해된다. '아득하다'를 시각, 청각의 복합으로 제시한 것은 '아득하다'의 여러 단의 중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다'에 대한 것이다.

었습니다. (심리)

(18ㄱ)의 '눈부시-'는 '빛이 강하여 밝다'는 시각 경험의 의미보다 '부러워하는, 찬탄하는' 정도의 심리 의미가 드러난다. (18ㄴ)의 '아득하-'도 '보이는 것이 희미하고 멀다'는 의미에서 '까마득히 오래되었다'고 느끼는 심리 의미로 확장되었다.

시각 감각 표현이 '-어 하-'의 선행요소에 배제된 것은 다른 감각에 비하여 더 객관적인 판단에 속하기 때문이다(정연주 2010:309).[74]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은 객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 감각에 해당하는 색채, 명암 등의 의미는 비교적 절대적인 경계가 있다. 다른 감각 경험에 비하여 경험주의 내적 상태와 관련이 매우 적은 것이다. 따라서 시각 관련의 감각 경험은, 주관성이 높은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한편 '-어 하-'와의 통합 용례를 살폈을 때, (18)처럼 감각 의미에서 심리 의미로의 확장은 시각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 상당수에서 확인된다. 다음 (19ㄱ, ㄴ, ㄷ, ㄹ)에서 '목말라하다, 시원해하다, 무거워하다, 얼얼해하다'는 3인칭 경험주 주어의 촉각적 경험에 의해 판단되는 내용임을 나타내지만, (19ㄱ′, ㄴ′ ㄷ′, ㄹ′)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경험주의 심리를 나타낸다. 이는 감정과 감각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19) ㄱ. 해는 벌써 중천에 떠있고 젓나무 정원수가 드리운 그늘에는 들국화 몇 송이가 가을 햇빛에 목말라하고 있다.
ㄱ′. 라라는 그의 존재의 침묵과 영혼의 향기를 목말라하고 또 목말라했다.
ㄴ. 샤워를 하고 나오며 그는 새삼스러울 정도로 시원해했다.
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빨리 떠나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74) 정연주(2010:309)는 시각적 경험의 객관성에 대한 증거로 Berlin & Kay(1969)의 색채어 연구를 들었다. 초점색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발달 경로는 개별 언어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것이고 시각적 능력이라는 비언어학적 지각 요인이 동기로 작용하여,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논의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시각적 경험을 통해 판단되는 속성인 '흥건하다'는 '-어 하-' 통합이 불가능한 반면, 촉각적 경험을 통해 판단되는 속성인 '축축하다'는 '-어 하-' 통합이 가능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시각적 경험과 관련된 속성을 가리키는 예시로 색채형용사와 '가늘다, 뚱뚱하다, 말끔하다, 그득하다, 자욱하다' 등을 추가로 더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본고의 말뭉치 조사 결과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떠나버리면 '미친 개 범 물어간 것 같다'고 시원해 한다.

ㄷ. 연주가 무거워하자 다시 8파운드 공을 건네면서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 넣어 보라고 했다.

ㄷ′. 혜진 엄마도 이참에 꽤 심각한 지경의 문제가 생겨 혼자 끙끙 그 고난을 무거워하는 중인 것 같다.

ㄹ. 마라샹궈는 얼얼해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게, 중독성이 있어.

ㄹ′. 이태준의 월북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정지용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해했다.

3.1.2. 주관성이 낮은 부류

3.1.1.에서는 '-어 하-'의 선행요소 중 현재시제에서 화자 경험주를 요구하여 주관성이 높은 감정·감각 의미 부류를 살폈다. 3.1.2.에서는 현재시제에서 화자 경험주를 요구하지 않아 주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부류를 다룰 것이다. 3.1.1.은 화자의 감정·감각 등 내적 경험을 의미했다면, 3.1.2.는 보다 다양한 의미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주어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3.1.2.1.),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3.1.2.2.), 동작 동사(3.1.2.3.), '-어하다' 동사(3.1.2.4.)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목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3.1.2.1. 주어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

감정·감각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는 현재시제라도 주어가 꼭 화자일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유현경(2018:39-43)은 이를 '주어 중심의 감정 용언'으로 분류하고, 구체적 유형으로 '-어하다' 동사류, '사랑하다'류를 제시하였다.[75] 주어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은 화자 중심 감정·감각 용언과 비교하였을 때, 1인칭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도 외현적인 행동으로도 확인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유현경 2018:51). 이는 화자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이 내면 상태만을 나타내어 즉각적인 감정·감각은 타인이 알기 어

75) 3.1.1.에서 3인칭 주어의 감정·감각 표현은 '-어 하-' 구성의 대응에서 가능하였으므로 '-어하다' 동사류는 주어 중심의 감정 용언이 된다.

려웠던 것과 대조된다.

말뭉치 조사 결과 '-어 하-'의 선행용언으로 나타난 '주어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에 해당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용구에 가까운 구성도 함께 제시하였다.[76]

(20) 겁먹다(겁먹어하다), 탐내다(탐내하다), 어쩔줄 모르다(어쩔 줄 몰라하다), 당황하다(당황해하다), 꺼리다(꺼려하다), 못 견디다(못 견뎌하다), 당혹하다(당혹해하다), 만족하다(만족해하다), 즐기다(즐겨하다), 놀라다(놀라하다), 못 참다(못 참아하다), (숨)가쁘다(가빠하다), 못 이기다(못 이겨하다), 못 믿다(못 믿어하다), 겁내다(겁내하다), 상심하다(상심해하다),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못해하다), 안도하다(안도해하다), 감읍하다(감읍해하다), 망연자실하다(망연자실해하다), 떨리다(떨려하다), 못 잊다(못 잊어하다), 잠 못 들다(잠 못 들어하다), 지치다(지쳐하다), 감탄하다(감탄해하다), 발끈하다(발끈해하다),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해하다), 감격하다(감격해하다), 힘(에)부치다(부쳐하다), 통탄하다(통탄해하다), 낭패하다(낭패해하다), 자족하다(자족해하다), 득의만만하다(득의만만해하다), 주눅들다(주눅들어하다), 경탄하다(경탄해하다), 실망하다(실망해하다), 낙담하다(낙담해하다), 흥감하다(흥감해하다), 안심하다(안심해하다), 분개하다(분개해하다), 비탄하다(비탄해하다), 놀래다(놀래하다), 기죽다(기죽어하다), 마음이 있다(있어하다), 분노하다(분노해하다), 걱정하다(걱정해하다), 감동하다(감동해하다), 한탄하다(한탄해하다), 긴장하다(긴장해하다), 고통/상처/감명 받다(받아하다), 죽고 못살다(죽고 못살아하다), 취향에 맞다(맞아하다), 노하다(노해 하다), 대경하다(대경해하다), 통한하다, 흠칫하다, 노심초사하다(노심초사해하다), 모자라다(모자라해하다), 기겁하다(기겁해하다), 환장하다(환장해하다), (심각하게)생각하다, 우왕좌왕하다(우왕좌왕해하다), 불만족하다(불만족해하다), 열광하다(열광해하다), 양양자득하다(양양자득해하다), 쭈뼛쭈뼛하다(쭈뼛쭈뼛해하다), 염려하다(염려해하다), 질색하다(질색해하다), 혹하다(혹해하다), 갈팡질팡하다(갈팡질팡해하다), 아연실색하다

76) 한편 제시된 '-어 하-'에 선행하는 주어 중심의 감정 용언 가운데는, 부정부사 '못'의 수식을 받는 구 구성도 있다. '못 믿다, 못 잊다, 못 참다, 못 견디다' 등이 있다. 이 중 '못 믿다, 못 잊다'는 인지·사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는데, '믿다, 잊다'가 인지·사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이뤄지는 반면 '못 믿다, 못 잊다'는 주어가 무엇인가를 '믿거나 잊지 못하는' 심리상태와 외현적 행동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예문) "막리지 전하, 요동성으로 나가지 않으니 군사들이 전하를 못 믿어하고 있습니다."

(아연실색해하다), 비분강개하다(비분강개해하다), 방심하다(방심해하다), 좀이 쑤시다(쑤셔하다), 시달리다(시달려하다), 짜증내다(짜증내하다), 치를 떨다(떨어하다), 못잡아먹다(못잡아먹어하다), 못알아듣다(못알아들어하다), 정신이 들다(들어하다), 숨차다(숨차하다), 좋아하다(좋아해하다), 아파하다(아파해하다), 귀찮아하다(귀찮아해하다) …

(20)은 내면 상태와 함께 그것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을 표출하는 것까지 나타낸다. 즉, 주어의 감정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명령형이나 진행상 표현에도 단독으로 자유롭게 쓰인다는 점에서 행동 의미까지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21)의 '겁먹다, 탐내다'는 '-지 말-', '-아라', '-고 있-'과 어울릴 수 있다. 비슷한 의미의 화자 중심 감정 용언 '겁나다, 탐나다'의 경우 (22)와는 비교된다.

(21) ㄱ. 사소한 일에 겁먹지 마라. 혼날까봐 겁먹고 있더라.
ㄴ. 자리보다는 역량을 탐내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철수가 너의 금목걸이를 탐내고 있다.
(22) ㄱ. ?사소한 일에 겁나지 마라. ?혼날까봐 겁나고 있더라.
ㄴ. ?자리보다는 역량을 탐나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나지 마라.
?철수가 너의 금목걸이를 탐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주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시제에서 주어가 화자로 제약되지도 않는다.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이 주어가 화자가 아닐 때 '-어 하-' 구성의 대응이 필수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주어 중심의 감정 용언은 '-어 하-' 구성이 없는 경우, 통합한 경우 모두 자연스럽다.

(23) ㄱ.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겁먹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ㄱ′.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겁먹는 것 같기도 했다.
ㄴ. 이 때문에 대권을 노리는 후보라면 누구나 종로를 탐내 한다.
ㄴ′. 때문에 대권을 노리는 후보라면 누구나 종로를 탐낸다.

그러나 모든 주어 중심의 심리동사가 '-어 하-'와의 통합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유현경(2018)에서 주어 중심의 감정용언으로 제시된 '사랑하다'류, 'X+내다(겁내다, 화내다, 성내다…)'류, '-어하다' 동사류 가운데 '사랑하다'

는 (10ㄴ)의 '탐내다'와 같이 대상 목적어에 대한 주어의 심리와 관련된 표현으로 유사한 듯하지만, '탐내 하다'는 용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반면 '사랑해 하다'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 'X+내다'류 가운데서도 '겁내 하다, 탐내 하다' 등이 많이 발견되는 반면 '화내 하다'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어하다' 동사류 또한 일부만이 발견된다.

즉,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은 개별 어휘에 따라서 '-어 하-'의 통합 여부가 다르다. 이는 '-어 하-'의 선행요소 가운데 화자 중심 감정·감각 용언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3.1.2.2.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어 하-'의 선행요소 가운데 유정물 혹은 유정물과 관련된 주어의 성격·태도를 묘사하는 유형도 있었다.[77] 이들을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로 묶어 살펴보겠다.

(24) 자신만만하다(자신만만해하다), 겸손하다(겸손해하다), 시큰둥하다(시큰둥해하다), 유쾌하다(유쾌해하다), 시무룩하다(시무룩해하다), 심드렁하다(심드렁해하다), 태연하다(태연해하다), 느긋하다(느긋해하다), 바쁘다(바빠하다), 담담하다(담담해하다), 숙연하다(숙연해하다), 성급하다(성급해하다), 예민하다(예민해하다), 당당하다(당당해하다), 위태롭다(위태로워하다), 인색하다(인색해하다), 초연하다(초연해하다), 분주하다(분주해하다), 우물쭈물하다(우물쭈물해하다), 의연하다(의연해하다), 처량하다(처량해하다), 데면데면하다(데면데면해하다), 무심하다(무심해하다), 어벙하다(어벙해하다), 염치없다(염치없어하다), 진지하다(진지해하다), 천연하다(천연해하다), 탐욕스럽다(탐욕스러워하다), 거만하다(거만해하다), 공손하다(공손해하다), 과민하다(과민해하다), 교만하다(교만해하다), 까탈스럽다(까탈스러워하다), 둔감하다(둔감해하다), 만면하다(만면해하다), 맨송맨송하다(맨송맨송해하다), 멀뚱하다(멀뚱해하다), 멀쑥하다(멀쑥해하다), 멍청하다(멍청해하다), 무기력하다(무기력해하다), 살뜰하다(살뜰해하다), 소심하다(소심해하다),

---

77) '유정물과 관련된 주어'를 덧붙인 것은, 유정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면서 표면적인 주어가 '말투, 표정, 자세' 등의 무정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아래 예문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은 유정물의 성격·태도에 해당한다.
(예문) 말하는 투가 자신만만하다.

신령스럽다(신령스러워하다), 신중하다(신중해하다), 심약하다(심약해하다), 씩씩하다(씩씩해하다), 안달하다(안달해하다), 어눌하다(어눌해하다), 어른스럽다(어른스러워하다), 어리버리하다(어리버리해하다), 어설프다(어설퍼하다), 어수선하다(어수선해하다), 어정쩡하다(어정쩡해하다), 어줍다(어줍어하다), 엄숙하다(엄숙해하다), 여유만만하다(여유만만해하다), 의기양양하다(의기양양해하다), 정숙하다(정숙해하다), 처연하다(처연해하다), 태연자약하다(태연자약해하다), 하릴없다(하릴없어하다), 야무지다(야무져하다), 침착하다(침착해하다) …

(24)의 성격·태도 의미는 대상의 속성 및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현경(1998:33)의 '객관형용사'에 해당한다. 유현경(1998:33)은 주어가 경험주 의미역을 갖는 '주관형용사'와 달리, 객관형용사의 주어는 대상역이나 처소역의 의미역을 갖는다고 하였다. (25)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자.

(25) 찬우는 모든 일에 항상 신중하다.

(25)은 주어가 '신중한 상태'를 마음속으로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가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경험주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가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성격·태도 의미는 화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과 구분되며, 화자의 관점과 관계없이 대상이 존재하므로 어휘 의미상 주관성이 낮다. 단독으로 명령형, 진행상 표현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외현적인 행동과 관련된다.[78]

---

78) (예문 1)과 같이 형용사 자체만으로 명령형이 가능하다는 점은,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의 의미 자체가 '행태적 표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상태의 정도를 노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보여준다(정연주 2010:314).

(예문 1) 소심하지 말자. /신중하자.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자. /침착하자.
(정연주 2010:313)

그런데 (예문 2)처럼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난 성격·태도 의미 객관형용사 부류 가운데 일부는 명령·청유형이 어색하다는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

(예문 2) ?그런 일에 심약하지 말자./ ?작은 일에 까탈스럽지 말자/ ?어설프지 말아라./ ?매사에 좀 살뜰해라./ ?처량하지 말아라./ ?어정쩡하지 말아라.

이들은 명령·청유형은 어색하지만, 성격·태도 의미 자체가 대상의 행태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의미 자체에 행동성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2)가 자연스럽다고 보는 화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행태적 표출'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화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나타낸다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을 떠올리면, 대상의 성격·태도 표현에도 화자의 주관성이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 유현경(2018:56, 각주 12)에서도 객관형용사 가운데서도 '짧다', '길다' 등 상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형용사보다 '있다', '없다' 등의 절대적 개념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더 객관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하며, 주관성/객관성은 정도성의 문제라고 하였다. 성격·태도 의미의 '신중하다, 겸손하다' 등은 상대적인 개념에 가까우며, 따라서 주관성이 약하게나마 개입될 여지가 있다.[79]

특히 맥락에 따라 화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가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해서 서술자(화자)가 사유하거나 관찰하는 맥락이 먼저 드러났다면, 뒤에 나타난 성격·태도 묘사는 특별히 서술자(화자)가 판단한 내용으로 해석 가능하다. 가령 (26ㄱ)의 '계집종들'의 성격 묘사는 선행 맥락을 통해 '제마'가 '곱씹어보는' 행위의 결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6ㄴ)의 '재삼 형'에 대한 묘사는 화자인 '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밑줄은 각각 서술자 '제마', '나'의 주관이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ㄱ. 제마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나름대로의 여성론을 곱씹어보고 있었다. 계집종들은 다들 <u>겸손했다</u>. (cf. 겸손해했다.)
ㄴ. 내가 재삼 형을 좋아한 것은 그가 만년소년이라는 데 있다. 도무지 나이가 들 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지만 점잔을 핀다거나 어깨가 으쓱해진다거나 에헴! 하고 <u>어른스러운</u> 데가 없다. (cf. 어른스러워하는)

한편 (26)의 각 밑줄에 '-어 하-'가 통합한 '겸손해했다, 어른스러워하는'이 나타나도 의미 전달이 자연스럽다.[80] 화자 중심의 감정 용언이 '-어 하-'가 통합함으로써 3인칭 주어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과 달리[81], (26)은 주어의 성격을 묘사한다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79) 정연주(2010:311, 각주 8)에서도 '주관성'은 정도성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감각 경험 관련 객관형용사에 잠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한 바 있다.
80) 예문 (26)은 원래 말뭉치에서 '-어 하-'가 통합한 형태로 나타났던 문장을, 본고에서 '-어 하-'를 제거한 것이다.
81) 예문 (15)로 제시한 것처럼, 화자 중심 감정 용언의 경우 '그는 피곤해한다'는 '그'가 경험주로서 피곤함을 느낀다는 의미인 반면, '그는 피곤하다'는 '그'가 화자를 피곤

‘-어 하-’가 결합하였다고 주어가 특정한 성격의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부류가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연주(2010:312)는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이 적은 (27)의 목록은 ‘-어 하-’와 통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7) 관대하다, 너그럽다, 차분하다, 호쾌하다, 깍듯하다, 거룩하다, 건강하다, 검소하다, 정직하다, 민첩하다, 현명하다, 친절하다 등 [‘-어 하-’ 통합이 어색함] (정연주 2010:312)

그는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성’은 ‘어떤 행위의 주어가 심리적으로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가령 ‘철수가 친절하다’는 “주어(철수)의 심리적 양상이 어떠하든, 친절한 행동이 외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성실하다’의 주어는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성이 적어 “경험주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어 하-’ 통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정연주 2010:315).

반대로, ‘-어 하-’ 통합이 가능한 ‘겸손하다, 신중하다’ 등의 행동은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 관련되어 주어가 경험주성을 띤다고 보게 된다. 이는 이 부류가 객관형용사에 속한다고 본 것과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다.[82] 객관형용사는 경험주 논항이 상정되지 않는 형용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정연주(2010:315)는 “이들이 ‘-어 하-’와 통합하면 모두 주어의 심리적 양상을 지시”한다고 하였는데, 다음 예문은 반례가 된다.

(28) 나 겉은 눔헌티넌 택이 과만헌 자리제라." 천점바구가 못내 쑥스러워하고 <u>겸손해하며</u> 대원들에게 밝힌 소감이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염상진 대장님, 지럴 잠 보시씨요. 지가 요러크름 대대장이 되구만이라.

(28)에서 주어 ‘천점바구’는 겸손한 행동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겸

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어 하-’의 통합으로 의미가 달라진다(오미나 2013:254).

82) 정연주(2010:298)는 형용사 유형 분류는 유현경(1998)을 따랐다고 밝혔는데, ‘겸손하다, 신중하다’ 등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류’로 객관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정연주 2010:301-2). 한편 객관형용사는 경험주를 갖지 않는다.

손과는 거리가 먼 것이 후행하는 맥락에서 드러난다. '겸손하-'가 '-어 하-'와 통합하였지만, 주어의 심리적 양상을 지시하지는 않아 관련성이 떨어진다. '겸손해하-'의 주어는 행위주일 수는 있지만 경험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 하-'가 통합 가능한 '겸손하다, 신중하다' 등과 '-어 하-' 통합이 제약되는 '친절하다, 관대하다' 등의 차이를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성'으로 제시하기도 어렵다.

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부류 또한 개별 어휘에 따라서 '-어 하-'의 통합 가능 여부는 다르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따라서 주관성이 높은 부류인 화자 중심의 감정·감각 용언과 구별된다.

3.1.2.3. 일부 동작 동사

'-어 하-'의 선행요소 중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부류도 발견된다. 이들은 주로 주어의 구체적인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다. 주어의 신체 동작은 모두에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정도는 적다.

(29) 으쓱하다(으쓱해하다), 움찔하다(움찔해하다), 자세/말씨를 고치다(고쳐하다), 주춤하다(주춤해하다), 흔들다(흔들어하다), 칭송하다(칭송해하다), 멈칫하다(멈칫해하다), 떠들다(떠들어하다), 언급하지 않다(않아하다) …

이들은 대체로 3건 이하의 낮은 빈도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이 확장된 분포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말뭉치에서 이들이 '-어 하-'와 결합한 용례들을 살폈을 때, 태도를 보이는 행위,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1)은 (30)의 동작 동사 부류가 '-어 하-'를 취하지 않더라도 매우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30) ㄱ. 그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를 으쓱해하는 성질이 있어.
ㄴ. 그녀가 놀라 움찔해했지만 굳이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ㄷ. 그리고는 이번엔 책상 앞에 자세를 고쳐 하고 앉아서 생각했다.
ㄹ. 서슬에 주춤해하는 적의 전열을 뚫고 다시금 고지로 복귀했다.

ㅁ. 산영이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연화도 연수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할 수도 없었다.

(31) ㄱ. 그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를 으쓱하는 성질이 있어.

ㄴ. 그녀가 놀라 움찔했지만 굳이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ㄷ. 그리고는 이번엔 책상 앞에 자세를 고치고 앉아서 생각했다.

ㄹ. 서슬에 주춤하는 적의 전열을 뚫고 다시금 고지로 복귀했다.

ㅁ. 산영이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연화도 연수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동작 동사 부류의 모든 경우가 '-어 하-'의 통합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예컨대 '먹다, 가다, 달리다' 등은 '-어 하-'의 통합이 어색하다. '-어 하-'의 선행요소로 동작 동사 부류가 확인되는 것은, 어휘 개별적 성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또 반드시 '-어 하-'가 요구되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구별된다.

3.2. 선행요소 목록의 확장 가능성

3.2.1. 예외적 통합 양상과 확장 가능성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 하-'의 선행요소는 크게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낮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주관성이 높은 부류는 현재시제에서 화자가 주어로 와야 했는데, 3인칭 주어가 오려면 '-어 하-'가 통합해야 했다. 구체적인 목록을 3.1.1.에서 제시하였다.

반면 주관성이 낮은 부류는 주어에 꼭 화자가 오지 않아도 괜찮으며, 따라서 3인칭 주어가 와도 '-어 하-'가 통합할 필요는 없었다. 주관성이 낮은 부류 가운데 일부 어휘들은 '-어 하-'가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어휘의 구체적 목록을 3.1.2.에서 제시하였다. 3.1.2.의 항목은 해당 부류의 전체 항목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 어휘들에 한정된다. 또 3.1.2.의 항목수와 용례 빈도수는, 3.1.1.에 비교하여 매우 적고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성이 높은 부류(3.1.1.)가 '-어 하-' 통합의 기본 양상이고, 주관성이 낮은 부류(3.1.2.)가 예외적 통합 양상을 거쳐 확장된 분포라고 제시해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연주(2010:312-3)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인성을 나타내는 객관형용사는 [주관형용사+'-어 하-'] 구성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면서 '-어 하-'의 통합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83]. '-어 하-'의 선행요소를 다룬 기존 논의 흐름 또한 선행요소의 유형이 점차 확장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논의 초기 70년대에는 심리·감각 형용사만이 주목되었으나, 점차 동사, 객관형용사 부류 등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단순히 논의가 심화되는 과정일 수 있으나, 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뤄진 논의들에서 점진적으로 확인된, 진행 중 변화일 수도 있다. 본고의 말뭉치 조사 결과 순수한 신체 동작 동사까지도 새롭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어 하-'의 선행요소 목록이 더 추가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사용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말뭉치 외에도 웹 검색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선행요소들이 발견되었다.[84] 이들은 3.1.의 유형으로 묶기 어려웠던 부류들이므로, 3.2.의

---

83) 점차 확장 중에 있다는 근거로, 현재 어색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관형용사+'-어 하-']와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인식된다면 일부 화자들은 문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낀다는 직관조사 결과를 들었다. 아래 (ㄱ), (ㄴ)은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도가 낮다는 점에서 '겸손하다'류와 달리 '-어 하-' 통합이 제약된다고 했다.

(ㄱ) 관대하다, 너그럽다, 차분하다, 호쾌하다,

(ㄴ) 정직하다, 검소하다, 친절하다'

그러나 (ㄱ)은 (ㄴ)에 비해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제 직관 조사 결과 [(ㄱ)+'-어 하-'] 구성의 자연스러움 정도가 [(ㄴ)+'-어 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 관련도가 높을수록 '-어 하-' 통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정연주 2010:312-3). 이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나, '주어의 심리적 양상과의 관련도'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성격 묘사의 객관형용사 부류 외에도 동작, 인지·사유 등 다양한 의미유형의 어휘에서 예외적 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84) 이러한 예문들에 대한 직관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웹 검색을 통해 발견한 예문들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완전히 정규적인 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인 통합 양상이 비록 웹 검색을 통해 발견되었더라도, '-어 하-' 통합형을 검색어로 입력하였을 때 그 용례를 300건 이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면 일부 화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보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문에서 제시된 웹 검색 예문들은 적어도 300건 이상의 용례를 보였던 표현들에 해당한다.

예외적 통합 양상으로 언급해두고자 한다.

첫째, '보-'에 '-어 하-'가 결합하여 '보아하니'의 관용 구성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32) ㄱ. 복색을 보아하니 아까 시위 때 학생들을 포위하고 있던 어린 경찰들이었다.
ㄴ. 가만히 살펴보아 하니 아까 그 새내기의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피붙이들이다.
ㄷ. 보아하니, 화성 사저를 만난 모양이군.

일반적으로 '-어 하-' 구성은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어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장경준 1998), '보아하니' 관용구를 만드는 데에는 그러한 음운론적 제약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32)의 '보아하니'를, 과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서술어 단위를 형성하는 '-어 하-' 구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음운론적 제약에서 예외가 된다는 점과 함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32ㄷ)과 같은 쓰임도 나타난다.[85] 의고적 어투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역사적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아하니'의 경우는, '보-'에 '-어 하-'가 통합한 구성이 어미 '-니'를 취한 구성으로부터 한 단어로 어휘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

둘째, '모르다'에 '-어 하-'가 결합한 구성도 발견되었다. 이는 '어쩔 줄 모르다, 몸 둘 바를 모르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구가 아니라, 구체적 대상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모르-'의 경우이다. 여기서의 '모르-'는 인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대상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감정과도 구분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관용 구성과 구별하였다. '몰라 하-'는 '보아하니'처럼 의고적 어투에서 발견된다. (33)은 조선 중기 기생 황진이의 시조 중 한 구절이다.

85) 이때 '-어 하-'를 제거한 '보니까'로 대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시각 기관을 통해 지각한다는 의미보다는 후행하는 문장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여, 의미가 표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담화 진행을 보조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획득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33)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현대국어에서도 '몰라하-'의 용례가 발견되었다. (34)은 의고적 어투가 아니어도 자연스럽다.

(34) 일요일 법회에 나올 때마다 입으로 외우긴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했던 학생들도, 한두 번 듣긴 했으나 그 뜻이 가물가물해 있던 학생들도 모두 기꺼워하는 반응들이었다.

셋째, '생각하다, 고민하다'와 같은 사고(思考)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에 '-어 하-'가 결합하는 경우도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사고는 감정, 감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의미적으로 구별되며, 통사적 특징도 다르게 나타난다.[86] 이들은 현재시제에서 화자가 주어여야 하는 제약이 없고, 기존 논의에서 '-어 하-'의 선행요소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체로 '-어 하-' 통합이 어색하다고 평가된다(35ㄴ).

(35)ㄱ.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 그는 한참 고민하는 중이다.
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해한다. ?그는 한참 고민해하는 중이다.

그런데 소설이나 신문 기사와 같은, 인물에 대한 관찰의 맥락 속에서 '-어 하-'의 통합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36)ㄱ. 스님이 사미승에게 집으로 갈 때 혹은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어린 사미승이 **곰곰이** 생각해 하더니 "집에 돌아가다가 못을 지나가는데 개미떼가 물에 갇혀 있기에 나무 잎사귀를 주어 개미떼를 언덕 위에 올려 주었지요"하고 까만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86) 김흥수(1993)는 감정·감각, 인지·사고 모두 내면과 관련된 의미라는 점에서 심리동사 부류로 묶었으나, 각각이 내면을 나타내는 통사적 방식을 고려하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감정·감각은 어휘 자체가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 인지·사고 동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과 관련된 행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등은 보충어로 오는 명사구 혹은 절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구체적 내면이 지시될 수 있다. 즉, 이들 동사 자체만으로 내적 경험이 표현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절 혹은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여 [보충어+서술어] 구성 전체가 사유·인지의 내적 경험을 전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감각 경험 술어와 인지·사고 동사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대답을 했다.

ㄴ. 이어 주방 내에 재료를 확인한 백종원은 “이 재료로 토스트냐 라면이냐” **라며** 고민해 했다.[87]

(36ㄱ)의 경우 대상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 ‘곰곰이’와 같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으며, (36ㄴ)에서는 구체적인 사유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서 현장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맥락이 조성된다. (36)이 자연스러운 정도는 모든 화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신문기사 및 소설 등 특정 맥락을 중심으로 점차 사용이 퍼져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2.2. ‘-어 하-’ 분포의 확장 요인

‘-어 하-’의 선행요소가 다양한 의미적 유형으로 나타나며, 기존 논의의 유형에 포괄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일부 맥락에서 선행요소로도 점차 확인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어 하-’의 선행요소로 올 수 있는 목록이 확장 중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 하-’의 분포가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을 추측해본다면, ‘-어 하-’ 구성 자체의 형태적 특징에 기반하여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3.2.2.1. 인용 구성과의 형태적 유사성

먼저 형태적으로 유사한 인용 구성에 유추되어 예외적인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어 하-’ 구성은 ‘-어’로 종결되는 발화를 기능동사 ‘하-’를 통해 인용하는 구성과 형태적으로 동일하다.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유추되거나 혹은 본디 인용 구성이었던 것이 ‘-어 하-’ 구성으로 오분석되어 선행하는 용언이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어’로 종결되는 문장을 대동사 ‘하-’로써 인용하는 구문은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용 구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87) 박하영, <백종원 “배신자 대환아” → 오대환과의 대결에서 ‘부대라면’으로 승리 (‘백패커’)[Oh!쎈 종합]>, ≪OSEN≫, 2022. 7. 15., <http://osen.mt.co.kr/article/G1111896241 >. 2022.11.26.

있어 애매한 부류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37) 여인한테 걱정하고 안됐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37)의 '안됐다'는 '안되다'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안됐다' 구성이 하나의 심리표현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섭섭하거나 가엾고 애석한 느낌이 있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안되다'는 문장에서 항상 '안됐다'와 같은 형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어 발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안됐어'의 짧은 문장을 인용하여 "'안됐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어가 할 법한 말을 인용 구성에 나타냄으로써 주어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통합한 '-어 하-'가 형성하는 의미기능과 통하게 되므로, 일부 화자들에게서 인용 구성으로 쓰인 것이 '-어 하-'가 통합한 구성으로 재분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해지면 주관성이 낮은 '어둡다, 밝다' 등의 시각 감각 용언도, 인용 구성으로 사용되던 것으로부터 '-어 하-' 통합형으로 재인식되어 주관적 경험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겠다. 실제 말뭉치에서도 인용 구성에 가까운 문장이 많이 발견된다.

(38) ㄱ. 창문을 가려놓아 어두운 건 하늘의 태양과 관계가 없듯이, 마음의 창을 닫아놓고 어두워 어두워하는 것은 내 방 내 삶의 공간만 어두운 것이다. =['어두워 어두워' 하는]

ㄴ. 창문을 가려놓아 어두운 건 하늘의 태양과 관계가 없듯이, 마음의 창을 닫아놓고 어두워하는 것은 내 방 내 삶의 공간만 어두운 것이다. =['어두워' 하는] 혹은 ['어둡-+-어 하-'('어둡다고 느끼는' 의미)]

이러한 유추적 작용이 '빨갛다, 까맣다' 등의 색채어에도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맥락에 따라 색채 관련의 시각 경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88] 그런데 제3자가 색채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

88) 정연주(2010:311, 각주 8)는 시각 경험이라도 어떤 색이 전형적인 빨간색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ㄱ)에 비해 (ㄴ)의 '빨갛다'가 더 주관적인 속성을 갖는다. 객관적인 속성의 (ㄱ)보다, 주관성이 높은 (ㄴ)에 '-어 하-'가 통합한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ㄱ′)보다 (ㄴ′)이

렵다. 제3자의 말이나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가령 (39)에서 '빨개 하-'는 색채 경험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전제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빨개 했다'는 '수정'이 색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수정'의 주관)를 화자가 서술한 것으로, '빨갛다고 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제3자의 주관적인 색채 경험을 나타낼 때 인용 구성과 긴밀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특히 간결한 발화를 선호하는 구어에서 등장할 법하다.

(39)ㄱ. 재준이는 적록색맹이 맞아. 나는 아무리 봐도 바구니 안에 든 사과가 새파랬는데, 재준이는 똑같은 걸 자꾸만 빨개 했거든. (=빨갛다고 했거든)
ㄴ. 풋사과를 보고도 빨개 하는(=빨갛다고 하는) 재준이

인용 구성으로 사용된 '빨개 했다'가, 시각적 경험에 주관성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맥락으로 인하여 주관적 경험의 의미유형에 붙는 '-어 하-' 구성으로도 재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이는 '-어 하-'의 통합 양상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이때의 [색채어+'-어 하-']는 15세기의 'ᄑᆞᄅᆞᄒᆞ-, 노ᄅᆞᄒᆞ-'와는 분명히 다르다. 15세기의 'ᄑᆞᄅᆞ-~ᄑᆞᄅᆞᄒᆞ-, 노ᄅᆞ-~노ᄅᆞᄒᆞ-'는 모두 객관적 색채 표현으로 형용사의 활용을 보이지만, (39ㄴ)는 상대적인 색채 감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동사의 활용 양상(관형사형 어미 '-는')을 보인다. 그러므로 (39)의 '-어 하-' 구성은 15세기의 색채어에 붙어 색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던 '-어 ᄒᆞ-'[89]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현대의 확장된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덜 어색함은 ?의 개수 차이로 표시하였다.

(ㄱ) 이 책상은 빨갛다. (ㄴ) 나는 이 책상이 더 빨갛다.
(ㄱ′) ??수정이는 이 책상을 빨개했다. (ㄴ′) ?수정이는 이 책상을 더 빨개했다.

89) 예컨대 'ᄑᆞᄅᆞᄒᆞ-, 노ᄅᆞᄒᆞ-' 등이 있다. 이현희(1997)는 이들 색채어에 '-어 ᄒᆞ-'가 붙은 구성과 동사에 붙는 '-어 ᄒᆞ-'가 붙은 구성을 종합하여 '-어 ᄒᆞ-'의 의미기능을 '강화'로 기술하면서 선행용언으로 형용사가 올 때는 상태성을, 동사가 올 때는 동작성을 강화한다고 나누어 설명하였다.

3.2.2.2. 행위 수식의 우언적 구성

다음으로, '-어 하-' 구성 자체가 가진 통사적 구조에 근거하여 선행요소가 점차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해볼 것이다. '-어 하-' 구성은 '좋아하다, 무서워하다, 기뻐하다' 등과 같이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로 어휘화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 선행요소 가운데는 (40ㄱ)처럼 구 구성도 많으며, (40ㄴ)처럼 선어말어미의 실현이 선행요소와 '-어 하-'의 사이에 일어나는 등 구어에서 형태·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어 하-'의 통합 구성을 단일한 성격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만 공통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때 '부사어+하-'의 구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0) ㄱ. 산영이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연화도 연수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할 수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어 하-+-ㄹ])
ㄴ. 코로나로 격리되어 계신 부모님이 입맛 없으셔해서 사 드렸어요.
(= [[입맛 없-+-(으)시-]+-어 하-+-(어)서])

먼저 (40)은 종결어미 '-아/어'로 종결된 발화를 인용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맥락상 주어의 발화가 아닌 주어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0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의 경우 '-어 하-' 결합 구성의 주어인 '부모님'에 호응하므로, '입맛 없으셔'는 주어 '부모님'의 발화일 수가 없다.[90]

행동에 대한 묘사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40)은 '하-'가 인용 동사의 '하-'가 아니라, '생각하다, 느끼다' 등의 사고(思考) 동사나 '행동하다'의 대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는 어휘적 특성보다 기능적인 면모가 크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41) ㄱ. 그의 태도는 마치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ㄴ. 노엽게 생각하거나 별다르게 생각 말게.

90) '-(으)시-'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ㄷ. 그는 갑자기 주위가 고즈넉하여 이상하게 느끼며 일어서서 시찰구로 바깥 기척을 살핀다. (고은숙 2012:56)

(42) 그런 서진이 그리도 겸손하게 행동했다니!

(41)은 고은숙(2012:56)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밑줄을 '형용사 + -어 하-' 구성으로 이해하여 각각 '우스워하는', '노여워하거나', '이상해하며'로 바꾸어보아도 자연스럽다. 이는 '-어 하-' 통합 구성에 대하여 선행성분인 'V+-어'는 수식의 기능으로, 후행성분인 '하-'를 '생각하다, 느끼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대동사 정도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42)는 말뭉치에서 '그런 서진이 그리도 겸손해했다니'로 나타난 문장을 '-게 행동하다'의 형태로 바꾸어 제시한 것이다.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하-' 통합형 구성의 성분을 분석해본다면, 부사어가 대동사 '하-'를 수식하는 구조로 볼 수도 있겠다.

요컨대 '-어 하-' 통합형으로 나타난 구성은, 의미상 후행성분인 '하-'가 다른 동사의 대동사로써 선행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식의 우언적 구성'이 어휘화될 수도 있고, 우언적 구성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는 '-어 하-' 통합 구성이 형태적으로 복잡한 성격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된다.

한편, 예외적 통합 양상이 대체로 관찰·묘사의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예외적 통합 양상을 3.2.1., 3.2.2.에서 제시한 인용 구성의 형태적 유사성과 행위 수식의 우언적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의 말을 옮기거나 행위를 부연하는 맥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 하-'가 일종의 '관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강조되는 맥락에 쓰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만일 관찰 의미의 맥락에서 '-어 하-'가 등장하는 것이 예외적 통합 양상에서만이 아니라 기존 '-어 하-'의 분포에서도 폭넓게 확인된다면, '-어 하-'가 '관찰' 의미를 매개로 그 분포가 확장되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장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한다.

4. 선행요소 의미유형별 '-어 하-' 통합 요인

이 장에서는 3장의 선행요소 목록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 하-'와의 통합이 이뤄지는지를 살필 것이다. 3장에서 제시한 목록은 크게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낮은 부류의 두 의미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1), (2)처럼 같은 .통사적 환경[91]에서 전자는 '-어 하-'가 통합해야 자연스럽지만, 후자는 '-어 하-'가 통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또 후자는 '-어 하-'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의미 차이도 느껴질 수 있다.

(1) ㄱ. 민수가 {?괴롭다/ 괴로워 한다}
　　ㄴ. 민수가 {?피곤하다/ 피곤해 한다}.
(2) ㄱ. 민수가 {당황한다/ 당황해 한다}.
　　ㄴ. 민수가 {겸손하다/ 겸손해 한다}.
　　ㄷ. 민수가 {움찔한다/ 움찔해 한다}.

이는 두 부류가 각자 다른 이유에서 '-어 하-'와 통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 하-'의 통합 요인을 선행요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1), (2)의 환경 외의 다른 통사적 환경에서는 '-어 하-'의 통합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가령 (1)의 문장에 '-어 하-'가 통합하지 않은 경우도 과거 시제로 표현할 경우, 한결 자연스러워진다. 3장에서는 (1), (2)에 드러난 현재시제 평서문 종결형의 환경만을 다루었으나 이 장에서는 과거 시제, 내포절 환경 등 선행요소 어휘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통사적 환경을 설명에 포함하여 '-어 하-'의 통합 요인을 설명할 것이다.

4.1.에서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통합 요인을, 4.2.에서는 주관성이 낮은 부류의 통합 요인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91) 3인칭 주어를 가지며 다른 양태 표시 없이 현재시제로 실현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다. 이는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 현상이 드러나는 환경이다.

4.1.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통합 요인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어휘들은 화자만의 내면 감정·감각 상태를 나타낸다. 이 부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시제에서 화자가 주어로 와야 하는 인칭 제약이 있는 것이다.[92] 이들에 '-어 하-'가 붙으면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그런데 단순히 인칭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어 하-'가 통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맥락에 의해 인칭 제약이 이미 완화된 환경[93]에서도 '-어 하-'가 통합하며, 1인칭 주어의 내면 표현에 '-어 하-'가 통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칭 제약과 무관하게 일어난 '-어 하-' 통합으로, '인칭 제약의 완화'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용례들을 검토하였을 때,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 통합한 '-어 하-'는 기본적으로 인칭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말해 '개인의 주관적 내면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어 객관화'하고자 통합되었다(4.1.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칭 제약과 무관하게 '관찰'의 의미(4.1.2.)를 강조하기 위해 덧붙거나,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4.1.3.)에 오기도 하였다.

4.1.1.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

내면의 감정·감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에 '-어 하-'가 붙으면, 그러한 내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를 전할 수 있다. 주관적인 내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을 보이기 위해 '-어 하-'가 통합되는 측면이 있다. 타인도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화용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3인칭 주어의 내면 표현도 가능해진다.

가령, (3)의 '질리다', '춥다'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로, 현재시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94] 화자 아닌 주어의 내

---

92) 화자가 현재 느끼는 내면 상태는 화자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는 타인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되며, '주관 술어의 인칭 제약 현상'으로 다뤄졌다(2.2.1. 참조).

93) 인칭 제약은 화용론적 현상으로, 과거 시제, 전언 표지 등 맥락이 추가된다면 쉽게 완화될 수 있었다(2.2.2. 참조).

94) 주격을 받는 명사구가 드러나 있지 않거나, 3인칭 명사구가 주격을 받더라도 감정·

면 상태를 말할 때는 '-어 하-'가 통합한 경우가 더 자연스럽다.

(3) ㄱ. 나연이는 계속 파스타만 먹어서, 이제는 {?질려 / 질려 해}.
ㄴ. 시은이는 {?춥다 / 추워한다}.

(3)에서 '-어 하-'가 통합하지 않은 경우는 통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화용론적으로 어색한 문장이다. 화자가 3인칭 주어의 내면에 대해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어의 내면에 대해 추론할 때 강한 확신을 표현하거나,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화자가 타인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어 상황에서는 '-어 하-' 통합형이 더 선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 하-'가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 붙게 되는 것은, 선행요소가 나타내는 '주관적 내면'이, 화자 자신의 정보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는 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기도 한다. 주관성이 높은 부류 가운데 일부 어휘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데 빈번히 쓰이기도 한다. 주로 화자 중심의 감각 용언에서 나타났다. 이들에 '-어 하-'가 결합하면 객관적 속성의 의미는 배제되고, 주어로 나타난 이의 주관적인 내면 감정·감각이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4) 서너 남자대원들이 더 붙어서 가마니를 들어냈다. 그랬는데도 모두는 무거워했다. 그 이유는 곧 판명되었다. 가마니에 든 것은 쌀이 아니라 총알이었던 것이다.

(4)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험주 '모두(가마니를 드는 사람들)'가 '무겁다고' 느낀, 주관적 감각 의미로써 사용되고 있다. 만일 '-어 하-'가 없이 '모두는 무거웠다'라고 한다면, 주어 '모두'는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남자대원들'이 아니라 무거운 속성을 지닌 '가마니'로 해석되기 쉽다. '-어 하-'를 쓰지 않고 경험주의 주관적인 내면을 표현하고 싶다면 '모두에게는 무거웠

감각의 주체는 화자로 해석되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난 잘생겨도 막상 만나면 상대방이 질려'라고 했을 때, 후행절에서 '상대방'이 주격을 받더라도 감정의 주체는 화자로 해석된다. 주격을 받는 명사구가 아예 없더라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다'처럼 여격 구문으로 실현되어야 자연스럽다. 즉, '-어 하-'는, 선행요소가 주관적 내면 의미와 객관적인 속성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 중의적일 때, 두 의미 가운데 주관적인 내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95]

'-어 하-' 통합형이 쓰인 문장에서 경험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도 주관적 내면으로의 해석이 유도된다. (5)의 예문을 보자.

(5) ㄱ. 마라샹궈는 먹으면 얼얼한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게, 중독성이 있어.
ㄴ. 마라샹궈는 먹으면 얼얼해 하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게, 중독성이 있어.

(5)는 (4)와 달리 경험주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 맥락에 의해 상정된다. (5ㄱ)의 '얼얼하면서도'는 마라샹궈 음식이 지닌 속성을 나타낸다. 반면 '-어 하-'가 통합한 (5ㄴ)의 '얼얼해 하는데도'는 마라샹궈를 먹은 사람의 감각을 강조한다. 이때 경험주는 맥락에 따라 마라샹궈를 먹은 사람 일반일 수도 있고, 화자일 수도 있다. 화자의 감각 상태를 객관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하-'가 언제나 타인의 주관적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어 하-'의 통합 요인을 '인칭 제약의 완화'로 설명하지 않고,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로 설명하였다. 이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내면은 반드시 타인의 내면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일 수도 있고, 타인의 내면일 수도 있다. 그것이 경험주 외의 타인에게 관찰될 수 있다는 화용적 추론이 가능하여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인칭 제약이 완화될 수 있게 된다.

4.1.2. 관찰 의미 강조

'-어 하-'가 주관적 내면을 객관화하여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통해, '-어 하-'에 선행하는 내용은 주어 외의 인물에게 관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4.1.1.). 실제로 '-어 하-'의 용례를 살피면, 관찰의 맥락

95) 이와 관련하여 이정민(1994)은 '-어 하-'가 통합하는 모든 형용사는 '감각주관화'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감정·감각과 관련된 의미일 때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다. 4.2.에서 살필 예정인 '주관성이 낮은 부류' 중, 인간의 성격·태도 의미의 형용사는 주어의 주관적인 내면이 아니라 화자가 주어에 대해 평가하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가령 'NP가 겸손해하다'는 주어 NP가 겸손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성격에 대하여 화자가 겸손하다고 평가한 것을 나타낸다.

이 빈번하게 동반된다. 이에 따라 맥락으로부터 추론된 의미가 '-어 하-' 구성의 의미로 관습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맥락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용론적 추론이, 문법 구성의 의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논의에서도 지적되었다. Bybee(2010:171)는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가 문법화에서 일종의 의미 변화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논의로 Traugott(1989), Traugott and Dasher(2002), Dahl(1985), Bybee et al.(1994) 등 여러 논저가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어의 미래시제 'be going to'를 들었다. 미래 시제 표지의 발달은 대체로 주어의 의도를 표현하는 단계를 수반한다. 어휘 의미 그대로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 진행 중임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1인칭 단수 주어에 사용될 경우 특별히 주어의 의도(intention)가 맥락을 통해 암시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be going to'가 의도의 함축 의미가 관습화(conventionalized)될 수 있으며, 미래시제 표지[96]로 발달하는 과정을 이어서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Bybee 2010:172).

이와 비슷하게 본고의 논의 대상인 '-어 하-'를 살펴보자. '-어 하-'는 3인칭 주어의 발화시 내면을 표현할 때 요구되었다. 화용론적으로 객관화되어 관찰될 수 있기에 인칭 제약이 완화될 수 있었는데, 만일 '-어 하-'가 인칭 제약과 무관한 환경에서도 발견된다면, '-어 하-'의 의미 일부로 '관찰'의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예컨대 아래 (6)에서 3인칭 주어 '나연이'의 내면을 서술하려면 '-어 하-' 통합형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같은 문장을 관계화하여 나타낸 (7)은 '-어 하-'의 유무가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세부 의미의 차이만을 보여준다. 즉, '-어 하-'가 인칭 제약을 완화하여 문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미만이 더해지고 있다. (7ㄱ)의 '(파스타가) 질리는 나연이'는, '나연'의 내면에 대해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바를 관형절로 제시한 문장이다. (7ㄴ)의 '(파스타를) 질려 하는 나연이'는 '나연'의 감정에 기반한 일련의 행태가 함께 묘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나연이는 계속 파스타만 먹어서, 이제는 {?질려 / <u>질려 해</u>}.

96) 1인칭 단수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맥락인데도 주어의 의도, 미래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 맥락의 의미가 구성의 의미 일부로 문법화된 것이 확인된다.

(7) 계속 파스타만 먹어서, 이제는 {ㄱ. 질리는 / ㄴ. 질려 하는} 나연이.

이는 '질리다'와 '질려하다'가 별도의 어휘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 하-'의 선행요소가 '어떤 통사적 환경에 놓였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6)은 주절의 종결형에 사용된 데 반해, (7)은 관형절에 사용되었다. 한정성(finiteness)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르고, 3인칭 주어에 붙는 필수성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97] 이러한 통사적 환경의 특징이 '-어 하-'의 통합 양상과 의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98]

(7)의 관형절은 대상에 대한 수식을 기능으로 한다. 대상을 수식하는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대상에 대하여 이미 아는 정보가 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화자가 대상에 대해 관찰하였음이 화용적으로 추론된다.[99] 이는 경험주가 화자여야 한다는 인칭 제약이 해소될 수 있는 맥락이 된다. 실제로 인칭 제약과 무관한 실현을 보인 '-어 하-'는 관찰이 이뤄지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8)ㄱ. 녀석은 옛 스승을 만난 반가움보다는 한시바삐 접속을 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ㄴ. 녀석은 옛 스승을 만난 반가움보다는 한시바삐 접속을 하고 싶은 듯했다.

(8ㄱ)의 '-어 하-'는 '-ㄴ 듯하-' 구성에 자유롭게 결합된다. '-ㄴ 듯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8ㄴ)은 화자가 주어의 내면을 관찰하는 맥락에서 말하기보다, 화자가 단정적으로 평가하여 말하는 의미가 더 드러난다. (8ㄱ)처럼 '-어 하-'가 사용된다면,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묘사하는 의미가 보다 강조된다.

(9) ㄱ. 겸연쩍어하는 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뇌까렸다.

---

97) '한정성(finiteness)'은 '어떤 절이 다른 절에 통합되는 정도를 통사적으로 반영한 것', '문장의 구조적 독립성을 외현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등으로 정의되며, 절의 독립적/의존적 지위와 관련된 의미범주라고 할 수 있다(문숙영 2015:8). 따라서 주절은 원형적으로 '한정 절(finite clause)'에 해당하지만, 관형절의 경우 서법이 표시되지 않고 주절에 의존하므로 '비한정 절(non-finite clause)'이라고 할 수 있다.

98) 즉, '-어 하-'의 후행요소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99) 혹은 다른 이에게서 정보를 전해 듣는 전언 사건이 있어도 된다.

ㄴ. 겸연쩍은 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뇌까렸다.

이러한 관찰의 맥락은 1인칭 화자 주어가 스스로의 내면을 말할 때도 드러난다. (9ㄱ)은 (9ㄴ)에 비해 관찰의 의미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9ㄴ)은 화자가 단지 '겸연쩍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지만, (9ㄱ)은 전체 문장의 생략된 주어가 '나'를 '겸연쩍어하는' 것으로 관찰하고 후행절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나'의 겸연쩍은 마음이 타인에게 관찰되었음이 강조된다.

(10) ㄱ. 나는 여느 때 같으면 눈을 반짝이며 몹시 신나했을 것이다.
ㄴ. 나는 여느 때 같으면 눈을 반짝이며 몹시 신났을 것이다.

예문 (10)도 관찰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10)의 화자는 가상의 상황에서 자신이 보였을 행동을 추측하고 있다.[100] 화자 자신에 대해 관찰하는 맥락이 더해지면, 더욱 구체적인 추측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추측의 간접 증거 표지와 '-어 하-'가 함께 실현되면 더욱 먼 미래의 추측도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2.3.2.2. 참조), (10ㄱ)이 ㄴ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이와 연결해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어 하-'를 통해 관찰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제시한 예문들은 대체로 '것' 절이거나 관형절 등 내포절에 '-어 하-' 통합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어 하-'가 인칭과 무관하게 관찰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는 통사적 환경을 특정할 수 있다. 이들 통사적 환경의 특성의 특징을 살피는 일도 '-어 하-' 구성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5장에서 살피도록 한다.

4.1.3. 동작성의 요구

주관성이 높은 부류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상태성이 높고 동

100) 화자가 가정하는 감정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엄밀히 같지 않고, 일종의 추측 상황에 가깝다.

작성은 낮은 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작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인칭 제약과 무관하게 항상 '-어 하-'가 결합해야만 한다. 동작성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은, 4.1.2.의 '관찰'의 의미가 관습화될 수 있도록 관찰의 맥락에 빈번하게 놓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작성이 높을수록 겉으로 드러나 관찰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으로는 대표적으로 명령·청유문이 있다. 주관성이 높은 부류는 (8)처럼 '-어 하-'가 통합해야 명령·청유형에 사용될 수 있다. 청유형을 화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하-'가 통합되어야 자연스럽다. 인칭 제약과 관계없이 동작성이 요구되어 '-어 하-'가 통합된 것이다.

(11) ㄱ.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하**진 마라**. / 기분 나빠하**진 말자**.
ㄱ′. *그런 일로 기분 나쁘**진 마라**. *기분 나쁘**진 말자**.
ㄴ. 나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니 겁나하**지 마오**.
그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니 겁나하**지 말자**.
ㄴ′. *나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니 겁나**지 마오**.
*그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니 겁나**지 말자.**

진행상 또한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이다. 진행상은 동적인 사태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상 범주(박진호 2002:51)로, 정의에서 드러나듯 동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술어와는 결합할 수 없다. 주관성이 높은 부류가 나타내는 내적인 감정·감각 상태는 진행상 구성 '-고 있-'[101]과 공기할 수 없고, '-어 하-'가 통합한 경우에만 진행상 표현에 쓰일 수 있다.

(12) ㄱ. 두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101) '-고 있-'은 진행상 표지로 기본적으로 언급되었으나, '결과상', '정태상', '반복상' 등의 상적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박진호 2002:49-55). 박진호(2002:52)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보다 '연속상(continuous aspect)' 표지로 주장하였다. 연속상은 진행상이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으로의 문법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이 많은데, 진행상은 동태 술어(dynamic predicate)와만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연속상은 그런 제약을 갖지 않아 문법화가 진척되며 결합 제약이 느슨해진 것이 확인된다. 한국어의 '-고 있-'은 '좋아하-, 사랑하-' 등의 정태 술어(static predicate)와도 결합하므로, 진행상보다는 '연속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ㄱ′. *두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고 있**었다.
ㄴ. 진정해. 너는 지금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있**어.
ㄴ′. *진정해. 너는 지금 지나치게 불안하**고 있**어.
ㄷ. 우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나는 베르메호로 다가가면 갈수록 불안해하**고 있**었다.
ㄷ′. *우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나는 베르메호로 다가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선·후행절이 동시적 시간 관계로 연결되었을 때, 서술어 간 상적 특성이 어울리기 위해 동작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 '-어 하-' 통합은 인칭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13) 그 모습을 본 {나는/너는/가인은} 분하고 안타까웠다.
(14) ㄱ. *그 모습을 본 {나는/너는/가인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웠다.
ㄴ. 그 모습을 본 {나는/너는/가인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였다.

(13, 14)의 '안타깝-'은 주관성이 높지만 과거시제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인칭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이라도 그것이 과거에 자명한 사실로 화자가 알 수 있다면, 타인의 감정에 간접적으로라도 접근 가능한 화용론적 맥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102]

그러나 (14)는 인칭 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된 과거 시제임에도, '-어 하-'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인칭 제약과 무관하게 특정한 요인에 의해 '-어 하-'가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과 달리 (14)의 '안타깝-'은 동작성이 있는 서술어와 '-며'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어미 '-며'는 동시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므로 이에 연결되는 서술어도 상적으로 어울려야 한다. 이에 따라, 선행절의 '발을 구르-'가 동작성을 띠므로 후행절의 서술어 '안타깝-'에도 동작성이 요구되지만 원 형용사 구성으로는 상태성이 높아 상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14ㄱ)은 비문이 되지만 '-어 하-'가 통합한 (14ㄴ)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어 하-'는 동작성의 요구를 충족한다.

102) 혹은 소설의 전지적 시점처럼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전지적 시점에 의한 표현이라면, 화자가 전지적으로 타인의 내면을 알고 서술함이 전제된다. 이로 인해 인칭 제약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ㄱ. *{나는/너는/수화는} 다소 신나**면서**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ㄴ. {나는/너는/수화는} 다소 신나하**면서**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15)의 연결어미 '-면서'도 '-며'와 같이 후행절을 동시적 시간 관계로 연결한다. 후행절의 서술어 '(한마디를) 덧붙이-'는 발화동사로 동작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선행절에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부류가 올 경우, 인칭과 무관하게 '-어 하-'가 통합하여 동작성을 띠는 후행절 서술어와 상적으로 어울리게 된다.

이처럼 인칭 제약과 무관하게 동작성을 충족시켜준다는 기능이 인식되면서, 관찰의 의미가 필요한 맥락에도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동작성을 강하게 드러낼수록 겉으로 드러나 관찰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4.2. 주관성이 낮은 부류의 통합 요인

'-어 하-'의 선행요소 목록 중 주관성이 낮은 부류는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 성격·태도의 의미의 객관형용사, 일부 동작 동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상이 의미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달리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를 위해 '-어 하-'가 통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작성의 요구, 관찰 의미의 강조 등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서 낮은 부류로 점차 분포가 확장되어가는 근거로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

4.2.1. 동작성의 요구

주관성이 낮은 부류 가운데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는 동작 동사와 비교하여 동작성의 정도가 낮다. 이들은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동작성을 위해 '-어 하-'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 부류는 화자 중심 감정·감각 용언 부류와 달리 인칭 제약이 없으며 내적 감정·감각과 함께 그에 기반한 외현적 행동이 의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때의 외현적 행동은 일반적인 동작동사의 행동성과는 구별된다. 장경준(1998:20)은 이들 부류에 대하여 '동작성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약하게 존재하는 부류'로 제시한 바 있다.

(16) ??못 견뎌라. ??못 잊어라. ??못 참아라. cf. 견뎌라. 잊어라. 참아라.
(17) 일본 국민들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감격하는/감격해하는} 모습이었다. (장경준 1998:20)

가령 '감격하다, 격분하다, 못 견디다, 당황하다' 등은 현재시제 어미 '-는다'를 취하고 진행상 '-고 있-'과의 공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작성이 비교적 높지만, 첫째, (16)처럼 명령형이 불가능하며 둘째, (17)처럼 '겉으로는'과 같은 부사어와 어울리지 못하여 의도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동작성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16)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내면 상태와 달리 보이도록 동작한다는 의미에서는 '감격하는'보다 '감격해하는'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화용론적으로 동작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 하-' 통합형이 요구된 것으로 설명되었다(장경준 1998:20).

그러나 주어 중심 감정 용언 가운데는 일부는 위 두 기준에 따라 동작성이 잘 드러난다. '분노하다, 반기다'는 '불의에 분노하라, 실패를 반겨라' 등과 같이 명령형이 자연스러우며, (17)와 달리 (18)은 '겉으로는'과 공기할 때 '-어 하-'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이처럼 '겉으로는'과 어울려 의도성을 지닐 수 있는, 동작성이 충족되는 경우들(긴장하다, 걱정하다, 분노하다, 즐기다, 반기다…)이 꽤 있다.

(18) ㄱ. 일본 국민들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분노하는/분노해하는} 모습이었다.
ㄴ. 일본 국민들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반기는/반겨하는} 모습이었다.

또 '명령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어 하-'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장경준(1998:12-3)은 명령형이 불가능한

‘못 견디다, 못 잊다, 못 참다’는 ‘-어 하-’ 통합이 가능하지만, 명령형이 가능한 ‘견뎌라, 잊어라, 참아라’는 ‘-어 하-’ 통합이 어색함을 보였다.

(19) ㄱ. 영희야, 어떤 수모도 {*못 견뎌라/*못 잊어라/*못 참아라}.
ㄱ′. 영희는 어떤 수모도 {못 견뎌 한다/못 잊어 한다/못 참아 한다}.
ㄴ. 영희야, 어떤 수모도 {견뎌라/잊어라/참아라}.
ㄴ′. 영희는 어떤 수모도 {*견뎌 한다/*잊어 한다/*참아 한다}.
(장경준 1998:12-3)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갖는다. 첫째, ‘못 견디다’류가 ‘못 견뎌라’와 같은 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화용론적으로 능력 부정을 명령하는 상황이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지 말 것이나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할 뿐, 불능 상태를 명령하는 상황은 쉽게 떠올리기가 힘들다. 둘째, 명령형이 가능한 부류에 ‘-어 하-’가 통합할 수 있는 경우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감격하다’ 외에도 다수 어휘가 명령형이 가능했으며, ‘겉으로는’과의 공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작성이 충족되었다. 동작성을 더한다는 기능으로는, 이미 동작성이 완전히 충족된 이들에 통합하는 ‘-어 하-’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에 대하여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어 하-’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 하-’의 동작성 충족 기능은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과 ‘-어 하-’ 통합형 중 일부 분포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동작성이 완전히 충족되는 부류를 제외하고, 명령형이 불가능하거나 비의도성이 강조되는 일부 어휘들에 한하여, (20)과 (21) 정도만을 그 예시로 제시할 수 있겠다.

(20) 일본 국민들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감격하는 / 감격해하는} 모습이었다. (장경준 1998:20)
(21) 셜리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 ?만족하고 있다}. (장경준 1998:20)

객관형용사 중 성격·태도의 술어에 대해서도,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쓰여 ‘-어 하-’가 통합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주어 중심의 감정·

감각 용언과 비슷하게, 모든 분포에서 필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가운데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은 다음과 같다. 동시성의 어미 '-며', '-면서'에 의해 선·후행절 서술어의 동작성과 어울려야 하거나, 지시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용절 뒤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 또한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서 4.1.3.에 지시된 내용과 동일한 분포이다. 아래 예문과 함께 살펴보자.

(22) ㄱ. 여섯 여자들과 모는 시를 짓자고 해놓고는 서로 미루며 {?겸손하다 / 겸손해한다}.
ㄴ. 그럴 경우에도 자신의 논리 정연함에 대꾸할 말을 잊어버리는 부친을 보며 더욱 {?자신만만했다 / 자신만만해 했다}.
ㄴ′. 태운이 배짱을 부리며 {자신만만한/자신만만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22)은 '-며'와 연결되면서 선행절 서술어의 상적 특징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2ㄱ,ㄴ)에서 원 형용사 구성보다 '-어 하-'가 통합된 어형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22ㄴ′)은 원 형용사 구성과 '-어 하-' 통합형이 모두 괜찮게 느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 하-'의 출현과 내포절이라는 통사적 환경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3) ㄱ. {?처량하지 말고 / 처량해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해. 상대방이 널 좀 더 알 수 있게 액션을 자주 취해봐.
ㄴ. 아뇨,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23)는 지시 화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어떤 성격·태도 형용사 부류는 '-어 하-' 통합 없이도 명령·청유형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123ㄴ)처럼 '-어 하-'가 통합하지 않은 원 용언 구성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명령형이 불가능한 (23ㄱ)의 '처량하다' 같은 경우, 지시 화행에 사용될 때 '-어 하-'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때의 '-어 하-'는 동작성을 강화하는 역할로 통합되었다.

(24) 또한 정조대왕은 모든 일 중에서 특히 효를 으뜸으로 생각하셨다. 더구나

나라는 임금개인의 것이 아닌 백성들의 것이**라며** {?겸손한 / 겸손해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4)는 인용절에 연결될 때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이다. 장경준(1998:20)에서 인용절의 '-라며'는 '-라고 하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발화 행위가 동시성의 '-며'로 이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후행절에도 동작성이 요구되어 '겸손해 하-'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것'절에 내포되더라도 '-어 하-' 통합 구성만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인용절에 연결될 때의 동작성 요구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22~24)는 '-어 하-'가 동시성이 강조되거나, 눈앞의 청자에게 관련된 행동을 보이도록 지시할 때, 혹은 주어가 발화하는 동안 보이는 태도를 말할 때 '-어 하-'와 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을 아울러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겸손하다'류가 '장면 층위에 존재하는 성격적 특성(정연주 2010)'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체 층위의 성격은 개체에 지속적으로 속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장면 층위의 성격은 특정한 장면에서 개체가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22~24)의 상황은 특정한 장면임이 부각되는 경우였는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 하-'가 결합할 수 있거나 반드시 '-어 하-'가 결합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어 하-'를 장면 층위 서술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즉, 사태가 나타내는 시간의 폭이 일정한 구간으로 분명하게 정해진다. 이는 형용사에서 동사로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어 하-'에 의해 특정한 시간의 폭이 정해짐으로써 반복상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어떤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나타내려면 먼저 그 사태가 일시적인 구간 동안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령, (25)의 '겸손하다'는 빈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 '-어 하-'가 통합한 '겸손해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25) ㄱ.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종종/자주/자꾸}** 겸손해했다.
ㄴ.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종종/자주/자꾸}** 겸손했다.

특정 시구간 동안 일어나는 사태가 반복되면, 빈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습관과 같은 장면층위의 서술로 이해될 수 있다. Jäger(1999:67)에 따르면 오직 장면 층위 술어만이 시간·빈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103] (25ㄱ)만이 자연스러운 것은, '겸손해하다'가 '겸손하다'에 비해 더 장면 층위에 가까운 형태임을 보여준다. '겸손하다'는 원래 대상 인물의 성격을 서술하여 개체 층위 술어로서 사용되던 것이 '겸손해라, 겸손하자'와 같이 명령·청유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동성이 인식되어 장면 층위에 가까운 서술도 일부 허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빈도부사의 수식과 같이, 개별 사건이 누적되어 일반화되어 일종의 반복상과 같은, 총칭적 의미[104]를 전달하려면, 장면 층위로서의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역할을 원 형용사 구성은 담당하기 어렵고, '-어 하-' 통합이 그러한 역할을 맡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ㄱ.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항상** 겸손해했다.
ㄴ.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항상** 겸손했다.

반면 (26ㄱ, ㄴ)은 모두 괜찮게 느껴지는데, 이는 '항상'이 쓰여 모든 상황 전체에 대한 총칭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개체층위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간 구간이 전제되지 않고,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25, 26)를 비교할 때 '겸손하다'는 기본적으로 개체층위 술어로서 상태성이 부각되지만, '-어 하-'와의 통합으로 동작성이 강조되며 시구간이 전제되어 개별적인 사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시간의 폭 동안의 행동으로 전제되면서 그것의 반복도 가능해진다. 즉, 동작성의 충족을 통해 습

---

103)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보였다. 아래 예문에서 speak(spoke)는 장면 층위를, knew(know)는 개체 층위의 사건을 나타낸다.
(예문) Peter {spoke / *knew} English today/several times. (Jäger 1999:67)

104) 장면층위 술어가 총칭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장면 층위 술어는 일시적인 속성을, 개체층위는 개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지속적인 속성을 말한다고 제시되었다. 이는 장면 층위 술어가 한정적인 기술을, 개체층위는 총칭적인 기술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장면 층위 술어가 사용되었다고 항상 한정적인 기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영철(2012:72)은 발화는 실체에 대한 상태, 행위가 실현되는 양상을 기술하므로 두 가지 종류의 총칭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의 대상이 되는 실체에 대한 총칭성과, 기술되는 상황 전체에 대한 총칭성이다. 이를 고려하면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된 문장이라도 그것이 나타내는 사건이 개별적으로 누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 과정을 거친다면 일반적 속성을 표현하여 총칭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영철 2012:66).

관상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관찰의 강조

주관성이 낮은 부류들과 '-어 하-'와 통합 용례는 대부분 관찰의 의미가 강조되는 맥락이 드러났다. 주관성이 낮은 부류는 인칭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어 하-']의 맥락으로부터 추론되었던 '관찰'의 의미[105]가, '-어 하-' 구성의 의미 일부로 자리 잡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다음 (27~30)의 예문은 인칭 제약과 무관한 '-어 하-'의 통합 용례를 보여주며, 의미상으로 선행요소가 나타내는 주어의 상태 및 행동이 주어 외 인물에게 관찰되는 맥락이 확인된다.

(27) ㄱ. 또 내가 <u>당황해하</u>면(cf. 당황하면) 소녀는 더 무서워할 거라는 생각에 침착해질 수 있었다.
ㄴ. 멀리서 볼 때도 꽤 격렬한 싸움이었는데도 울프는 숨조차 <u>가빠하</u>지 않았다(cf. 가쁘지 않았다).

(27)은 주어 중심 감정·감각용언이 사용된 경우로 '-어 하-'가 통합되지 않아도 괜찮게 느껴지지만, '-어 하-'가 통합함으로써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의미가 강조된다. (27ㄱ)의 경우 후행절의 주어인 '소녀'가 관찰할 수 있는 상황임이 강조되고, (27ㄴ)의 경우 선행절의 '멀리서 볼 때도'와 같이 화자가 주어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고 있다는 상황이 드러난다.

(28) ㄱ. 강원이 네 녀석이 그렇게 <u>초연해하</u>는 것 같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동안 강윤이 녀석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절로 화가 나!"
ㄴ. "내 번역으로 된다면야." 나는 이렇게 <u>겸손해했</u>다.

(28)은 성격·태도의 객관형용사가 '-어 하-'와 통합한 경우이다. 이러한

105) '-어 하-'는 주관적 내면을 객관화하여 주관성이 높은 부류의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어 하-'에 선행하는 내용은 주어 외의 인물에게도 관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4.1.1.).

경우는 소설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그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서술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이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 및 심리를 관찰하여 대신 전한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본고에서 제시한 '-어 하-'의 관찰의 의미기능과 상통한다.

실제로 (28ㄱ, ㄴ)은 '그렇게, 이렇게'와 같은 부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하여 일정 시간 폭 동안 한정하여 설명하는 맥락이 형성된다. '-어 하-'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잉여적으로 '겸손하다'에 결합하여 시간의 폭을 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듯한, 행동 묘사의 측면이 강조된다.

(29) 그는 남들이 칭찬해 주면 어깨를 으쓱해하는 성질이 있어.

(30) ㄱ. 그리고 아이들을 들어올리**며** 좋아해하**는** 김탑을 훔쳐보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다.

ㄴ. 아이가 별로 아파해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9)는 동작동사, (30)은 '-어하다' 동사에 '-어 하-'가 통합한 예인데 이때도 주어에 대한 묘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찰의 맥락이 드러난다.

요컨대 주관성이 낮은 부류에서도 '-어 하-'가 통합할 수 있었는데, 이때 관찰의 의미가 강조되는 맥락이 빈번하게 드러났다. 이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어 하-'가 통합하는 맥락에서 추론된 '관찰'의 의미가 '-어 하-' 구성의 의미로 확실히 관습화되었음을 보여준다.

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어 하-'는 주관성이 높은 부류에 통합할 경우, '주관적 내면을 객관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해당 부류의 인칭 제약을 완화해주는데, 화용론상 타인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 하-'가 인칭과 무관하게 자주 사용될수록, 맥락으로부터 추론된 '관찰' 의미가 '-어 하-' 구성 자체의 의미로도 굳어지게 된다. 또 '-어 하-'는 인칭과 무관하게 '동작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동작성, 행태적 표출 등의 의미기능도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동작성이 높을수록 관찰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동작성 기능은 '관찰'의 맥락에 '-어 하-'가 더욱 빈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칭 제약이 없었던, 주관성이 낮은 부류와 '-어 하-'의 통합 용례를 살폈을 때, '-어 하-'는 '동작성'과 '관찰'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동작성 충족의 기능을 바탕으로 타인의 관찰이 전제되는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관찰'이라는 맥락 의미가 '-어 하-' 구성의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맥락으로부터 확장된 '관찰'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 하-'가 점차 다양한 의미유형의 표현에도 결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3.2.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외적 통합 양상이 구어를 중심으로 점차 발견되는 사실도 이와 관련된다.

5. ‘-어 하-’ 통합의 필수성과 수의성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라도, 문장 내 어떤 통사적 환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어 하-’가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경우’, ‘통합하면 오히려 비문이 되는 경우’,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 통합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 하-’의 통합과 관련된 요인으로 ‘-어 하-’의 후행 문법요소를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4장에서 살핀, 각 선행요소의 통합 요인에 의해 기본적으로 ‘-어 하-’가 나타날 것이 기대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1.에서는 ‘-어 하-’가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경우, ‘-어 하-’의 후행요소로 주로 나타난 문법 요소들을 다룬다. 5.2.는 예상과 달리 ‘-어 하-’의 통합이 저지되는 경우, 5.3.은 ‘-어 하-’의 통합이 수의적인 경우의 후행요소를 다룬다.[106]

5.1.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인 후행요소

‘-어 하-’는 동사의 상적 특성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으로는 지시 화행 표현, 진행상 구성, 후행절과 주어가 다른 [이유]·[원인]절 어미 등을 들 수 있다. 주관성이 높은 부류가 이러한 문법요소 앞에 올 때는 항상 ‘-어 하-’와 통합해야 했지만, 주관성이 낮은 부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107]

---

106)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통사적 환경은 통합 양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해당 통사적 환경들이 나타날 때 ‘-어 하-’의 통합 양상이 달라지는 일종의 ‘경향성’이 드러났음을 보이고자 이 장을 구성하였다. ‘-어 하-’가 언제 반드시 쓰여야 하고 쓰일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 환경을 제시하는 일은, 한국어교육에서 ‘-어 하-’의 교수법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07) 각 선행요소와 관련한 설명은 4.1., 4.2.에 제시되었다. 5.1.1.에서는 4.1.3., 4.2.1.에서 제시된 환경들이 왜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

이는 두 부류 간 동작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1.1. 지시 화행 표현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에 주관성이 높은 부류가 올 경우, '-어 하-'가 통합해야 한다. 즉, 청자의 주관적인 내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릴 때, '-어 하-'가 요구된다.

지시 화행(Directives)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는 화행 부류(이지수 2016:63)로, 화자의 말을 듣고 청자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가 뒤따를 때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지시 화행의 발화 동기는, 화자가 청자에게서 특정한 행위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는, 적어도 외적으로 드러나 화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태가 와야만 한다. 청자의 '상태'와 관련한 지시 화행이라고 하더라도, 상태의 변화 혹은 유지를 화자가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해당 상태는 일정한 시간의 폭 동안 나타나야 한다. 즉, 화자가 보기를 희망하는 청자의 상태는 일시성을 띠게 되며 영속적인 속성과 대비된다. 이는 '-어 하-'가 '주관적 내면을 행동 양상으로 객관화'하고, '동작성'을 더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1) ㄱ.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마음껏 {*기뻐라! / 기뻐해라!}
ㄴ.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마음껏 {*기쁘자. / 기뻐하자.}
ㄷ.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마음껏 {*기뻐도 / 기뻐해도} 된다.
ㄹ.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자, 마음껏 {*기쁘다 / 기뻐한다}, 실시!

(1)은 내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뒤에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어미가 오고 있다. (1ㄱ)은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문장 유형인 명령형 어미가 확인된다. (1ㄴ)은 청유형 어미, (1ㄷ)은 '-어도 되다' 구문이 확인되는데 각각이 나타내는 '권유', '허락'은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이지수 2015:61). (1ㄹ)은 표면적으로는 평서형으로 보이지만 '실시!'와 같은 표현을 통해 지시의 간접화행이 이뤄지고 있다. (1)의 모든 예문은 내면 감정 상태에 '-어 하-'가 반드시 통합해야 자연스럽다.

(1ㄱ, ㄴ)의 명령·청유형 어미는 전통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1ㄷ, ㄹ)처럼 간접화행을 통해 넓은 의미에서 지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문도 '-어 하-'가 통합해야 함을 고려하면, 명령·청유형 어미만이 동작성이 요구되는 환경이 아니다.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어미로 확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행복하다'는 (2)처럼 예외적으로 원 형용사 구성으로도 명령·청유형이 가능하여 반례가 되는 듯하지만, '-어 하-'의 유무에 따라 의미 차이가 존재하며, (3)처럼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 추가되면 '-어 하-'가 통합해야만 자연스럽다.

(2) ㄱ. 행복해라. 행복하자.
ㄴ. 행복해 해라. 행복해 하자.

(3) ㄱ. 아직 오빠가 전장에 있다. 오라비가 돌아오거든 마음껏 {?행복해라 / 행복해 해라}.
ㄴ. 작은 일에도 {?행복하자 / 행복해 하자}.
ㄷ.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수화가 답했다. "당연하지. 이제는 마음껏 {?행복해도 / 행복해해도} 괜찮아. 지금을 즐기라구!"
ㄹ. 자, 지금부터 마음껏 {?행복하다 / 행복해 한다}, 실시!

(2ㄱ)의 경우 청자가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기원하거나 소망함을 나타낸다면, (2ㄴ)은 기원/소망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현재 눈앞의 청자를 향해 화자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의미이다. 전자는 지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시의 힘도 낮다면, 후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따라서 지시의 힘도 비교적 강하다. (3)도 '마음껏'이나 '작은 일에도'와 같이 청자의 행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는 '-어 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지시 화행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어 하-' 통합은 필수적이다. 이때 지시 내용이 현재 눈앞의 청자에게 당장 요구되거나, 청자의 수행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수식이 함께 이뤄질 때, 지시 내용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5.1.2. 진행상 구성

‘-고 있-’, ‘-는 중이-’ 등의 진행상 구성이 주관성이 높은 부류 및 주관성이 낮은 부류 중 형용사 어휘들의 뒤에 올 때, ‘-어 하-’가 필수적으로 통합한다. 다시 말해 ‘-어 하-’의 선행요소 중 형용사 부류 뒤에 진행상 구성이 오면 ‘-어 하-’가 반드시 요구된다.[108]

진행상은 동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중간 국면을 가리키는 상 범주이다. 사태의 중간 국면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사태가 일정한 시간의 폭 동안 일어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가령 ‘먹다’가 나타내는 동적 사태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위이다. 그러나 ‘기쁘다’가 나타내는 정적인 내면 상태는, ‘기쁨’의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이 ‘먹다’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범주는 시간 관여성이 없는 무계(atelic)에 속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국면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진행 중인 국면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의 상태’가 진행 국면을 갖기 어렵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원영(2008:60-6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Grimshaw(1990:26)의 ‘상태(변화)성(state/change of state)’을 근거로 상태 또한 현실 세계에서 내적 시간 구조를 갖는 사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프기 시작하다, 배가 고픈 중이다’ 등의 표현과 같이 상태성과 시간 관련 표현이 공기하여 기동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상태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언어로 표현(형용사 범주)될 때는 시간적 폭 중 어떤 한 지점에 고정하여 표현하게 되므로 내적 시간 구조를 갖지 못하는 사건처럼 보이게 된다(도원영 2008:62).

그렇다면 ‘-어 하-’의 선행요소 중 형용사 범주가 나타내는 상태의 시간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기쁘다’가 갖는 내적 시간 구조는, 상태의 시작 지점이 감지되어 최초의 시점부터의 시간적 폭은 그릴 수 있지만, 끝은 상정할 수 없어 열린 모습을 지닌다(도원영 2008:63).[109] 이는 ‘기쁘다’가 (4ㄱ) 기동상 표현은 가능하지만 (4ㄴ) 진행

108) 주관성이 높은 부류는 형태상 동사 활용을 보이더라도 통사적으로 형용사와 더 비슷했으므로 한 범주로 아울러 제시하였다.

상은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ㄱ. 네가 4시에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쁘**기 시작할** 거야.
ㄱ′. 네가 4시에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뻐하**기 시작할** 거야.
ㄴ. *나는 3시부터 기쁘**고 있**었단다.
ㄴ′. 나는 3시부터 기뻐하**고 있**었단다.

주관성이 낮은 부류 중 성격·태도 의미의 객관형용사 부류는, 주어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의 성격·태도를 평가한 것이었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여러 동작으로 연결되는 전체가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압축되어 외연이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도원영 2008:63-4). 따라서 내적 감정·감각 상태와 달리 기동상(5ㄱ)과 진행상(5ㄴ) 모두 불가능하다.

(5) ㄱ. *더는 방법이 없는 걸 깨달은 순간 혜정이는 오히려 담담하**기 시작**했다.
ㄱ′. 더는 방법이 없는 걸 깨달은 순간 혜정이는 오히려 담담해하**기 시작**했다.
ㄴ. *혜정이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담담하**고 있**다.
ㄴ′. 혜정이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담담해하**고 있**다.

(4ㄴ′), (5ㄴ′)에서처럼 '-어 하-'의 선행요소 중 형용사 범주들은 모두 '-어 하-'와 결합해야만 진행상 표현이 가능하다. '기쁘다'는 최초의 시점으로부터만, '담담하다'는 여러 시간 폭이 한 장면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두 상태 모두 진행 중의 어느 한 국면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명시적이지 않다. 주관적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진행상 구성으로 나타나려면 끝점이 상정되어서 최초의 시점부터 끝점을 향해 가는 연속적 사태로 나타내야 한다. 성격·태도를 묘사하는 표현이 진행상 구성으로 나타나려면 겹쳐져 있는 여러 시간의 폭 중 하나의 시간 폭을 분리해내야 한다. '-어 하-'는 형용사의 기술에 그러한 시간적 폭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진행상 구성이 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즉,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표현이 현실 세계의 상태가 갖는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어 하-'를 진행상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여럿 있었다. 김흥수

109) 도원영(2008:63)에서 감각·감정 형용사는 '가변적 상태'라고 제시되었다.

(1993:38)는 '경험'의 시간 국면과 관련하여, 보조용언 '나다', '-어지다' 구문은 각각 시작과 끝 단계에, '-어 하다' 구문은 중간 단계에 핵심이 놓이는 표현이라고 파악하였다. 박진호(2002:54)는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비교적 항구적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호'를 나타내는 데 반해, '좋아하고 있-'은 '항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110] '좋고 있-'은 불가능하지만 '좋아하고 있-'은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 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후행요소로 진행상 '-고 있-'이 제시된다.

5.1.3. 후행절과 주어가 다른 [원인]·[이유]절 어미

후행절과 다른 주어를 갖는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어서', '-니까'에 내적 감정·감각 상태 어휘가 오는 경우, '-어 하-'가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후행절 주어 행동의 원인·이유가, 다른 인물의 내면과 관련될 때 '-어 하-' 통합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1인칭 화자의 내면 상태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인칭과 무관하게 '-어 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후행요소로 볼 수 있다.

(6) ㄱ. 민지가 워낙 {*배고프니까 / <u>배고파하</u>니까} 일단 빵부터 줬어.
ㄴ. 민지가 워낙 {*배고파서 / <u>배고파해</u>서} 일단 빵부터 줬어.

(6)은 후행절에 나타난 화자 행위의 원인·이유를 선행절 주어의 내면 상태와 관련짓고 있다. 화자는 선행절 주어 '민지'의 주관적인 내면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행태를 관찰하거나 말을 전해 듣는 등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지의 내면을 화자가 인지했기 때문에 '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민지의 내면 상태와 화자의 행위가 인과관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지의 주관적인 내면이 객관적인 행태로

110) '현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려면 그에 수반되는 행위가 강조된다. '좋아하-'가 내적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좋-'과 동일하게 지속적·안정적인 기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고 있-'과 함께 사용되면 끝 지점이 전제되어 시간 흐름 속에서 포착되는, 감정에 수반된 행위의 의미가 함께 파악된다. 한편 '좋-'과 '좋아하-'가 의미가 같을 수 있음은 최정진(2005)에서도 주장되었다(2.1.2. 참조).

드러났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고프-'에 '-어 하-' 구성이 반드시 결합하게 된다.

(6)의 문장에서 선·후행절의 주어가 서로 바뀌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말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 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7)은 후행절 주어 '민지'의 행위의 원인·이유가, 화자의 내면 상태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말할 때는 '-어 하-' 통합 구성을 취해야만 하는 제약이 없다. (7)에서 '배고파하니까, 배고파해서'만이 적절한 것은 인칭 제약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7) ㄱ. 내가 워낙 {*배고프니까 / 배고파하니까} 민지가 일단 빵부터 줬어.
ㄴ. 내가 워낙 {*배고파서 / 배고파해서} 민지가 일단 빵부터 줬어.

(7)의 인과관계는 '민지'가 화자의 내면 상태를 인지한 사태와 민지가 화자에게 빵을 주는 사태가 시간적 선후관계로 연결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이때 (7ㄱ, ㄴ)이 나타내는 의미는 '-니까'와 '-어서'의 차이에 의해 조금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서'절은 어떤 결과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전제되는 '원인'을, '-니까'는 화자의 개인적 추리에 의한,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인 '이유'를 나타낸다고 제시된다(남기심 1978). 이를 고려하면 (7ㄱ)은 후행절의 사태인 민지가 빵을 준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7ㄴ)은 두 사태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선후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문장 진술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1] 후행절 사태에 대한 진술이 '-니까'에 의한 화자의 주관적인 이유이든, '-어서'에 의한 객관적인 원인이든, 민지가 화자의 내면 상태를 인지했다는 사태가 전제되어야만 선후행절 사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화자의 내면 상태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야 하고, 그것이 '-어 하-'의 필수적 통합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

111) (7ㄱ)의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니까'의 주관적 의미를 고려하여, '-ㄴ 것이다, -ㄴ 것 같다' 등의 확신/추측 표현과 같이 상황에 대한 화자가 주관적인 이유 분석을 한다는 맥락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러워진다.
(예문) 내가 워낙 배고파하니까 민지가 빵부터 {(?)줬다. 준 거야. 준 것 같아}

5.2. ‘-어 하-’ 통합이 저지되는 후행요소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라도 다음의 문법요소가 후행할 때는 ‘-어 하-’ 통합이 저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도급]·[정도] 의미의 어미 ‘-도록’(5.2.1.), 선·후행절 주어가 동일한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니까’(5.2.2.)이다. 이들은 ‘동작성’이나 ‘관찰’ 의미가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통된다.

5.2.1. [도급]·[정도] 의미의 어미 ‘-도록’

[도급], [정도] 의미의 어미 ‘-도록’이 후행할 경우, ‘-어 하-’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후행하는 절의 목적이 되는 행위절을 이끄는 ‘-도록’을 제외하고는 ‘-어 하-’ 통합이 저지되는 것이다.

먼저 현대국어 연결어미 ‘-도록’은 다음의 여러 의미가 지적되었다. 석주연(2006, 2013)은 [도급(到及)], [정도], [결과]로 제시하였다.[112] [도급] 의미는 선행절이 표상하는 시간상의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쓰인다. (8ㄱ)의 ‘-도록’은 해가 저무는 시점까지 다다르도록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도] 의미는 어떤 한계점이나 특정 시점까지 행동의 지속을 나타내면서도, 특정 시점이 초점화되기보다는 후행 문장이 지시하는 사건이 지속되는 정도가 초점화될 때 쓰인다. (8ㄴ)은 물리적으로 고개가 휠 때까지 큰 절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예의 바름의 정도가 상당히 과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석주연 2006:126)[113]. [결과] 의미는 선·후행절 간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상황적

---

112) ‘-도록’의 의미에 대한 명칭은 논의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정연주(2015:161)에서 선행연구의 명칭을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윤평현(1981): ‘다다름’, ‘정도’, ‘목적’
· 김재윤(1983): ‘시간적 한계성’, ‘한정적 한계성’, ‘목표적 한계성’
· 이희자·이종희(1999): ‘시간의 한계’, ‘이르러 미치는 한계나 정도’, ‘뒷절의 내용이 일어나게끔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나 목적’
· 석주연(2006, 2013): ‘도급’, ‘정도’, ‘결과’
· 정연주(2015):‘시간적 한계’, ‘결과적 한계’, ‘목적’, ‘사동’, ‘권장’, ‘의지 표명’

113) 석주연(2006:126, 각주 24)은 ‘-도록’이 [정도]로 해석될 때에는 이렇게 비유적,

관계(결과-결과를 초래한 상황)에 초점이 두어질 때 사용된다. 이는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8ㄷ)의 '-도록'은 '-게'로 대치되어 목적/결과 의미로 쓰인다.

(8) ㄱ. 그 사람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도급]** (석주연 2006:125)
ㄴ. 그 남자는 고개가 휘도록 큰 절을 했다. **[정도]** (석주연 2006:126)
ㄷ.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겠다. **[결과]** (석주연 2006:128)

정연주(2015:171-2)는 [목적(=석주연(2006)의 결과)]의 '-도록'에 선행하는 요소는 대개 동작성을 띠는 타동사절, 행위성 자동사절인 데 반해, [시간적 한계(=석주연(2006)의 도급)], [결과적 한계(=석주연(2006)의 정도)]의 '-도록'에는 주로 비행위성 자동사절이 주로 선행한다고 했다. 시간·결과적 한계처럼, 후행하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진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동작성을 띠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114][115] 김선영(2010:322) 또한 후행절이 나타내는 상태에 대한 한계나 정도를 나타내는 '-도록'과 심리형용사의 결합을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형용사를 비롯한 비행위성 자동사절이 '-도록'에 선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적]을 제외한 [도급], [정도]일 때로 정리된다. 아래 예문 (9, 10)은 [도급]·[정도]에 해당하는 '-도록'에 각각 (9) 주관성이 높은 부류, (10) 주관성이 낮은 부류가 선행하였다. (9ㄱ, 10ㄱ)은 [도급]으로도 [정도]로도 해석되고, (9ㄴ, ㄷ)은 [정도]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9),

---

관용적 의미가 수반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14) 맥락이 마련된다면 드물지만 행위성 자동사절이나 타동사절이 선행하기도 한다. (예문 1, 2)는 각각 [도급], [정도]의 '-도록'이 타동사절, 행위성 자동사절에 연결됐다.
(예문 1) 영이가 밥을 다 먹도록 나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예문 2)영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질렀다. ("다 들을 만큼"의 뜻으로)
(정연주 2015:172, 괄호 속 의미 제시까지 그대로 가져옴)

115) 석주연(2006)은 [정도]로만 제시하였으나, 정연주(2015:168)은 '-도록'의 후행절이 형용사절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적 한계]와 [정도]로 구분하였다. 이는 형용사가 사태의 전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결과적 한계(=석주연(2006)의 '정도')]가 후행절의 사태로 도달함을 나타내지만, 형용사가 후행절의 서술어로 오면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결과적 한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0)의 '-도록'이 나타났을 때 '-어 하-'가 통합하면 비문이 된다는 점이다(9ㄱ′, ㄴ′, ㄷ′, 10ㄱ′).

(9) ㄱ. 목구멍이 간질거리**도록** 하고 싶은 말을 나도 모르게 참는 버릇이 생겼다. (김선영 2010:322)
ㄱ′. *목구멍을 간질거려 하**도록** 하고 싶은 말을 나도 모르게 참는 버릇이 생겼다.
ㄴ. 풍경이 슬프**도록** 아름답다. (정연주 2015:168, 각주 106)
ㄴ′. 풍경이 *슬퍼하**도록** 아름답다.
ㄷ. 멋쟁이 황제에게는 아마도 이런 전쟁이 지겹**도록** 싫을 것 같습니다.
ㄷ′. *멋쟁이 황제에게는 아마도 이런 전쟁이 지겨워하**도록** 싫을 것 같습니다.
(10) ㄱ. 영이가 지치**도록** 뛰었다. (정연주 2015:172)
ㄱ′. *영이가 지쳐하**도록** 뛰었다.

'-도록' 앞에서 '-어 하-'가 나타난 경우는 [목적]이나 [사동]의 의미로 사용된 '-도록'일 때뿐이었다. 예컨대 (11)은 주관성이 높은 부류, (12)는 주관성이 낮은 부류가 '-도록'에 연결될 때로, '-어 하-'와 통합할 수 있다. (11), (12)의 '-도록'은 [목적]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된 것으로 (9), (10)과 구별된다.[116] (13)의 '-도록'은 사동의 '-도록 하-' 구문을 형성하는데, 정연주(2015:173)는 [목적]의 '-도록'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또한 '-어 하-'가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 [정도] 의미와는 구분된다.

(11) ㄱ. 모두들 내 차를 타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고 기뻐하**도록** 나는 노력하자
ㄴ. 그래도 아가가 춥지 않**도록**(≒춥지 않아하**도록**) 아가가 포근해하**도록** 옷자락 사이를 꼭꼭 틀어쥐었다.
(12) 여성들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해하**도록** 방치해 놓은 주위의 풍습 때문이다.
(13) 음악시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동요곡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씩 걸려도 제대로 부를 수 없도록 요령 없이 가르쳐 그만 아이들이 음악시간까지 지겨워

116) [목적] 의미는 '~ㄹ 수 있/없도록'으로 대치하면 자연스럽고, [도급]은 '~ㄹ 때까지', [정도]는 ~ㄹ 만큼, ~ㄹ 정도로'로 대치하면 자연스럽다.

하**도록** 하는 선생들이 흔히 있는 교육 현실에서, 그래도 내가 상식에 그다지 어긋날 정도는 아닌 수업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1~13)의 '-도록'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사동]의 행위 주체인, 주절의 행위주가 목표하는 결과점이다. 따라서 주절의 행위주 입장에서는, '-도록' 절의 상태가 목표하는 결과점에 도달하기까지 점진적으로 드러나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목적], [사동]의 '-도록' 절에서는 내면 상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동작성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이는 [도급]·[정도]의 '-도록'과는 반대되는 성질이다.

5.2.2.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이유] 어미 '-니까'

후행절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갖는 '-니까'절에 주관적 내면 상태 어휘가 오면 '-어 하-'의 통합이 오히려 비문이 된다. 이는 5.1.3.의 후행절 주어와 다른 주어가 나타난 '-니까', '-어서'절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앞서 '-니까'는 주관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박소영(2022:32)은 '-어서'의 원인절에 오는 사태는 객관적 사실로서 화자가 알고 있음이 전제되지만, '-니까'의 이유절에 오는 사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함의된다고 하였다. 즉, '-니까'는 '-어서'와 달리, 화자의 판단에 비추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는 원인이다(박소영 2022:31). 두 어미의 의미론적 대조는 심리술어의 주어 인칭 제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서' 앞에 오는 사태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심리술어의 주어가 3인칭이 와도 되지만[117], '-니까' 앞에 오는 사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심리술어의 주어가 3인칭이면 어색하다는 것이 박소영(2022)의 주장이다. 단, (16)처럼 '-니까' 절의 후행절을 명사화시켜 '-은 것이다', '-은 것 같다' 등의 표현을 결합시키면 현저하게 나아진다고도 제시하였다.

---

117) 주관적 내면이라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자가 주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심리술어의 주어 인칭 제약이었다(2.2.1.). 이는 화용론적인 제약으로 만일 타인의 내면도 화자가 잘 알고 있다는 맥락이 선행한다면, 인칭 제약 또한 완화될 수 있다(2.2.2.).

(14) ㄱ. {나는/영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화를 냈다.
ㄴ. {나는/철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15) ㄱ. {나는/??영이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화를 냈다.
ㄴ. {나는/??철이는} 너무 기쁘니까 눈물을 흘렸다. (박소영 2022:30)
(16) ㄱ. 영이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화를 낸 것이다/것 같다.
ㄴ. 철이는 너무 기쁘니까 눈물을 흘린 것이다/것 같다. (박소영 2022:31)

가령, (14)의 '-어서'절은 이미 사실로 전제되는 원인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는다.[118] 영이의 내면이지만 타인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맥락이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주관성에 의한 주어 인칭 제약이 완화된 환경이며, 3인칭 주어의 내면이라도 '-어 하-' 없이 나타낼 수 있다.

반면 (15)의 '-니까'에 선행하는 절은 후행 사태의 원인이 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후행 사태의 이유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관적 상태는 '-니까'에 선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15)의 후행절 사태가 타인의 행동을 단언하는 형식이 아니라 (16)처럼 추측의 표현이 추가된다면 수용성이 나아진다.

그런데 앞서 주관적 상태는 '-어 하-'와 결합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 타인도 알 수 있게 되어 주어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15)의 '고프니까, 기쁘니까'에 '-어 하-'를 결합하여 (17)과 같이 나타내어도 수용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용성이 비교적 높았던 (16)도, 오히려 '-어 하-'가 결합하면 (18)과 같이 어색하다. (17, 18) 모두 '-니까' 대신 '-어서'가 들어갈 때 더 자연스럽다.

(17) ㄱ. 영이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 ?배를 너무 고파하니까} 화를 냈다.
ㄴ. 철이는 너무 {?기쁘니까 / ?기뻐하니까 } 눈물을 흘렸다.
(18) ㄱ.영이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를 너무 고파하니까} 화를 낸 것 같다.
ㄴ.철이는 너무 {기쁘니까 / ?기뻐하니까 } 눈물을 흘린 것 같다.

118) 박소영(2022:33)은 '지각구 투사'를 통해 설명한다. 심리술어는 기본적으로 경험주만의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므로 지각구 투사에 의해 인칭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어서'는 객관적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어서' 절 내부에는 지각구가 투사되지 않아 심리술어의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 반면에 '-니까' 절은 주관적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절 내부에 화자 지향 지각구가 투사되어 인칭 제약이 완화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어서'절은 '-어 하-'가 결합하면(19) 의미 차이는 생길 수 있더라도 '-니까'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119]

(19) ㄱ. 영이는 배를 너무 고파해서 화를 냈다.
ㄴ. 철이는 너무 기뻐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차이는 박소영(2022)이 지적한 것처럼 '-어서'는 객관적 사실이 올 수 있지만, '-니까'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니까'는 화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내용이 오는 어미로, 타인의 행동과 그 이유가 되는 타인의 내면은 원래부터 '-니까'로 나타내기 어렵게 된다. 박지용(2020:135-6)도 [원인·이유]의 '-어서'가 쓰인 발화는 '사태-중심적(event-oriented) 발화', '-니까'가 쓰인 발화는 '화자-중심적(speaker-oriented) 발화'라고 정리한 바 있다.[120] 실제 말뭉치에서 '-어 하-+-니까' 구성을 검색했을 때, (20)과 같이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거나, (21)과 같이 '-니까' 절이 단독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1)의 '-니까'는 단독으로 종결되는 어미에 가깝다.

(20)ㄱ. 오디는 너무 착해서 **내가** <u>무서워하니까</u> **(오디가)**어쩔 수 없이 내 손을 잡아준 거야.
ㄴ. **연이가** <u>즐거워하니까</u> **나도** 즐겁다.
ㄷ. **자네$_i$가** 너무 <u>상심해하니까$_i$</u> ($\varnothing_j$) 훈장 수여식을 훗날루 연기하셨네$_j$.
(21)ㄱ. 하지만 누구도 김 전대통령에게 말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홍 선배를 <u>두려워하니까요</u>.

---

119) '영이는 배를 너무 고파해서 화를 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보다는, 계기적 용법으로 이해할 때 더 자연스럽다. 가령 '영이는 배를 너무 고파해서 급기야는 화까지 냈다'는 앞선 문장보다 훨씬 수용성이 높아진다. 두 사건이 시간적 선후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어 하-'의 관찰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원인 사태를 이끄는 '-어서'가 제시되었을 때는 원인 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단언될 뿐이지만, '-어 하-'가 통합하면 화자가 관찰한 것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단언되었던 사태가 새로운 정보로써 자세하게 기술된다. 즉 정보성 측면에서 후행절만큼이나 선행절 사태에도 초점이 두어지므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120) 박지용(2020)은 주관성과 관련하여 '-어서', '-니까'의 차이를 설명하고, 화자가 사태를 인지하고 진술하는 위치인 관점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을 제시한 논의이다. '-어서', '-니까' 절에서 나타나는 관점 이동의 양상을 다루었다.

ㄴ. 정말이 아니라서 안심예요, 쥐를 무지하게 무서워하니까, 사실이라면 댁에 두 번 다시 못 왔을 테니까.

반면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게 나타났던 '-어 하-+-니까' 구성의 용례는 매우 적었으며, 다음과 같다. (22, 23)에서 후행절 주어는 선행절 '-니까' 절의 주어와 동일한데, 이때 '-어 하-'가 결합한 것은 주관적 내면 상태를 객관화한다는 요인에서라기보다 주어의 평소 습관을 나타내는 듯하다. 즉, 후행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유가 되는 현재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주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듯하다. 강한 인과관계로 묶이기보다는, 계기적 관계로 접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이때의 '-어 하-'는 습관상을 나타내기 위해 통합한 것으로, (17, 18)의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어 하-'가 통합 가능하게 된 것으로 정리해두고자 한다.

(22) 문득 잉어를 보니 배가 슬슬 고프다. **나는** 배가 고픈 것을 워낙 싫어하니까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스카를 돌아보았다.

(23) **할머닌** 혼자 사시니까 언제나 반찬이 남잖아요. 아까워하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5.3. '-어 하-' 통합이 수의적인 후행요소

'-어 하-'가 통합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모두 나타나서 통합 양상이 수의적으로 보이는 통사적 환경들이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을, '-어 하-' 통합이 수의적인 후행요소로 묶어 제시한다. 5.3.1.은 내포절 어미, 5.3.2.는 선·후행절 주어가 같은 [원인]의 연결어미 '-어서'를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어 하-'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도 함께 간단히 살펴본다. '-어 하-'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통합한 경우, '관찰'의 의미가 강조되어 현장감 있게 옮길 수 있다.

5.3.1. 내포절 어미

5.3.1.1. 동사가 요구하는 보절

한국어, 일본어의 내포절 구성에서는 주관성이 높은 어휘의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고 지적되어 왔다.[121] 이는 '-어 하-'(혹은 그에 대응하는 인칭 제약 완화 기제) 통합의 필수성을 낮추어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Kuroda(1973)는 일본어의 감정·감각형용사가 관계절에 사용될 때, 그리고 한국어의 '-ㄴ 것이다' 구문에 가까운 'noda'절에 종속될 때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atui(덥다)'는 주절 환경의 (24, 25)와 달리, 내포절 환경의 (26, 27)에 올 때 3인칭 주어의 감정·감각 표현에 사용되는 증거성 표지 '-garu'가 사용되지 않고 무표적으로 실현한 형태와 '-garu'가 사용된 형태 모두 가능하다. '-garu'는 한국어의 '-어 하-'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24) ㄱ. Watasi wa atui. 'I am hot(나는 덥다)'
ㄴ. *Anata wa atui. 'You are hot(??너는 덥다)'
ㄷ. *John wa atui. 'John is hot(??존은 덥다)'
(25)ㄱ. Watasi wa atu**gatte** iru. 'I am hot(나는 더워하고 있다)[122]'

---

121) 한국어, 일본어에서 주관적 경험의 표현은 현재시제에서 그 주어의 인칭이 평서문에서 1인칭, 의문문에서 2인칭이어야 하는 제약을 갖는다고 제시되었다(2.2.1. 참조). 주관적 경험은 그것을 느낀 경험주가 가장 잘 아는 정보이므로, 타인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맥락이 없다면 경험주가 직접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주관적 경험이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 정보 습득 경로(지각, 추측, 전언 등), 즉 증거성을 유표적으로 표시하여 무표적인 단언 형식을 피하게 된다면, 인칭 제약은 완화될 수 있었다(2.3.2. 참조).

122) 이 예문(6가)에 대해서 Kuroda(1973)와 Tenny(2006:271)가 서로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Tenny(2006:271, 284)에서는 이 예문을 비문이라고 판단하며, 대다수 화자들이 '-garu' 문장은 비-화자 제약(1인칭이 오면 안 됨)을 갖는다고 보았다. 다만 수용 가능한 맥락이 명령문에서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의도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평서문, 의문문에서도 '의도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며 추후 연구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이러한 문장의 수용성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개인 언어(idiolects)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다.

(보기) Kanasii nara motto kanashi-**gare**-yo
Sad-conditional more sad-GARU-YO
'If you are sad, why don't you show it more?'
(Tenny 2006: 284의 예문)

한국어로는 '만일 슬프다면, 더 슬퍼하지 그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ㄴ. Anata wa atu**gatte** iru. 'You are hot(너는 더워하고 있다)'

ㄷ. John wa atu**gatte** iru. 'John is hot(존은 더워하고 있다)'

(26)ㄱ. Mary wa sabishii noda. 'Mary is lonely(메리는 외로운 것이다)'

ㄴ. Mary wa sabishi**gatte** iru noda 'Mary is lonely(메리는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다[123])'

(27) ㄱ. atui hito
hot-TNS man 'hot man(더운 사람)'

ㄴ. atu**gatte** iru hito
hot-GARU-TNS man 'hot man(더워하는 사람)'

(Tenny 2006:271)

Tenny(2006:249)는 이에 대하여, 절 혹은 동사에 표시되는 증거성이 인칭 제약을 완화한다고 보았다. noda는 절적(clausal) 증거성, '-garu'는 어휘적 증거성[124]으로서 인칭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다. (24, 25)은 주절 환경에서 '-garu'를 통해 인칭 제약이 해소되지만, '-는 것이다' 구문에 해당하는 noda절에 내포된 환경인 (26)은 두 가지 인칭 제약 해소 방법이 모두 사용된 경우를 보여준다. Kuroda(1973:9-10)는 'no one doubts(~이 틀림없다)'에 종속된 감각·감정 형용사의 경우에도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고 하였는데, Tenny(2006:252)에서는 절 명사화(nominalization of a clause)가 일어날 때로 정리하여 내포절 환경임을 분명히 하였다.[125]

이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내포절 환경에서 나타난 한국어의 감정·감각 상태 어휘를 살핀 연구들이 있었다(이정민 2016, 노은주 2018, 허세문 2020, 박소영 2022 등).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23) 예문은 Kuroda(1973: 20-21, 381)의 예문을 가지고 왔으며, 이에 대한 한국어 해석은 노은주(2018: 26-27)을 참고하였다.

124) Tenny(2006:252)에서는 '*samui/samugaru*(be cold)', '*sabishii/sabishigaru*(be lonely)', '*kanashii/kanashigaru*(be sad)', '*atui/atugaru*(be hot)'을 예로 들며 이러한 짝이 여럿 있지만, 생산적이지 않아 그 짝을 목록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적 증거성으로 파악한 듯하다.

125) Tenny(2006:252)의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보기) Mary ga sabishii koto wa dare mo utagawani
Sub lonely-TNS the-fact-that Top nobody doubt-NEG-PRESNT
'No one doubts that Mary is lonely'

이 또한 명사절이 'no one doubts'에 내포된 것으로, 내포절 구성의 예이다.

(28) ㄱ. 아유, 장난감이 고장 나서, 우리 공주가 지금 엄청 슬프**구나**. (cf. 슬퍼하는구나)

ㄴ. 땀 흘리는 거 좀 봐. 에어컨을 틀어도 애들은 덥**네**. (cf. 더워하네)

ㄷ. A: 유나가 방학 때라, 외롭지 않나?

B: 외롭**지**. (cf. 외로워하지) 친구들이 모두 고향에 내려갔잖아.

(29) ㄱ. 에어컨 좀 켜. 아기 덥**겠**어. (cf. 더워하겠어)

ㄴ. 유나도 외로**울까**? (cf. 외로워할까?)

(30) ㄱ. 문제는 네가 외롭**다는 것이다**. (cf. 문제는 네가 외로워한다는 것이다)

ㄴ. 유나가 외로운 것**은 틀림이 없다**. (cf. 유나가 외로워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9~11의 예문은 노은주(2018:36)에서 인용, 괄호는 본고에서 제시)]

(28)의 인식 양상 종결어미, (29)의 추측 표현, (30)의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 등은 정보의 출처가 화자의 생각, 추측, 판단임을 표시하므로, 타인의 내면에 대해 말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노은주 2018:36). '-대, -다고' 등의 인용표지, 즉 전언의 증거성 표지도 타인의 말을 전해들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맥락이 제공되므로, 인칭 제약이 완화된다(박재희 2014, 2017, 노은주 2018). 따라서 인칭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하던 '-어 하-'는, 인칭 제약이 증거성이 표시된 맥락에 의해 완화됨으로써 반드시 통합할 이유가 사라진다. 즉, '-어 하-'는 잉여적이다. 따라서 (29~30)의 예문에 '-어 하-'가 통합되든 통합되지 않든 무방한 것이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30)의 예문에서 화자의 판단이 '-다는 것이다', '틀림이 없다'와 같은 구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ㄴ 것'과 같은 명사절이 내포된 환경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31) 또한 내포절로 특정 개인의 내면 상태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

(31) ㄱ. 영이는 {내/네/그}가 배가 고픈 것을 알아차렸다. (박소영 2022:13)

ㄴ. 영이는 {내/네/그}가 배고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31)의 예문에서 주관성이 높은 '배(가) 고프-'라도 주어 인칭과 관계없이 '-어 하-'가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다. 이는 서술어 '알아차리-'가, 그것

이 취하는 보절을 사실로 전제하는, 전제 유발 표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Tenny(2006:252)가 제시한 '틀림없다',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등에 해당하는 표현도, 보절이 사실로 전제되는 표현들이라는 점에서 Tenny(2006)의 '절 명사화' 또한 (31)처럼 '전제 유발 술어의 보절'에 해당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내면은 일반적으로 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경험 주체 아닌 화자는 이에 대해 단언하기에 부담이 있다. 그러나 내포절의 서술어 자리에 개인의 주관적 내면 상태가 오게 된다면, 주절에 비하여 단언의 강도가 낮다. 주절의 동사 의미에 따라 내포절의 진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언의 요구 정도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31)과 같이 전제 유발 술어의 보절 자리에서는 인칭 제약이 무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어 하-' 또한 통합이 수의적이고, '-어 하-'가 통합한다면 '동작성'이 강조된다거나 '관찰'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어 하-'의 자유로운 통합은 반드시 보절이 사실로 전제되는 표현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듯하다. 내포절의 명제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모르-, 생각하-' 등의 경우에도, 내포절의 주어 인칭과 관계없이 주관적 경험의 서술어에 '-어 하-'가 자유롭게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32)는 '-어 하-'가 통합하지 않든, 통합하든 모두 주어 인칭과 관계없이 자연스럽다.

(32) ㄱ. {내/네/찬우}가 얼마나 {힘든지/힘들어하는지}를 모르다
ㄴ. {내/네/찬우}가 얼마나 {힘든지/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하다

'생각하다, 모르다' 등의 명제태도 술어가 갖는 내포절은 '가능 세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해볼 수 있다(허세문 2020:417). 가능 세계에 대한 진술 표현은 주절이 해석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증거 획득의 직접성'과 관련된 제약들(본고의 논의에서는 주관성으로 인한 인칭 제약)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내포절 명제의 사실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명백하게 참이라고 전제되거나, 아예 참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증거성의 실현 측면 또한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명백하게 참으로 전제되는 전제 유발 동사의 내포절에 주관적 경험 표현이 사용된 경우 화자가 이미 잘 알

고 있는, 자신의 관할권 내의 정보이므로 '-어 하-'의 통합과 같은 간접 언어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명제태도 술어의 내포절에 주관적 경험 표현이 사용된 경우, 정보 자체의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점에서 증거성의 실현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어 하-'의 통합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어 하-'의 통합이 비필수적인 통사적 환경이지만, '-어 하-' 통합이 나타나게 되면 '관찰'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듯하다. 보절의 명제가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관찰되는 의미가 강조된다. 이는 앞서 살핀 '-어 하-'의 '관찰'의 의미가 형성될 수 있게 기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5.3.1.2. 관형사절

한편 한국어의 내포절 환경 가운데 '관형사절' 또한 '-어 하-' 통합이 자유로운 통사적 환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7)의 일본어 예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적된다. 아래 (33)으로 다시 제시하였다.

(33) [=(27)과 같음]

ㄱ. atui hito
hot-TNS man 'hot man(더운 사람)'

ㄴ. atu**gatte** iru hito
hot-GARU-TNS man 'hot man(더워하는 사람)'

(Tenny 2006:271의 예문)

(33)은 관형사절에 쓰인 감각형용사가 '-garu'를 취하는 것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도 이것이 드러난다. (34)와 같이 명사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관형절의 경우, '-어 하-'가 주어 인칭과 관계없이 수의적으로 올 수 있다.

(34) ㄱ. 목이 길어 <u>슬픈/슬퍼하는</u> 짐승
ㄴ. 내가 타고 <u>싶었던/싶어했던</u> 차[126]

126) 박진호(2011: 312)에서도 '-고 싶-'에 비하여 '-고 싶어하-'는 인칭 제약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고 싶-'은 태도의 담지자가 화·청자로 제한되는 반면 '싶어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로 문장이 아닌, 명사구의 구성 요소라는 특징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명사구의 경우 그것이 실세계에 실제 지시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명사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경우 또한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 문장 유형, 증거성 등이 표시될 필요가 없는 등 비한정적(non-finite)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 수 있다. 즉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화용적 측면이 짙은 자기조응성, 증거성 등의 범주 또한 적용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관형절이 갖는 수식의 기능 자체에 집중해볼 수 있다. 수식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이뤄진다. 어떠한 경로로든 화자가 잘 알고 있거나 직접 눈앞의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 수식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절 위치 자체에 이미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정보라는 맥락이 충족되어 있다. 그 결과 '-어 하-'의 통합 없이 단언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어 하-'를 통해 화자가 관찰하여 알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통사적 환경에 의해 타인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맥락이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5) 걱정스러운 표정

박형진(2016)에서는 관형절의 수식 기능이 피수식 명사의 속성을 기술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대상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는 객관형용사의 성격과 닮아 있다고 하였다. 즉 (35)의 '걱정스럽-'이 주관형용사지만 '-어 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표제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관형사절의 통사 구조에서 '심리 상태와 관련된 의미를 속성으로 대상에 부여하는 객관형용사'로의 의미기능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걱정스러운 표정' 외에도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 '동생이 예쁜 철수'라고 하였을 때 '동생을 예뻐하는 철수'인지, '예쁜 동생이 있는 철수'인지의 중의성이 발생

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고 싶어하-'의 경우, 관형절 구성에서만 인칭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결형에서도 인칭 제약이 덜한 듯하다는 점에서 별도 어휘적 특성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관형절+명사] 구성에서도 주관형용사로서 쓰임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형절 구성 자체가 속성의 객관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듯하다.

관형사절이 후행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능을 떠올려볼 때, 그 내용은 화자의 정보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화자의 정보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정보는, 증거강도가 높은 무표적 단언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타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것을 '-어 하-'로 구별하여 표시하는 언어적 관습의 영향으로 '-어 하-'가 잉여적으로 통합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때 '-어 하-'가 잉여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은, 수의적으로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어 하-'가 통합하면 별도의 의미가 강조된다. 앞서 4장에서 우리는 '-어 하-'가 필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관형절이나 관찰의 맥락에서 빈번하게 '-어 하-' 통합형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어 하-'가 묘사나 관찰의 맥락에 빈번하게 출현하면서, 해당 맥락이 갖는 '관찰'의 의미가 '-어 하-' 구성의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어 하-'가 부차적으로 통합하여 선행요소의 현장감 있게 내용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의미가 덧붙을 수 있다. 예컨대 '더운 사람', '더워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은 같으나, '더운 사람'보다 '더워하는 사람'이 더 '사람'의 더운 현재 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묘사한 의미가 더해진다.

5.3.2.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원인] 어미 '-어서'

앞서 '-어서'는 객관적 원인이 되는 사태가 내포된다고 하였다. '-어서' 절은 이미 사실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는 의미유형의 절인 것이다. 타인의 주관적 경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서'의 특징으로 인해 화자의 정보관할권 내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정보로 간주된다. 이의종(2012)은 아무 표지 없이 무표적으로 단언한 형식이 가장 증거 강도가 높으며, 화자의 정보관할권 내의 정보라는 것을 표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 의견을 수용하면, '-어서' 절에 오는 주관적 경험 표현은 객관적인 원인으로 화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로, 이를 표시하기 위해 '-어 하-' 없이 무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타인의 '심리'에 대한 정보임을 중시하고 이를 주어 인칭 제약과 같은 별도의 형식으로 구별하던 언어적인 관습의 영향으로, '-어 하-'를 잉여적으로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잉여적인 '-어 하-' 통합이 일어나더라도 '-어서'에 의한 종속절의 의미유형에 근거하여 정보의 진위가 사실이며 화자가 이를 잘 알고 있음이 전제되므로, '-어 하-'가 반드시 통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36) ㄱ. 철수는 귀신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ㄴ. 철수는 귀신을 무서워해서 비명을 질렀다.

단, '-어 하-'가 통합함으로써 의미 차이는 존재한다. (36ㄱ)은 후행절 '비명을 지른 행위'의 원인으로 철수가 특정한 귀신을 보고, 그에 대해 무서움의 감정을 느낀 것을 서술한 것으로 읽힌다. 그에 비해 '-어 하-'가 통합한 (36ㄴ)은 평소 철수의 특징이 계기적으로 작용하여 후행절 사태의 '비명을 지른 행위'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어 하-'가 습관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6.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현대 공시적인 문법 요소로서의 '-어 하-' 구성이 보이는 분포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간 '-어 하-'는 심리·감각형용사와의 결합 구성을 대상으로 '동사화', '인칭 제약의 완화', '자기조응성, 증거성 등 양태적 의미' 등등의 기능을 한다고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각 기능은 '-어 하-'가 나타나는 모든 구성에 적용되기 어렵다. '-어 하-'는 심리·감각형용사가 아닌 형용사, 동사, 구 구성 등 다양한 범주 뒤에서도 나타나므로, 그 의미기능도 선행요소만큼이나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한 뒤, '-어 하-'를 여러 의항을 갖는 문법 구성으로 기술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보이고자 하였다. 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 하-'의 통합 양상을 선행요소와 후행하는 문법 요소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어 하-'의 선행요소로 나타난 목록을 제시하였다. 감정·감각 의미가 가장 항목이 많았으나, (인간) 성격·태도, 신체 동작을 묘사하는 의미도 꽤 발견되었다. 감정·감각 의미도 세분화하면 '기쁘다, 두렵다'와 같이 개인의 내면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화자 중심 감정·감각 용언과, '못 견디다, 겁내다'와 같이 내면 상태와 그에 기반한 외현적 행동을 함께 나타내는 주어 중심 감정·감각 용언으로 나누었다. 각 의미유형은 주관성(subjectivity)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묶었다. 개인의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화자 중심 감정·감각 용언은 발화시의 화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현재시제에서 주어가 1인칭 화자로 제약되고, 따라서 주관성이 높은 부류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의미유형들은 타인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화자 주어만으로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로 묶었다.

선행연구의 목록과 본고의 목록을 대조한 결과, 신체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본고에서 새롭게 발견된 선행요소였다. 웹 검색까지 포함하면 '생각해하-, 고민해하-'와 같은 예외적인 통합 현상이 더 발견된다. 이들은 화자에

따라 수용성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인물을 묘사·관찰하는 특정한 맥락에서 '-어 하-' 통합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어 하-'의 선행요소 목록이 점차 확장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분류에 따라 '-어 하-'의 통합 요인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주관성이 높은 부류와 '-어 하-'의 통합 요인은,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 '동작성 요구', '관찰 의미 강조' 등이 있다. 반면 주관성이 낮은 부류는 이미 외현적으로 드러나며 일부는 내면 경험과 무관한 의미도 있으므로 '주관적 내면의 객관화'가 그 통합 요인이 될 수 없는 대신, '동작성 요구', '관찰 의미 강조' 등의 나머지 통합 요인이 관여한다.

이때 '-어 하-' 구성의 '관찰' 의미는, 3인칭 주어의 내면 상태가 '-어 하-'와 통합하여 객관화되는 맥락으로부터 추론된 의미가, '-어 하-' 구성 자체의 의미 일부로 굳어진 것으로 정리하였다. '-어 하-'는 인칭과 무관하게 동작성 의미를 더한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관찰될 수 있는 의미에도 빈번히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찰의 맥락에서 인칭과 무관하게 '-어 하-' 통합형이 자주 쓰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 하-' 구성 자체가 '관찰'의 의미를 더하는 구성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장의 예외적 통합이 관찰 맥락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도 '-어 하-'의 '관찰' 의미를 매개로 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 하-'가 공시적인 문법요소로써 활발히 사용되며, 그 분포 또한 확장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5장에서는 '-어 하-'에 후행하는 요소가 통합 양상의 필수성과 수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4장에서 논의된 통합 요인이, 주어진 통사적 환경과도 상호작용함을 보이고자 했다. '-어 하-'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라도, 후행하는 문법요소에 따라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수의적으로 달리 실현된다. 먼저 다음의 문법 요소가 후행하였을 때, '-어 하-'가 대체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시 화행 표현", "진행상 구성", "후행절과 주어가 다른 [원인]·[이유]절 어미" 등으로, 동사의 상적 특성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도급]·[정도] 의미의 어미 '-도록'",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이유]절 어미 '-니까'" 뒤에서는 '-어 하-'가 잘 통합하지 않는다. 동작성이나 관찰의 의미로 나타내낼 수 없는 의미의 환경이라는 점이 '-어 하-' 통합을 막은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내포절 어미", "후행절과 주어가 같은 [원인] 어미

‘-어서’” 뒤에서는 ‘-어 하-’가 자유롭게 통합한다. 이들은 이미 참으로 전제되거나 진위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게 되어 관찰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화자가 알고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이때 ‘-어 하-’가 통합한다면, ‘관찰’의 의미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처럼 ‘-어 하-’ 구성은, 여러 의항을 가지고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공시적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시적 문법 구성으로서 ‘-어 하-’의 특징을 보이고자 하였다. ‘-어 하-’는 맥락으로부터 별도의 의미기능이 형성되기도 하며 구어의 특정 맥락을 중심으로 분포가 확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소략한 주장이었다. 어떤 표현에 ‘-어 하-’가 붙을 수 있고 붙을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 하-’ 통합이 필수적이고 수의적인지 등은, ‘-어 하-’의 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고민해볼 문제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어 하-’의 의미기능은 단순히 하나로 제시되기 어려우므로 세부 분포에 따른 특징 및 의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후행 요소 모두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관찰’, ‘동작성’의 의미기능을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맥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문법요소의 이해 및 교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고는 그 밑작업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미진한 점들이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첫째, 본고는 현대국어의 ‘-어 하-’ 구성에만 치중하여, 통시적 측면에서 세밀한 비교를 하지 못했다. 일부 예외적 의미유형은 15세기의 용법이 그대로 남은 것일 가능성을 간단히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기준을 세워 세부 목록의 의미유형을 면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행해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둘째, ‘-어 하-’의 통합 양상에서 격틀 변화 현상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개별 단어에 따라 격틀이 다르게 변화되는데, 가령 ‘고맙다, 당황하다’는 ‘NP1-이 NP2-가 V’의 격틀로 동일하지만 ‘-어 하-’가 결합하면 ‘NP1-가 NP2-{에/를} 고마워하다’, ‘NP1-가 NP2-{에/*를} 당황해하다’로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논의가 될 것이다.

셋째, 이 글에서는 관형사절의 ‘-어 하-’가 수의적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심리형용사와 ‘-어 하-’ 통합형의 대응에서 관계화, 주제화의 상관관계

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나는 호랑이가 겁난다/겁낸다’에서 대상 ‘호랑이’를 표제명사로 관계화할 때, 전자는 ‘나는 {*겁나는/겁나하는} 호랑이’로, 후자는 ‘나는 {겁내는/겁내하는} 호랑이’로 된다. 만일 ‘나는(경험주) 겁나는 호랑이(대상)’가 자연스러우려면 ‘나’는 ‘나에게는 겁나는 호랑이’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주제화되어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겁내다’는 이와 달리 ‘-어 하-’ 통합에 따른 수용성 차이가 없다. 주관성의 정도에 따라 두 자리 논항을 갖는 감정·감각 용언의 관계화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듯한데, 이 글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넷째, ‘-어 하-’의 통합과 통사적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논할 때 종속절 ‘-어서’, ‘-니까’의 구별을 소략하게 하였는데, 이 두 어미는 선·후행절 주어의 동일성, 후행절의 화행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관여하므로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었으나, 논의의 한계상 많은 내용을 생략하여 간단히만 제시하였다. 주관적 표현에 주로 쓰이는 ‘-어 하-’ 구성을 관점 및 주관성과 관련되는 기타 어미들과도 관련해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그친 점이 아쉽다.

이상의 아쉬운 점들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강흥구(1997), ([V1]+V2)구조 동사구에서 V2의 통사·의미적 특성, ≪한어문교육≫ 5, 239-255.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고은숙(2008), 한.일 양국어 형용사의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3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89-308.

고은숙(2012), ≪한일 양국어 형용사 연구≫, 인문사.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형태·통어론≫, 박이정.

김동환(2001), 주관화와 의미확장, ≪현대문법연구≫ 23, 현대문법학회, 127-148.

김민국(2010),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영(2010), 내부 감각 용언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319-344.

김성화(1990), ≪현대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51-165.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완진(1973), 국어 어휘 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34-59.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섭(1994), ≪국어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_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태환(2018), 서사적 과거와 화자의 이론,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89-527.

김흥수(1989), '좋다' 구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211-223.

김흥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 출판사.
남기심·루코프(1983),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의 구문과 '-아서'의 구문, 고영근·남기심 편,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남지순(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1, ≪어학연구≫ 2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75-101.
노은주(2018), 사적 술어의 인칭 제약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언어≫ 43(1), 한국언어학회, 21-42.
도원영(2008),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태학사.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문숙영(2015),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국어학회, 33-88.
문숙영(2017),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박소영(2020), 담화 맥락과 통사론_한국어 인칭 제약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언어와 정보 사회≫ 4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47-177.
박소영(2022), 심리술어와 증거성, 그리고 주어 인칭 제약 및 완화의 통사론, ≪인문학연구≫ 5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42.
박용식(2004),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의 '-어하(ㅎ)-' 의미 고찰,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51-67.
박재희(2017), 경험주 논항과 심리 표현 형용사 구문의 의미·통사구조.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35-64.
박지용(2020),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수(2017), 한국어 복합 심리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02),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박형진(2016),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09-135.
석주연(2013),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의 제시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표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51-73.
손세모돌(1993), 보조용언의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화≫ 11, 한국언어문화학회, 27-46.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재목(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1), 형태론연구회, 1-23.
송재목(2009),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과 통사영역,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21-228.
송재목(2015), 증거성과 인칭의 상호작용, ≪언어학≫ 7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11-132.
양정석(1997), ≪개정판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양정석(2015), 기준 판단자의 도입과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언어와 정보≫ 19(1), 한국언어정보학회, 119-146.
양정석(2017), ≪주관적 판단의 문법: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한국문화사.
양해승(2015),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규환(2021), 한국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유형과 특성, ≪국어학≫ 97, 국어학회, 293-339.
오미나(2013), -어 하다 결합형의 한국어 교육용 목록과 교수 방안, ≪

한국어와 문화≫ 1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33-264.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221-258.
유현경(2004), 한국어에 심리타동사가 있는가,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7-49.
유현경(2012), 한국어 감정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32, 한국사전학회, 35-60.
유현경(2017), 한국어 용언의 인칭 제약에 대한 연구, ≪국어학≫ 83, 국어학회, 65-92.
유현경(2018), 한국어 감정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32, 한국사전학회, 35-60.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이광호(1997)), '-어하다' 동사의 의미, ≪어문논총≫ 31, 구경북어문학회, 1-14.
이남경(2007), 인식의 창(窓)으로서의 지각, ≪슬라브학보≫ 22(4),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1-41.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선웅(2019), 한국어 인칭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험_목정수(2014)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01-625.
이익섭(1978), 피동성 (被動性) 형용사문의 (形容詞文) 통사 (統辭) 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65-84.
이익환·이민행(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이익환(1994), 국어심리동사의 상적특성, ≪애산학보≫ 15, 애산학회, 25-45.
이원경(2006),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 ≪담화와인지≫ 13(1), 담

화인지언어학회, 163-182.
이원표(1999), 인과 관계 접속 표현, ≪언어≫ 24(1), 한국언어학회, 123-158.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이정민(1994), 심리술어의 상에 관한 문제, ≪애산학보≫ 15, 애산학회, 1-23.
이정민(2016), 심리술어와 1인칭: 증거성의 문제, ≪언어≫ 41(4), 한국언어학회, 679-713.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지은(2021), 자기조응성의 개념 및 인접 범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언어≫ 46(4), 한국언어학회, 151-200.
이현희(2009),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54, 국어학회, 165-196.
이호승(2009), [V-어+지다], [V-어+하다] 구성과 복합서술어,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77-98.
임동훈(2021), 부차개념의 통사적 실현과 보조동사 구문, ≪국어학≫ 97, 국어학회, 59-88.
임홍빈(2018), ≪한국어의 재구조화 1≫,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경준(1998), '어 하(ㅎ)-'의 통합 현상에 관한 연구-현대국어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준(1999), 현대 국어 '-어 하다' 구성의 문법 범주와 사전 기술, ≪언어사실과 관점≫ 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27-264.
전영철(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51-76.
정문수(198),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풀이씨의 분류, ≪문법연구≫ 5, 51-85.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정연주(2010), '-어 하-'와 통합하는 객관형용사의 의미 특성, ≪한국

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297-319.
정연주(2011), 형용사의 경험주 논항 처리 방안:심리형용사에서 성상형용사, 성상형용사에서 감각형용사로의 전용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209-238.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해권 정경아(2021), 한국어 종결어미 '-다'의 자향성 분석, ≪국어학≫ 99, 국어학회, 107-135.
정해권(2020), 한국어 자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 45(2), 한국언어학회, 351-372.
조형원(202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형용사 인칭제약 연구_시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최병규(2016), 형용사의 구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52, 한국일본근대학회, 7-28.
최웅환(2002), 1인칭 주어제약 구문의 문법성과 통사적 표상, ≪어문학≫ 76, 한국어문학회, 95-117.
최정진(2005), 'X+-어 하-' 構成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7-134.
한송화(2000), 한국어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양태기능, 화행적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9-209.
허세문·임동식·박유경(2015), 화자지향 심리술어와 증거성 표지 '-더-'의 1인칭 제약, ≪언어와 정보≫ 19(3), 한국언어정보학회, 81-107.
허세문·박유경(2016), '-어서' 절과 '-니까' 절의 의미 차이에 대한 연구, ≪언어학≫ 7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99-247.
허세문(2017), 주관적 심리술어의 의미와 제약에 대한 통사적 접근, (사)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 대회, 충북대학교.
허세문(2020), 한국어의 다양한 인칭 제약에 대한 소고, ≪언어와 정보사회≫ 4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91-426.

허웅(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 가지 문젯점,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53.
황병순(1992), 'V어하다'와 'V어지다'의 형성원리에 대한 연구, ≪배달말≫ 17, 배달말학회, 1-36.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ndix, Edward(1992), The grammaticalization of responsibility and evidence: Interactional potential of evidential categories in Newari, In *Responsibility and Evidence in Oral Discourse,* Jane H. Hill and Judith T. Irvine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6-247.
Bergqvist, Henrik and Seppo Kittilä.(2017), "Person and knowledge: Introduction", *Open Linguistics* 3, 18-30.
Bergqvist, Henrik and Seppo Kittilä(2020), Epistemic perspectives: evidentiality, egophoricity, and engagement, In Henrik Bergqvist and Seppo Kittilä (eds.), *Evdientiality, Egophoricity, and Engagement*,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21.
Bergqvist, Henrik(2021), Egophoricity and Perspective: A view from spoken swedish, *Frontiers in communication* 6, Frontiers Media S.A., 1-13.
Berlin, B and Kay, P.(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urzio, Luigi(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Bybee, Joan(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lmers, David(2010), How Can we Construct a Science of Consciousness?, In Gazzaniga, M.S. (ed.) *The Cognitive Neurosciences* (4th Edi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Chalmers, David(2011), A Computational Foundation for the Study of

Cognitio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2, 325-359.

Cook, Eung-Do(1968), Embedding Transformations in Korean, Ph.D. dissertation, The Univerity of Texas at Austin.

Croft, William(2001), *Radical Construct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urnow, Timothy J.(2002a), Types of interaction between evidentials and first-person subjects,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44, 178-196.

Curnow, Timothy J.(2002b), Conjunct/disjunct marking in Awa Pit, *Linguistics* 40(3), 611-627.

Davidson, Donald(1984), First person authority, *Dialectica* 38, 101-111.

Floyd, Simeon, Elisabeth Norcliffe, and Lila San Roque (eds.)(2018), *Egophoricity*,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Floyd, Simeon(2018), Egophoricity and argument structure in Cha'palaa, in *Egophoricity,* Simeon Floyd, Elisabeth Norcliffe and Lila San Roque (eds.),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269-304.

Garrett, Edward J.(2001) Evidentiality an Assertion in Tibet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Grimshaw, J.(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Hale, Austin.(1980), Person markers: Finite conjunct and disjunct verb forms in Newari, in Ronald L. Trail (ed.), *Papers in Southeast Asian Linguistics* 7[Pacific Linguistics Series A, 53],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95-106.

Hargreaves, David(2005), Agency and intentional action in Kathmandu Newar, *Himalayan Linguistics* 5, 1-48.

Jäger, Gerhard(1999), State Level, States, and the Semantics of the

Copula, *ZAS Papers in Linguistics* 14, 65-94.

Kamio, Akio(1997), *Territory of Inform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Kalsang, Jay Garfield, Margaret Speas, and Jill de Villiers(2013), Direct Evidentials, Case, Tense and aspect in Tibeta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1, 517-561.

Kuno, Susumu(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 The MIT Press.

Kuroda, S.-Y(1973), Where Epistemology, Style, and Grammar Meet: a Case Study from Japanese, in S. Anderson and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377-391.

Kim, Young-joo(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D. disseratation, Harvard University.

Kwon, Iksoo(2014), The Viewpoint Shifter '-eha-' in Korean and How it Affects Causal Event Structure, *Language Sciences* 42, 30-42

Kwon, Iksoo, and Kim, Ji Hyn(2016), Inferential evidentiality, distance, and embodiment, ≪언어와 언어학≫ 73,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31.

Langaker, Ronald 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ee, Hong-Bae(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h.D. disseration, Brown University.

Lee, J. M.(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256-296.

Lehmann, Christian(2011), Speech-act participants in modali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urse

and Grammar, Universiteit Gent, 23-25 October 2008, <http://www.christianlehmann.eu/publ/lehmann_modality.pdf>

Lyons, John(1977), *Semantics,* Vol.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n Sokkeang and 김양진(2017), '(-어)하다'와 '(-어)지다'의 접어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8, 우리어문학회, 233-258.

Oswalt, Robert L.(1986), The Evidential System of Kashaya, in W. Chafe and J. Nichols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Ablex, 29-45.

Palmer, F.R.(1988),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Plungian, Vladimir A.(2001),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349-357.

Plungian, Vladimir A.(2010), Types of verbal evidentiality marking: an overview, in G. Diewald and E. Smimova (eds.)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Berlin: Walter de Gruyter, 15-58.

Slater, Keith W.(2003), *A grammar of Mangghuer: A Mongolic Language of China's Qinghai-Gansu Sprachbund*, London: RoutledgeCurzon.

Tenny, C(2006), Evidentiality, Experiencers, and the Syntax of Sentience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5, 245-288.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말뭉치>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구어말뭉치(버전 1.1.), 문어말뭉치(버전 1.2), https://corpus.korean.go.kr/ 2023.02.06.

<Abstract>

A Study on the '−eo ha−' Integration Phenomenon and Semantic Function in Korean

Kim, Mi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gration pattern and semantic functions of the construction of '−eo ha−'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By looking at the preceding and following elements of '−eo ha−', it was noted that '−eo ha−' has various senses, playing a role in synchronic language use.

Until now, '−eo ha−' has been suggested as functions such as 'Verbalization', 'Relaxation of Person Constraints', and modal meaning such as 'Egophoricity' and 'Evidentiality' within the integration with psychological and sensory adjectives. However, in the actual corpus, '−eo ha−' appears behind various categories other than psychology and sensation. Furthermore, its semantic function can also be revealed in more various ways. In Chapter 2, each discussion of previous studies has been summarized and the necessity of describing '−eo ha−' as a grammatical construction with multiple senses is shown.

Chapter 3 presents a specific list of preceding elements of '−eo ha−',

and divides them into two main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ubjectivity. Since the ‘internal state’ expressed by psychological and sensory adjectives can only be directly known by the speaker at the time of utterance, the subject is limited to the first-person speaker in the present tense. In this case, subjectivity is high because the speaker's perception and perspective become the main mea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subject person because other people can perceive the cases related to the expressions that represent external behavior based on internal states, human personality/attitudes, and physical movements. I have grouped them into the category with relatively low subjectivity.

Among them, in expressions of physical movement, a new integration pattern was found which was not presented as a preceding element of ‘-eo ha-’ in previous studies. Also, in recent years it has been shown that exceptional integration patterns have been additionally found in the context of observation and description of the character. In this regard, I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 list of preceding elements of ‘-eo ha-’ is gradually expanding.

Chapter 4 presents the factors of '-eo ha-' integration for each semantic type of preceding element, and explains the factors in common. First of all, the factors that made ‘-eo ha-’ integrated with the high-subjectivity class are ‘objectification of subjective internal states’, ‘demand of activity’, and ‘emphasis on the meaning of observation’. On the other hand, the low-subjectivity class does not include ‘objectification of subjective internal states’ in the ‘-eo ha-’ integration factor. Instead, ‘demand of activity' and 'emphasis on the meaning of observation' are presented as integration factors. Through these two common factors, the possibility of gradual expansion of '-eo ha-' distribution is suggested.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ains the meaning of 'observation' as a conventionalized meaning from the context in which '-eo ha-' was

frequently used. In the context of '−eo ha−' describing the subjective internal states of the third−person subjec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inner side of the subject can be observed by others. In addition, regardless of person, '−eo ha−' is used to satisfy demand of activity, so it is used more frequently in the context of observation. As a result, the meaning of the '−eo ha−' construction itself can be recognized as an addition to the meaning of 'observation' as it repeatably appears regardless of person in the context of observation itself. All the preceding elements of '−eo ha−' included 'activity' and 'observation' factors, therefore the two factors can be said to play a major part in the expansion of the '−eo ha−' distribution. This is also supported by he fact that the exceptional cases of integration were mainly revealed in the description and observation context.

Chapter 5 lists the grammatical elements that affect the necessity and optionality of '−eo ha−' integration patterns. Even if the elements that can precede '−eo−ha−' in Chapter 3, '−eo ha−' integration phenomenon was realized differently due to essential, impossible, or optional trends depending on which grammar elements follows. By revealing each grammatical element and its characteristics, it is shown that the integration factor of '−eo ha−' discussed in Chapter 4 also interacts with the given syntactic environment.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eo ha−' construction is actively used with multiple meanings, and its distribution expanding, thus being a synchronic grammar element.

Chapter 6 summarizes the above discussions and considers limitations.

keywords : '−eo ha−', Observation, Subjectivity, Subjective verbs, Person Constraints, Activity, Evidentiality.

Student Number : 2021−21369.